

2009년 신라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신라사 연구에 대한 검토

- 일시 : 2009년 9월 19일(토) 10:30~18:00
-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주최 : 신라사학회
-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학술대회 일정

○ 등록 (10:30~11:00)

○ 사회 / 이송란(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제1부 : 개회식 (11:00~11:20)

개회사 / 김창겸(신라사학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콘텐츠편찬연구실장)

○ 제2부 : 기조 발표 (11:20~11:50)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의 망령이 만들어낸 민족

발표 : 이종욱(서강대학교 총장)

○ 점심시간 (11:50~13:00)

○ 제3부 : 주제 발표 (13:00~16:30)

제1주제 발표 (13:00~13:30)

일제강점기 신라사 사료비판론의 전개—『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사를 중심으로—

발표 : 이부오(백석고등학교 교사)

토론 : 문창로(국민대학교 교수)

제2주제 발표 (13:30~14:00)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의 신라 화랑 연구

발표 : 조범환(서강대학교 박물관 연구교수)

토론 : 정운용(고려대학교 교수)

○ 휴 식 (14:00~14:15)

제3주제 발표 (14:15~14:45)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의 신라 불교 연구

발표 : 판카즈 모한(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토론 : 김상현(동국대학교 교수)

제4주제 발표 (14:45~15:15)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발표 : 차순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토론 : 이순자(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제5주제 발표 (15:15~15:45)

일제강점기 신라 금석문 연구

발표 : 장일규(국민대학교 연구교수)

토론 : 권덕영(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휴 식 (15:45~16:00)

○ 제4부 : 종합토론 (16:00~18:00)

좌 장 : 신형식(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참가자 /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 전원, 방청객

인 사 말

신라사학회가 개최하는 2009년 추계 학술대회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신라사 연구에 대한 검토’는 여러 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라는 한국 역사상 천년 동안 유지된 왕조로서,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여 찬란한 민족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라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로 부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신라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멸망 직후인 고려 초부터 시도되었습니다. 한국고대사 연구의 주요 자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편찬은 신라 역사문화에 대한 고려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실학자들은 우리 역사문화의 실상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해하고, 그 속에서 민족문화의 원형을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들이 고조선과 고구려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문화의 연원을 찾아 나가면서 신라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신라사는 조선을 식민 지배하였던 일제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은 근대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해 한국고대사 가운데 특히 신라사 연구에 집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신라사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그들은 신라사의 각 분야에서 실증사학적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신라사 연구에 근대적 초석을 놓았지만, 한국인 학자들의 학문적 견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전인수적 태도를 거침없이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태도 때문에 신라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해방 이후에도 고구려·백제의 연구에 비하여 점차 주목받지 못한 채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라는 한국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신라사 연구가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 역사문화의 원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신라 역사문화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신라사학회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신라사 연구를 종합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신라사 연구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 소중한 기조발표를 해주시는 이종욱 서강대학교 총장님과 각 세부주제 발표자는 물론 지정토론자, 진행과 종합토론의 사회자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학술대회를 후원해 주신 동북아역사재단, 신라사학회 실무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2009년 9월 19일

신라사학회장 김 창 겸

기조 발표

쫘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의 망령이 만들어낸 민족

이 종 욱
(서강대학교 총장)

I. 머리말—문제제기

역사학자들은 진실만을 말할까? 한민족(韓民族)의 시조는 누구인가? 현재 민족공조·하나되어·우리끼리를 외치는 근본 이유가 되는 민족은 원래 존재했던 것인가,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인가? 학문적으로 볼 때 민족을 만든 민족사, 민족사를 만들어낸 민족주의사학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는 없는가? 한국인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민족은 진리인가?

여기서 몇 가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다. 제국 일본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임나일본부설은 진실인가? 아니다. 역사학자들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거짓말을 해온 존재들이다. 한민족의 시조가 단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단군을 시조로 하는 민족이 온 국민의 상식으로 된 것은 1945년 해방 후 한국의 역사교육과 역사연구를 장악했던 손진태와 같은 관학파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한국인 중 단군을 시조로 하는 성과 본관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단군을 시조로 한다는 민족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구려·백제·신라 사람들은 단군을 시조로 하는 민족이었을까? 아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왕국을 형성했고 서로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하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 나라들이었다. 마치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미국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무관하게 독립국이 된 것과 같다. 미국이 영국 등과 민족공조·하나되어·우리끼리를 외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단군을 시조로 한다는 민족사와 그것을 만든 민족주의사학은 헛소리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 결국 민족은 진리일 수 없음도 알 수 있다.

나는 이 글에서 한국인들이 진리로 생각하는 민족, 한국인의 가슴에 하나의 이념(신앙)으로 자리 잡은 민족이 만들어진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누가 언제 민족을 만들어 한국인의 머리 속에 주입시켰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II. 신라에 오리진을 둔 한국·한국인

우선 한국인 중 단군의 자손이 없다는 사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면 민족사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온 고구려인을 시조로 하는 한국인은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신라인을 시조로 하는 한국인들이 다수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족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신라 건국신화와 신라 내물왕 이전에 활동하던 사람을 시조로 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 더하여 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김씨들이 있다. 이들 김씨는 신라인 김유신이 아니었다면 번성할 수 없는 성씨였다. 이렇게 보면 현재 한국인의 다수는 신라인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이나 고주몽의 후손들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이미 나는 『춘추』(2009)에서 한국·한국인·한국사회·한국문화의 오리진이 신라임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사학이 만든 민족사에서는 한국·한국인이 신라 오리진임을 은폐해 왔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다름 아니라 관학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 민족사에서 신라 내물왕 이전의 역사를 침묵시켜왔기 때문이다. 내물왕 이전의 역사를 살려내기만 해도 현재 한국인들이 박·김·석과 같이 신라의 왕을 배출했던 종성(宗姓)과 이·정·최·손·설·배와 같이 6촌장을 시조로 하는 6부성(六部姓)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누가, 언제, 왜 신라 내물왕 이전의 역사를 침묵시켰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III. 津田左右吉의 『삼국사기』 내물왕 이전 기록 허구론

쯔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三國史記の新羅本紀について”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研究』, 1919, 545~564쪽)를 발표하여 세상에서 처음으로 「신라본기」 상대의 기록 그 중에서도 내물왕 이전 기록을 사료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발명해낸 사람이기 때문이다.¹⁾

우선 그는 왜 내물왕 이전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했을까? 그 답은 그의 논문 첫머리에 나온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라본기」의 상대 부분에는 소위 왜 또는 왜인에 관한 기사가 대단히 풍부하게 들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사들은 『일본서기』와 『고사기』와 함께 우리(일본) 상대사를 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인 것처럼 생각된 적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삼국사기』의 상대 부분이 역사적 사실의 기재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동방 아세아의 역사를 연구하는 현대 학자들 사이에는 이미 이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에 관한 이 기사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사료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505쪽)고 하였다. 津田左右吉로서는 『삼국사기』 상대 기록에 나오는 왜, 왜인에 대한 기록을 인정할 경우 당시 일본인들이 발명해낸 임나일본부설과 같은 일본 고대사는 허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왜, 왜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삼국사기』 상대 기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료비관하여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내물왕 이전 기록의 허구성 주장이 가지는 문제들을 보겠다. 그가 내물왕 이전의 기록을 사료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다름 아니라 신라의 역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삼국사기』에 상대 기록에 나오는 왜 또는 왜인에 관한 기록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당시 일본인들이 발명했던 일본 고대사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²⁾ 그는 임나일본부설을 만든 일본고대사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삼국사기』 상대 기록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 비관했던 것이다.

그의 사료비관을 보자. 첫째, 그는 『삼국지』를 택하고 『삼국사기』의 기록을 버리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한지(韓地)에 관한 확실한 문헌은 현존하는 것으로서는 위지(魏志)의 한전과 거기에 인용된 위략이 처음이며 그것에 의해 3세기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조금 소급하여 1~2세기 경의 대체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506쪽) 그러나 『삼국지』 한조는 중국인의 관점에서 기록한 일종의 민족지로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서가 아니다.³⁾

1) 이 글에서는 津田左右吉, “三國史記の新羅本紀について”,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研究』(1924)를 이용했다. p.505에서 “단지 왜 그것이 신용하기 어려움지를 정리하여 설명한 글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신라본기」에 관하여 그 개요를 언급함으로써 독자가 참고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2) 이종욱, 「광개토왕비 및 『삼국사기』에 보이는 ‘왜병’의 정체», 『한국사 시민강좌』 11, 1992, pp.43~70.

3) 이종욱, 「삼국지 한전 정치관계 기록의 사료적 가치와 그 한계」, 『길현익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1996, pp.365~391.

둘째, 그는 조선유민이 사로6촌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신라는 기자나 위만과 같은 중국인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며 혁거세의 성인 박도 거서간이라는 그 호도 진한인의 말로 생각될 뿐 아니라 신라인 또는 그 중심이 된 사람이 중국인 같은 모습은 어떤 점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심히 불가사의한 일이라 했다.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조선 유민이 중국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그는 「신라본기」에 그 최초의 국왕을 혁거세라 하고 건국의 해를 기원전 57년으로 삼고 있다고 하며 그 뒤의 연대기가 거침없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며 이 자체가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라 했다. 그는 이 연대기가 후에 전해지려면 1~2세기에 중국의 문화가 상당히 깊이 신라에 이식되지 않으면 안 되고 진한 외의 제국(諸國)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하고 삼한 전체가 같은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 또는 낙랑의 중국인과의 교섭이 상당히 이루어져야 했고 그렇다면 중국의 사적에 한지(韓地)의 기사가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신라 왕위계승의 계보를 전하는 데 중국문화가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궤변일 뿐이다. 신라인들은 그들의 왕과 관련된 계보와 역사적 사건을 구전으로 전했던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그는 유리이사금 때 6촌을 6부로 삼아 일일이 성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중국인이라면 이미 성이 있을 것이며 그 성은 중국인의 사상에서 말하면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는 자가모순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그가 말한 것과 같이 조선유민이 중국인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6촌장들이 성을 가졌던 중국인이었다는 증거도 없다.

다섯째, 그는 건국의 시조 혁거세는 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님은 물론이라고 했다. 그 밖에 탈해에 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김씨 및 계림의 이름의 설명으로서 닭울음을 듣고 금독(金櫛)을 얻었다는 이야기, 박을 허리에 차고 왜에서 바다를 건너온 호공이라는 자의 이야기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이 아님은 물론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그가 건국신화의 특성을 몰랐거나 애써 무시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여섯째, 『삼국사기』에 나오는 진한 소국의 정복에 대한 기록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 했다. 그는 실제로 신라가 진한(辰韓) 지방을 통일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4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흘해이사금(310~356) 시대라 하며 「신라본기」의 상대 부분에 보이는 외국관계와 영토 관계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또한 津田左右吉의 역설일 뿐이다.

일곱째, 그리고 정치에 관해서는 왕에게 덕이 있고 민이 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인이나 낙랑인이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든지 하는 등의 이야기도 모두 중국인의 사상이지 한인(韓人)의 풍습이 아니라 했다.

이 또한 그의 역설일 뿐이다.

여덟째, 그는 「신라본기」의 기사가 만들어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나, 중국 사적에서 빌려온 것 또는 거기에 의거하여 안출한 것이 있다고 했다. 둘, 후대 상태를 옛부터 있었던 이야기로 삼거나 또는 나중의 사적에 의거해서 구상한 것이 있다고 했다. 셋, 정치도덕에 관한 사상의 소산이 중국경전에서 나온 것임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라 했다.

아홉째, 전체 기년(紀年)이나 역대 국왕의 세계(世系)도 또한 구상(構想)임을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거듭 말하지만 「신라본기」의 왕위계승 계보나 그 기년들은 구전을 통해 전해진 것이다. 물론 구전 과정에 내용이 조정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구상된 것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이 「신라본기」의 상대 기록을 허구라고 해놓고 그는 본색을 드러낸다. 그는 이와 같은 기사를 제외하면 「신라본기」의 상대(上代) 부분은 거의 공허하게 되어 버리고 남은 부분은 왜에 관한 것 뿐이다. 하지만 「신라본기」 전체의 성질이 상술한 바와 같다고 한다면 왜에 관한 기사 가치도 또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그 기록을 사실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 걸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倭)가 가야를 근거로 삼아 신라와 맞섰다는 명백한 사건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점점 더 왜인에 관한 기사를 채록하는데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많은 전쟁담은 진실된 사실이 망각된 뒤에 소홀하게 구성된 것일 게다.”(520쪽)라 했다.

위의 주장을 통하여 津田左右吉은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전형적인 식민사학자였던 것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신라본기」에 대한 津田左右吉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실성이사금(402~417) 무렵에도 명백히 허구로 간주해야 할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의 내물이사금(356~402) 무렵 즉 우리 군대가 처음으로 신라를 눌렀다고 할 수 있는 시대의 기사도 그 밖의 확실한 사료 기재에 비추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은 무심코 신용할 수가 없다.”(522쪽)고 한 것이 그것이다.

津田左右吉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 내물왕 이전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다. 그는 「신라본기」가 조작(造作)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 했다. 그러한 사정은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 「백제본기」도 물론이라 했다.(523쪽)

여기서 津田左右吉의 오만방자한 주장을 보고 넘어가기로 한다. 그는 “이렇게 만들어진 「신라본기」의 만듦에서는 대단히 조잡한 것이며 아무런 생기도 광채도 없는 것이다. 너무 심하게 중국화되고 형식화 되어서 신라인에게 특수한 사상도 감정도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훨씬 후에 고려조에 편찬된 것이지만 그 사료가 된 신라인의 저술에 있어서도 역시 비슷한 것은 아니었을까? 가령 중국사상의 윤색이 농후하더라도 또 한문으로 썼더라도 우리 일본서기와 그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가 있다. 처지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 민족성이 드러난 것인지 어쨌든 반도인 지식계급은 불쌍한 중국사상의 노예였다. 어느 국민의 상대사에서도 그 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설화이며 거기에 그 국민의 특수한 사상과 감정과 생활상태 등이 드러나 있지만 이것도 「신라본기」에는 극히 빈약하고 또 신라인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특색이 없다. 혁거세에게도 탈해에게도 말이 이용되고, 탈해에도 계림의 알지에도 금독이 사용되고 또 혁거세에도 호공에도 같은 호(瓠)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23~524쪽)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그가 식민사학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津田左右吉이 주장한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 내물왕(356~402) 이전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은 그 안에 나오는 왜·왜인·왜병에 대한 기록을 인정할 경우 그 이전 일본의 역사는 당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것과 같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⁴⁾

IV. 일제 식민사학의 망령을 따르는 한국사학

津田左右吉의 내물왕 이전 역사 말살론은 해방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이병도 · 손진태의 내물왕 이전 기록 허구론

1945년 해방 후 한국에는 제대로 된 한국사개설서 한 권 없었다. 그 때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던 일본 와세다 대학 졸업생들인 이병도와 손진태는 와세다 대학 교수였던 津田左右吉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 내물왕(356~402) 이전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을 그대로 따

4) 이종욱, 「광개토왕비 및 『삼국사기』에 보이는 ‘왜병’의 정체, 『한국사 시민강좌』 11, 1992, pp.43~70.

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병도는 신라본기 내물왕 대의 기록부터 신빙하였고,⁵⁾ 손진태는 13대 미추왕(261~284)부터 신라의 국가적 흥기가 있었다고 하였고,⁶⁾ 그들 모두 신라의 건국신화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했다.

두 사람 모두 신라 건국신화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했고, 내물왕 이전의 역사는 『삼국사기』의 기록대호가 아니라 『삼국지』 한조를 따라 삼한론을 폄했다. 이로써 서울대의 교수였던 두 관학파들이 신라의 앞부분 수백 년의 역사를 말살시켰던 것이다.

2. 『한국사신론』의 내물왕 이전 역사

다음은 『한국사신론』(한글판, 1999)의 내용을 보자. “신라의 모체는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진한 12개 성읍국가 중의 하나인 사로였다. 이 사로는 주위 여러 성읍국가와의 연맹체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내게 되었는데, 석씨의 출현은 그러한 움직임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그러다가 나물마립간(356~402) 때에 이르면 이미 낙동강 동쪽의 오늘날 경북 일대를 지배하는 상당히 큰 연맹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58쪽)

위의 기록을 보면 『한국사신론』에서도 이병도의 견해를 잇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津田左右吉이 사료비판한 『삼국사기』 내물왕 이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국사』의 내물왕 이전 역사

2002년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찬된 고등학교 교과서 『국사』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신라는 진한 소국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는데, 경주 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유이민 집단이 결합해 건국되었다(기원전 57). 이후 동해안으로 들어온 석탈해 집단이 등장하면서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왕)으로 추대되었고, 주요 집단은 족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4세기 내물왕 때, 신라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또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48쪽)

5) 이병도, 『한국사』 고대편, 1959, p.350 및 p.375.

6) 손진태, 『조선민족사개론』, 1948, 1970, pp.117~120.

사실 『국사』에는 혁거세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

V. 津田左右吉의 망령을 부동켜안고 만들어낸 민족

『삼국사기』에 따르면 1세기 중반부터 3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략 200년 동안 신라는 진한의 소국들을 정복한 것으로 나온다. 내물왕 이전 역사에 있어 『국사』는 『한국사신론』을 따른 것이고, 『한국사신론』은 이병도와 손진태의 견해를 따른 것이고, 이병도와 손진태는 津田左右吉의 견해를 따른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한국사의 학문권력을 장악한 연구자 중 어느 누구도 津田左右吉이 내물왕 이전 역사를 침묵시킨 데 대하여 비판을 가한 일이 없다. 오히려 내물왕 이전 역사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온 것이 사실이다.

津田左右吉에서 시작하여 『국사』에 이르기까지 신라의 건국신화를 역사의 무대로 끌어들이려는 예를 찾을 수 없다. 여기서 津田左右吉이 처음으로 『삼국사기』 내물왕 이전의 역사를 말할 때 후 현대 한국사학은 그의 주장을 따라온 것이다. 심지어 국민의 역사지식과 역사의식을 제공하는 교과서 『국사』에까지 그러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津田左右吉의 망령이 지난 90년간 한국사학을 지배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신라 내물왕 이전의 역사를 침묵시켜온 한국사학은 한국·한국인의 신라 오리진을 침묵시킨 것이다. 그리고는 단군을 시조로 하는 민족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어떤 면에서 津田左右吉의 망령이 단군을 시조로 하는 민족을 만드는 명석을 갈아준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내물왕 이전 역사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모델 1」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 편찬된 사서에 나오는 내물왕 이전의 역사를 가리킨다. 「모델 1」에서는 어디서도 내물왕 이전의 역사를 침묵시킨 예가 없다. 그것은 구전을 통해 전해진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델 2」는 津田左右吉에서 『국사』까지 이어지는 내물왕 이전 역사를 가리킨다. 해방 후 한국의 학자로서 임나일본부설을 따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설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묵시킨 내물왕 이전 역사를 옹호해 살려낸 연구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모델 3」을 제창해 왔다.⁷⁾ 「모델 3」은 「모델 2」의 무대를 떠나 새로운 마당에서 내물왕 이전의 역사를 재구성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모델 1」을 넘어 신라의 역사를 살려내는 것이

7) 이종욱, 『주몽에서 태조대왕까지』, 2008, pp.1~295.

이종욱, 『춘추』, 2009, pp.1~446.

다. 「모델 3」은 신라 건국신화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벗겨내고 역사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국신화에 나오는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박씨는 물론이고 6촌장을 시조로 하는 6부성의 존재도 인정하게 된다. 거기에 더하여 석씨나 김씨와 같은 또 다른 종성의 존재와 신라인 김유신을 중시조로 하는 신김씨 즉 김해 김씨의 존재도 인정하게 된다. 그들 종성과 6부성 그리고 신김씨의 후손들이 한국인의 다수를 차지한 것을 부정할 길이 없는 것이다.

VI. 맺음말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물왕 이전의 기록을 사료로 인정했다면 어느 누구도 단군을 시조로 하는 민족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인의 다수가 신라인을 시조로 하는 종성과 6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늦었지만 90년 만에 津田左右吉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한국·한국인을 만든 역사를 찾아야 한다. 한국인의 역사지식도, 한국인의 역사의식도, 국정교과서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인의 뿌리를 옳게 찾아야 한다.

고구려·백제·신라인들이 중국인의 관점에서는 漢族과 구별되는 종족이었던 것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삼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단인 민족 그것도 단군의 자손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삼국 사람 사이에 민족공조나 하나되어 또는 우리끼리 정신은 없었던 것이다. 삼국 사람들을 단일 민족으로 만들어낸 것은 관학파들이다. 그리고 한국·한국인의 뿌리가 되는 신라·신라인을 외세를 끌어들이며 동족의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하여 비판해온 것도 민족사를 만들어낸 관학파들이다.

한편 북한은 한국인의 이념(신앙)처럼 된 민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북한에서는 1993년 이전에는 단군은 언급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그 때부터 단군릉을 찾았다고 하는 등 대남 전략에서 단군을 시조로 하는 민족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인들은 단군을 시조로 하는 민족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민족을 내세우며 민족공조, 하나되어, 우리끼리 정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델 3」이 구상하는 역사를 살려 내야할 때가 되었다.⁸⁾ 그리고 단군을 시조로 하는 민족이 아니라 신라에 오리진을 둔 한국·한국인의 존재를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현재 한국인들은 신라인을 시조로 하는 종성과 6부성만이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말갈인, 위구르인 등을 시조

8) 이종욱, 「관학파가 만든 ‘민족사’에서 우리를 만든 ‘한국사’로」, 『한국고대사탐구』 1, pp.7~38.

로 하는 성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단군을 시조로 한다며 순수혈통의 단일민족, 배타적인 민족, 국수주의를 불러오는 민족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순혈주의에 대한 환상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을 통하여 세계 속에 이미 들어서 있는 것이다. 한국사를 되돌아보며 신라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온 귀화인들을 시조로 하는 성을 가진 씨족들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인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일제강점기 신라사 사료비판론의 전개

— 『三國史記』新羅本紀 초기기사를 중심으로 —

이 부 오

(백석고등학교 교사)

- 목 차 -

1. 머리말
2. 근대적 사료비판론의 도입
3. 사료비판론의 변화
 - 1) 건국시기론
 - 2) 대외관계론
 - 3) 기년조정론
4. 일제강점기 사료비판론의 공과

1. 머리말

신라 상고사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기사들은 상고기 신라의 상황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면서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근대사학적 방법으로 신라사 연구를 처음 시도했던 일본인 학자들은 신라본기 초기기사를 거의 부정하는 전제 하에 신라 상고사에 접근했다¹⁾. 해방 이후의 한국인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신론을 극복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정리된 사료국의 성장과정이 역사발전의

1) 이에 대해서는 2·3장에서 구체적으로 <http://www.webhard.co.kr> 언급할 것이다.

대세상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쪽에서는 이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²⁾ 수정론적 입장에서는 왕위계보와³⁾ 왕대별 재위기간을 조정하거나⁴⁾ 기사별 내용을 분해함으로써 초기기사에 반영된 역사상을 복원하려 했다.⁵⁾ 일부 왕대의 재위기간을 수정하되 사료국의 건국 기사가 반영하는 시기를 B.C.2세기~A.D.1세기로 넓혀 이해하는 견해도 있었다.⁶⁾

같은 자료를 놓고서 해석이 분분했던 것은 연구자들의 경험적 분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상당 부분은 여기에 접근하는 전제조건이 차이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연구자들이 직면했던 문제의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해방이후 새롭게 제기된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신라사 연구자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三國史記』 초기기사 비판론에 대한 비판이 상세하게 이루어졌고,⁷⁾ 이들로부터 현재까지의 사료관과 기년론이 조망되었다.⁸⁾ 해방 이후의 초기기사에 대한 관점을 포함해 고대사 연구에서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정리도 이루어졌다.⁹⁾ 그러나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해 일본인 학자들이 처음 손을 댄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2) 金元龍, 「三國時代の 開始에 관한 一考察」, 『동아문화』7, 1967.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상, 『한국학보』2, 1976.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영남대출판부, 1980.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1982.
 이종욱, 제2회 학술연구발표회 종합토론, 『아시아문화』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114~116쪽.
- 3) 金哲堧,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17·18합집, 1962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木下禮仁, 「新羅始祖系譜の構成-金氏始祖を中心としてと」, 『朝鮮史研究會論文集』2, 1966.
 金光洙, 「新羅上古世系の 再構成 試圖」, 『東洋學』3, 1973.
 申석렬, 『“三國史記” 新羅本紀 初期記錄 問題와 新羅國家의 成立』,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6, 30~40쪽.
- 4) 李仁哲, 「新羅 上古世系の 新解釋」, 『淸溪史學』4, 1987.
 姜種薰, 「新羅 上古紀年の 再檢討」, 『韓國史論』26, 서울대 국사학과, 1991, 26~27쪽.
 姜種薰, 『新羅 三姓 族團과 上古期の 政治體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23~38쪽.
 宣石悅, 「“三國史記” 新羅本紀 上代 百濟關係記事의 檢討와 그 紀年」,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 變動』, 신서원, 1994, 310쪽.
- 5) 노중국, 「鷄林國攷」, 『역사교육논집』13·14, 1990, 177쪽.
- 6) 李富五, 「新羅初期 紀年問題에 대한 재고찰」, 『선사와 고대』13, 1999.
- 7) 崔在錫, 『韓國古代社會史方法論』, 一志社, 1987, 10~263쪽.
- 8) 이강래, 『三國史記 形成論』, 신서원, 2007, 28~47쪽, 62~79쪽.
- 9) 문창로, 「고대사연구 60년의 동향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40, 2005.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구한말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인 연구자들의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을 조망해 보려 한다. 특히 해당 사료들을 평가하는 논거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러한 작업이 앞으로 신라본기 초기기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 근대적 사료비판론의 도입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대한 일제강점기의 사료비판론은 일본이 근대사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비판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전통사학적 분위기가 지속되었던 구한말에 이러한 사료비판론이 가져온 변화와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 한다.

개항 이전의 조선에서도 『삼국사기』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적어도 실학 시기부터 고증적 연구방법이 동원되기는 했으나 정통론적 역사인식의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¹⁰⁾ 한치윤의 『해동역사』처럼 명분론을 탈피해 문헌고증적 태도가 강했던 사례도 있었으나,¹¹⁾ 이러한 연구가 개항 이후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항 이후에는 개화의 흐름 속에서 고대사 연구가 오히려 침체되었고, 실학자들의 역사 연구는 발전적으로 계승되지 못했다.¹²⁾ 이러한 상황에서 1895년부터 학부에서 급하게 편찬된 한국사 교과서들은 『삼국사기』 기사들을 나열하거나 정통론적 서술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¹³⁾ 반면 일본에서는 1889년 제국대학 사학과에 사학회가 결성된 이후 자국사와 한국사가 밀접히 연관된 점을 인식해 한국사 연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¹⁴⁾ 이 과정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1891년 1월 菅政友는 『삼국사기』에서 韓王之代數는 문제가 없으나 世數는 왕왕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¹⁵⁾ 그는 『삼국사기』가 『帝王年代曆』를 참조했을 것으로 보고 왕위 대수를 인정하되 왕실의 계보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는 『고사기』 『일본[서]기』보다 한국의 사서를

10) 裴祐晟, 「안정복」,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비평사, 1994, 281쪽.

11) 한영우, 「한치윤」, 앞책, 352~361쪽.

12) 조동걸, 『현대 한국사학사』, 나남출판, 1998, 20쪽, 70쪽.

13) 1895년 가을 학부에서 편찬된 교과서로서 『조선역사』(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11, 아세아문화사, 1977), 『조선역대사략』(同 총서 11권), 『조선약사』(同 총서 13권)를 들 수 있다.

14) 李萬烈, 「19世紀末 日本の 韓國史研究」, 『清日戰爭과 韓日關係』, 한국사연구회, 1985, 83쪽.

15) 菅政友, 「三韓文學の原始及び歴史考」, 『史學會雜誌』14, 1891, 42~43쪽.

더 신빙하고 신공황후의 신라정토 기사를 불신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한국의 사서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오류와 탈루가 적지 않으니 記紀[『고사기』·『일본서기』]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했다. 이는 치밀한 분석보다는 선형적 인식에 기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普通 2년[521] 梁에 대한 募泰[법흥왕]의 사신 파견이 기록상 최초의 신라와 중국 간 교섭이라 했다.¹⁶⁾ 신라가 기존에 이미 중국과 교섭한 점을 간과한 것은 사료 검토가 부족했던 결과일 것이다. 결국 菅政友는 신라본기 초기기사의 왕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불신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같은 해 8월에 吉田東伍는 고구려 기록과 달리 혁거세의 건국 기사나 삼국의 건국 순서 등은 신빙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세기 후반인 漢 靈帝[168~188] 때부터 강대해져 아달라왕 20년[173] 기사처럼 남방의 여왕국과 교섭했다고 보았다. 신라 초기의 왜병 침공 기사는 迦羅 太宰를 통한 공격으로서, 신공황후의 정벌은 기림왕대의 일로 보았다. 동시에 『北史』에서 신라 왕이 되었다고 한 백제인은 김씨 왕이 등장하기 이전 석씨의 선조라 하여 결과적으로는 초기 왕대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¹⁷⁾ 吉田東伍의 서술에는 선언적 주장이 많아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대체로 보면 왜와의 관련 여부가 사료 신빙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신라본기 초기기사의 왕대나 대외관계 기사의 일부를 신빙한 점이 菅政友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년 뒤에 나온 그의 저서에서는 혁거세대 기사에 탈해대의 일들이 뒤섞여 있다고 했으나, 탈해대 이후의 기사들은 실제와 부합한다고 보고 초기기사의 기년을 대체로 수용했다.¹⁸⁾ 다만 내해대의 于老가 흘해대까지 생존해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두 왕대의 于老는 동명이 인이라고 판단했다.¹⁹⁾ 이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 기년상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제외하면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그의 부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생각된다.

1892년에 최초의 근대적 한국사 통사를 서술했던 林泰輔는 삼국의 건국 순서와 신라·백제 간의 충돌기사를 비롯해 신라본기 초기기사를 거의 그대로 정리했다.²⁰⁾ 이듬해 신라의 基臨代 건국설을 수긍하지 않은 점으로²¹⁾ 보면, 그의 저서에서 신라본기 초기기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은 이를 신빙하는 관점보다는 분량이 많은 통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논증을 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林泰輔는 신라본기의 기년을 받아들

16) 앞글, 41쪽.

17) 吉田東伍, 「古代半島諸國興廢概考」, 『史學會雜誌』21, 1891, 34~35쪽.

18)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富山房, 1893, 136~141쪽, 268~280쪽, 353~359쪽.

19) 앞책, 255~274쪽, 256~357쪽.

20) 林泰輔, 『朝鮮史』권1, 8~9쪽, 권2, 1~11쪽. 吉川半七, 1892.

21) 林泰輔, 「古朝鮮三國鼎立形勢考を讀む」, 『史學雜誌』42, 74쪽.

이면서도 신라의 건국 시기를 의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같은 해 坪井九馬三은 基臨 10년[307]에 국호를 新羅로 삼았다는 기사를 근거로 이 때 신라가 건국했다고 보았다.²²⁾ 따라서 東晉[317~418] 이전의 기록은 訛傳과 事實을 변별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기림대 이전에는 삼한의 大小 부락이 각 지에 할거했으며,²³⁾ 초기기사의 對가야 충돌기사는 실제로는 진한이 西晉에 사신을 보낸 太康[280~289] 말 이후의 일이라 하였다.²⁴⁾ 그는 서진과의 교섭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되 新羅라는 국호의 출현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은 셈이다.

那珂通世는 1894년 3월부터 『史學雜誌』에 시리즈로 발표한 「朝鮮古史考」의 첫 번째 글에서 訖解代 이전 기사를 믿을 수 없으며, 백제본기·고구려본기와 마찬가지로 국초의 몇 대 기사들은 荒唐不經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3국 最古의 전설로서 연구자들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의 기사들은 疎搏質實하여 誇誕의 말은 적다고 하였다.²⁵⁾ 그러나 신라의 건국에 대한 기사들은 가장 황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脫解는 백제인이었는데 후대인들에 의해 奇談으로 조작되었다고 하였다. 파사대 이후의 정복기사들은 실제로는 晉代 이후의 사실을 반영하는데, 후대의 사료 편찬자가 과대한 자존심 때문에 漢·魏 시대로 소급해 기재했다고 추정했다. 자연히 탈해대 이후 신라·백제 간 충돌과 고구려·신라 간 충돌에 대한 기사들도 후대 사실이 소급된 것으로 이해되었다.²⁶⁾ 나아가 신라를 포함한 삼국 초기 왕들의 재위 연수가 보통 경우의 2배 가까이 되는 점을 지적하고 逸聖·訖解尼師今의 수명이 지나치게 길게 계산되는 점을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通典』에서 樓寒이 前秦의 苻堅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한 기록을 근거로 내물왕대부터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⁷⁾ 那珂通世는 신라본기에 대한 평가에서 중국 자료를 결정적인 근거로 여겼다. 다만 왕의 재위기간에 대해 지적한 것은 문제의 소재를 일부분 신라본기 안으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는 吉田東伍가 지적한 기년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那珂通世는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훨씬 높였다고 할 수 있다.

1890년대 일본인 학자들은 처음으로 근대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해 신라본기 초기기사를 평가해 대체로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다. 자료의 비교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사서가 중요한 대상으로

22) 坪井九馬三, 「古朝鮮三國鼎立形勢考」, 『史學會雜誌』36, 1892, 36쪽.

23) 坪井九馬三, 「古朝鮮三國鼎立形勢考」, 『史學會雜誌』38, 1893, 36~37쪽.

24) 앞글, 39쪽.

25) 那珂通世, 「朝鮮古史史籍考」, 『史學雜誌』5-3, 1894, 31~32쪽.

26) 那珂通世, 「新羅考」, 『外交釋史』2, 岩波書店, 1958, 148~157쪽.

27) 那珂通世, 「上世紀年考」, 『史學雜誌』8-10, 1897, 78~81쪽.

활용되었는데, 평균적으로는 일본 사서가 비중 있게 활용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자료의 비교 과정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선언적 평가에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접근은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연구방법을 취했으나, 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객관적 합리성은 실질적으로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연구의 축적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조건과 함께 『고사기』·『일본서기』를 근거로 태고 때부터 한국의 왕족·귀족이 일본에 복속했다고 본 에도시대 국학자²⁸⁾ 이후의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결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불신의 강도나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자에 따라 적지 않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이후의 연구 진전에 따라서는 깊은 성과를 일궈낼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기사들 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신라본기 초기기사의 연구에 중요한 방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3. 사료비판론의 변화

청일전쟁 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굳히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의 영역이 점차 넓어졌다.²⁹⁾ 이는 상대적으로 신라초기 기사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대륙침략에 나선 일본은 1908년 滿鮮歷史地理調査室을 설치해 한국사 연구에서 ‘만선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³⁰⁾ 신라사 연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 이러한 속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깊이를 더해 갔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러·일전쟁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파악하려 한다.

1) 건국시기론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인식을 가장 일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라의 건국 기사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우선 신라의 건국 시기에 대한 견해가 일제강점기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려 한다.

28) 旗田巍,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1983, 119~120쪽.

29) 이만렬, 앞글, 89쪽.

30) 旗田巍, 앞책, 129~130쪽.

신라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20세기 초 이후 제일 먼저 그 연구에 뛰어든 인물은 今西龍이었다. 1906년 가을 그는 재학 중이던 동경제국대학 대학원의 명을 받고 경주를 방문해 17~18일간 유적·유물을 조사하고 돌아갔다. 이를 1908년에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신라사 연구를 개시했다.³¹⁾ 여기서 그는 지증왕 이전의 기년 世次를 믿을 수 없으며 그 기사도 액면 그대로 취할 수 없다고 했다.³²⁾ 이는 신라본기에 기재된 B.C.57년의 건국 기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셈인데, 짧은 선언에 불과해 막연한 선입견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글의 후속편으로 1910년에 발표한 글에서 그는 赫居世 건국기사는 『삼국지』에서 辰韓이 秦의 혼란을 피해 온 망명인들의 나라라고 했던 것을 箕子朝鮮의 유민들이 진한 지역에서 나라를 부흥한 것으로 개작된 것이라 보았다. 실제로는 華夏·고구려·백제 계통 및 일본인들이 들어와 한민족을 정복하고 신라를 세웠고, 건국시기는 A.D.2~3세기라는 것이다.³³⁾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삼국지』에서 사로국이 진한 12국의 하나로 등장한 점을 고려하면서 『일본서기』에 기재된 신라 정벌 기사 등을 중시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후 그는 신라의 건국 시기가 신라시대에 이미 설정되었다고 보았다. 신라의 史官은 그 건국 시기가 고구려·백제보다 늦다고 정리할 경우 나라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라 여겨 건국 시기를 올려 수정했다고 했다. 신라의 건국이 삼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기록하면서도 이것이 최대한 덜 모순되게 보이려던 고구려 건국기년인 B.C. 37년과 동일한 1周甲 안에서 최초의 해로 하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바로 B.C. 57년 갑자년이었다는 것이다.³⁴⁾

기존과 비교할 때 今西龍의 연구는 『三國志』 韓傳과의 비교를 중시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건국 시기에 대한 견해도 영향을 주었지만, 그 논거에 대한 설명은 소략한 편이다. 이는 당시 그의 연구가 경주에 대한 고고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신라사를 개척적으로 연구하던 상황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합리적 근거 없이 『삼국지』 한전의 기사만을 중시하고 신라본기 건국기사의 가치를 전혀 무시한 것은 객관적 태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선역사지리조사실에 들어가 한국고대사를 전담했던 津田左右吉은 그 성과물로 1913년 펴낸 『滿鮮歷史地理』 I에서 신라본기 초기기사가 허구라고 주장함으로써³⁵⁾ 신라 건국 기사에 대한 불신론을 계승했다. 이 작업을 기반으로 1919년에는 신라본기에 대한 전문 논고를 내놓았

31) 今西龍, 「신라시대 경주의 분묘와 그 유물에 대하여」, 『人類學雜誌』23-269호, 1908(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이마니시 류의 신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08, 122~136쪽).

32) 앞 번역서, 131쪽.

33) 今西龍, 「신라 舊都 경주의 지세와 유적·유물」, 『東洋學報』1-1호, 1911(앞 번역서, 90~92쪽).

34) 今西龍, 「新羅史通說」,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앞 번역서, 21~22쪽).

35) 津田左右吉, 「新羅征討地理考」, 『滿鮮歷史地理』 I, 남만주철도주식회사, 1913.

다.³⁶⁾ 여기서 그가 「魏志」韓傳이 韓地에 관한 최초의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언급한 것은³⁷⁾ 倣西龍의 주장과 차이가 없다. 그는 赫居世의 건국기년 B.C.57년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1·2세기경 신라에 중국문화가 상당히 깊게 부식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시 경주 지역은 문화적 수준이 저급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건국 기사를 믿을 수 없으며, 신라를 세운 조선 유민은 중국인이라 했다. 『삼국지』 진한조에서 秦人들이 진한 지역에 정착했다고 했으나, 그는 신라본기 건국기사와의 비교 검토 없이 조선유민을 중국인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倣西龍의 소지왕대 이전 기사에 대한 불신론을³⁸⁾ 전제로 출발한 前間恭作도 광개토왕비와 符秦[前秦]에 대한 사신 파견을 들어 내물왕대에 신라라는 나라와 왕통이 시작된다고 보았다.³⁹⁾ 그 논거를 중국 사서에서 찾은 것은 기존 견해와 다를 바가 없다. 내물왕을 강조한 것도 那珂通世의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다만 내물대 이전의 16대가 村邑들이 분립된 「魏志」의 12국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삼국지』 한전에 기재된 진한 지역의 상황을 임의로 후대까지 내려 적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太田亮은 赫居世代 60년이 허구이며 갑자년에 즉위했다고 기재된 ‘제2대’ 南解가 실제로는 奈解라는 전제 하에 출발했다. 또한 ‘3대 儒禮’는 실제로는 基臨이므로 최초의 신라 왕은 탈해라고 했다.⁴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이는 吉田東伍와 같은 견해이다. 다만 그의 주장은 갑자년 즉위가 조작일 것이라는 점 및 초기의 왕이 유사한 이름의 후대 왕을 소재로 가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간단한 서술이기 때문에 일일이 검증하기가 어렵지만, 같은 논리라면 脫解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탈해에 대해 池內宏은 소수의 귀족에게 성씨가 보급된 신라 말에 조작된 인물이라 보고서 인정 가능한 왕을 기존 대부분의 연구자들처럼 내물왕부터라 했다.⁴¹⁾

신라 건국기사에 대한 불신론은 稻葉岩吉에 의해서도 반복되었다.⁴²⁾ 末松保和도 3姓의 시조 전설은 신라에 병합된 소국의 전승을 眞興王碑에 등장하는 3部를 배경으로 가상한 것이라 하였다. 신라의 사료상 건국시기인 B.C.57년은 낙랑군이 개설된 뒤 첫 번째 갑자년으로 조작한 결과

36) 津田左右吉, 「『三國史記』の新羅本紀について」,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洛陽堂, 1919(이부오·장익수 역, 「『三國史記』新羅本紀에 대하여」, 『신라사학보』15, 2009).

37) 앞 번역논문, 259~262쪽.

38) 이는 금서룡이 ‘지증마립간 이전’의 세차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앞 번역서, 131쪽)을 가리키는 것 같다.

39) 前間恭作, 「新羅王之世次と其の名について」, 『東洋學報』15-2, 1925, 56쪽, 66쪽.

40) 太田亮, 『日本古代史新研究』, 立命館大學出版部, 1928, 450쪽.

41) 池內宏, 「新羅の骨品制と王統」, 『東洋學報』28-3, 1941, 6~12쪽.

42) 稻葉岩吉, 「三國史記の批判」, 『朝鮮』192, 1931, 141쪽.

라고 했다.⁴³⁾ 신라의 실제 시조는 내물왕이며 그가 바로 소지왕 17년 神宮에서 섬겨진 시조라고 하였다.⁴⁴⁾ 신라의 실제 건국 시기는 『팔지지』에 기록된 ‘晉宋之間’을 기준으로 찾아야 하며 『太平御覽』의 4세기 후반에 기재된 신라는 진한 소국에 대한 병합으로 지배권을 확보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라의 역사적 출현은 4세기 중엽의 내물왕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⁴⁵⁾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중국 사료를 신라 건국의 결정적 근거로 삼은 점은 기존 연구자들과 동일하다. 3성이 진흥왕비의 3부를 소재로 가상했다는 견해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건국시기론은 대부분 중국 사료에서 ‘新羅’가 출현하는 시점을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신라의 건국은 4세기에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1897년 那珂通世가 내놓은 주장의 반복이기도 했다. 그 이전의 건국을 인정하는 견해들은 『삼국지』 한전의 기록을 전제로 했는데, 이는 今西龍의 견해를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사료를 강조하는 경향은 1890년대 연구가 일본 사료를 중시한 점과 차이를 보인다. 중국사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면서 일본인 연구자들은 신라본기의 비교 대상을 중국사료 쪽으로 옮긴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본기의 건국기사를 부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추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신라의 건국기사 자체를 분석해 歷史像을 복원하기보다는 이 기사에 대해 비판의 수단만 강화한 셈이다.

2) 대외관계론

신라본기 초기기사의 상당 부분은 대외관계기사로 채워져 있다. 이는 사로국의 성장에 따라 대외관계의 외연이 점차 확대된 점을 중시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사들에 대한 평가는 신라 상고기에 대한 이해의 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신라본기의 초기 대외관계 기사들을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에 대한 논의도 今西龍에 의해 시작되었다. 1911년에 발표된 글에서 그는 신라가 중국과의 거리가 멀고 해로교통도 없어 오랫동안 중국문물을 향유하지 못했다고 하고서 『資治通鑑』 晉烈宗紀에서 太元 2년[377] 신라가 秦에 조공했다고 한 것이 최초의 대 중국 교통이라고 보았다.⁴⁶⁾

43)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115쪽.

44) 末松保和, 「新羅上古世系考」, 『史學論叢』7, 京城帝國大學, 1938(앞책, 55~56쪽, 108~109쪽).

45) 末松保和, 「新羅建國考」, 앞책, 117~120쪽.

46) 今西龍, 「신라 舊都 경주의 지세와 유적·유물」, 『東洋學報』1-1호, 1911(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앞 번역서, 113쪽).

이는 『晋書』 진한조에서 太康 연간에 서진과 교섭했다고 확인되는 辰韓王의 존재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그는 那珂通世의 주장을 이어받아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기재된 대외관계 기사들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今西龍이 대중관계를 중심으로 다뤘다면, 津田左右吉은 남해 11년~소지 32년에 기재된 왜의 침공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기사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天平寶字 3년 즉 경덕왕 18년경[759] 일본이 신라 정벌을 계획하던 상황을 토대로 막연한 전설이 만들어졌으며, 다시 이 전설을 기반으로 역사가에 의해 해당 기사들이 構成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신공황후의 신라 정복을 통해 임나일본부의 기초가 공고해졌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⁴⁷⁾ 이 기사들을 불신하는 근거로서는 신라본기에 다과나국·비미호 기사처럼 후대에 부회된 기사가 실렸다는 점, 『일본서기』 계체·흠명기의 왜·신라 간 충돌 사실이 신라본기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 왜·가야의 공동작전 기사가 없는 점, 왜·신라의 교섭은 가야 임나일본부의 관리 하에 있어 왜의 공격도 가야 방면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지만 기록에서는 공격방향이 다른 점 등을 제시했다. 자비 6년[463]의 敵良城 공격 기사처럼 가야 방면으로부터의 공격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왜의 침공이 모두 가야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임나일본부의 존재와 기능을 지나치게 중시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는 임나일본부의 존재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내세우고 신라본기의 왜인 침공 기사들을 여기에 끼워 맞췄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太田亮은 왜 관련 기사의 허구론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기사들은 가라국[임나]이 왜에 도움을 청해 신라를 정벌한 사실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기』·『일본서기』·『삼국사기』는 그 공격이 일본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진 것처럼 후대의 상상에 따라 정리했다는 것이다.⁴⁹⁾ 왜의 공격방향에 대한 견해는 달라졌으나 임나의 역할은 여전히 중시된 셈이다. 三品彰英이 신공기 46년의 정벌을 통해 일본이 任那에 日本府와 수비대를 설치함으로써 諸國의 공존과 안전을 도모했다고 한 것도⁵⁰⁾ 이해방향이 유사했다고 볼 수 있다.

辰韓 諸國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太田亮은 신라가 일찍부터 이 지역을 병탄했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라본기의 초기 정복기사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는 신라가 강국으로 변화한 시기를 晋 이후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西晋에 대한 辰韓王의 사신 파견을 근거로 한 것이다.⁵¹⁾ 今西龍이 이 사실을 무시한 것과 비교하면, 太田亮은 신라초기의 정복기사들을 융통

47) 津田左右吉, 1913 앞책, 127쪽, 139~140쪽.

48) 앞책, 135쪽.

49) 太田亮, 1928 앞책, 418~422쪽.

50) 三品彰英, 『朝鮮史概說』, 弘文堂書房, 1940, 50쪽.

51) 太田亮, 앞책, 422쪽, 464~467쪽.

성 있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외관계의 외연이 확대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기준은 여전히 중국 사료에 있었던 셈이다.

한편 탈해대부터 신라가 서북 방면에서 백제와 충돌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津田左右吉은 그 무대를 거의 충주 주변으로 비정한 뒤, 신라가 이곳을 차지한 시기는 진흥왕대이므로 해당 기사들이 허구라고 보았다. 이 기사들은 6세기 중엽 이후 백제가 신라의 중앙과 한강 상류를 차단하기 위해 벌였던 전투를 정리했다는 것이다.⁵²⁾ 이는 3세기경 신라가 진한 12국 중 하나였다고 기록한 『三國志』 魏書의 기록과 ‘명백히 모순되는 점’을⁵³⁾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3세기까지 나타나는 華麗·不耐·貊國·高句麗와의 교섭은 모두 부정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3세기까지 신라가 진한 소국들을 정복했다는 기사들은 『삼국지』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낙랑·백제·말갈과 충돌했다는 신라본기 자체의 서술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上代의 외국관계 기사와 영토관계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후세의 사실에 기초하여 구상되었다는 것이다.⁵⁴⁾

여기서 사료국이 성장하기 전부터 진한 외부 세력과 교섭·충돌한다는 기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일괄적으로 6세기 중엽과 같은 특정한 시기의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기기사에 등장하는 나·제 충돌을 거의 모두 충주 방면으로 비정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는 소백산맥 너머에 대한 신라의 진출이 금강 상류를 향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해 470년에 신라가 三年山城 [보은]을 구축했다는 기사까지 불신하고 있다. 津田左右吉은 3세기 중후반 진한 12국의 분립을 중시한 今西龍의 견해를 기반으로 모든 대외기사를 부정한 셈이다.

신라의 영역 확대와 관련하여 末松保和는 4세기 후반 신라와의 교섭 기사가 보이는 『太平御覽』 등을 근거로 신라가 4세기 중엽에 주변 소국을 병합해 분열을 일단락 짓고 지배적 위치로 부상했다고 보았다. 이전까지 진한 12국은 서로 동맹·연합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⁵⁵⁾ 따라서 내물왕 이전의 정복기사와 지명비정을 모두 조작의 결과로 평가했다.⁵⁶⁾ 三品彰英도 같은 자료를 신라의 국력이 발전했다는 근거로 여겼다.⁵⁷⁾

여기서 진한 12국이 동맹·연합 관계로부터 신라의 영역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설정한 것은 신라의 성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복기사들의 실제 반영시기를 4세

52) 津田左右吉, 「羅濟境界考」, 『滿鮮歷史地理』I, 남만주철도주식회사, 1913, 142~149쪽, 162~163쪽.

53) 津田左右吉, 1919 앞글(이부오·장익수 역, 2009 앞 번역글, 262쪽).

54) 津田左右吉, 1919 앞글(이부오·장익수 역, 2009 앞 번역글, 263~266쪽).

55) 末松保和, 「新羅建國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117~120쪽, 132쪽,

56) 末松保和, 앞책, 147~150쪽,

57) 三品彰英, 앞책, 52쪽.

기 중엽으로 한정되는 것은 중국 사료에 기재된 ‘新羅’의 등장에 인위적으로 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개별적 기사들에 반영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뒤따르지 않는 한 신라본기의 정복기사들에 대한 그의 평가는 수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는 3세기 중후반에 진한 12국이 분립되어 있다가 4세기 후반 前秦에 사신을 파견해야만 신라의 성장이 증명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또한 가야와 신라가 임나일본부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따라 신라의 내부적 발전의 동력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가치를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은 신라의 성장 과정에 대해 얻어냈던 성과의 의미까지 반감시켰다고 볼 수 있다.

3) 기년조정론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비판은 필연적으로 실제 반영시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본 절에서는 신라본기 기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왕대기년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이 실제 기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려 한다[이하 계보도 참조].

일제강점기에 기년조정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연구자도 今西龍이었다. 그는 吉田東伍와 那珂通世가 일찍이 언급했던 수명상의 불합리함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탈해·일성·벌휴·내해·흠해이사금의 사료상 初出과 사망 사이에, 그리고 이들과 자손의 생존기간 사이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시대 인물인 탈해와 알지의 아래 계보에서 같은 기간 동안 서로 심한 대세수 차이가 나는 점도 지적했다.⁵⁸⁾ 다만 이것이 일정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재되었다는 전제 하에 1세대를 30년으로 잡고서 신빙 가능한 시기로부터 세대수를 계산해 올라가는 방법으로 실제 기년을 추정했다. 내물왕은 576년에 사망한 진흥왕의 5世祖이므로 $576-180+1=397$ 이라 하여 실제로는 4세기 말에 즉위했다고 보았다. 여기서 내물왕이 진흥왕의 5세조라 하고서 6세대 차이로 계산한 것은 $[30*6=180]$ 기준점이 진흥왕의 사망시기에 있어 내물왕의 즉위년을 계산하려면 그의 재위기간을 한 세대로 계산해 추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물왕은 4세기말~5세기초에, 내물의 장인인 동시에 숙부인 昧鄒는 4세기 중엽에, 미추의 아버지 구도는 3세기말~4세기전반에 재위했고, 구도의 6대조인 알지는 2세기 중엽에 살았다는 것이다. 미추와 같은 세대인 유례·흠해로부터 6·7세대 위인 탈해는 같은 방식으로 2세기 전반~중엽에, 벌휴의 6세대 위인 혁거세는 3세기에 재위했다고 주장했다.⁵⁹⁾ 역대 연표를 제시하고서는

58) 今西龍, 「신라사 통설」, 앞책(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앞 번역서, 22~24쪽).

59) 앞 번역서, 27~35쪽.

혁거세의 재위기간이 1세기말~2세기초라고도 했고, 중국사료와 비교한 뒤에는 다시 2·3세기라 결론지었다.

그런데 계보도상에서 혁거세는 伐休[184~196]의 4세대 위이다. 그러므로 혁거세가 벌휴의 6세대 위라는 설정은 일단 문제가 있다. 또한 今西龍은 儒禮[284~298]·訖解[310~356]를 그가 4세기 중엽의 인물로 추정하고 味鄒[262~284]와 같은 세대로 보았고, 제8대 阿達羅[154~184]는 제9대 伐休[184~196]의 위 세대라 했다. 계보도에서 유례는 벌휴의 3세대 아래이고[벌휴-골정-조분-유례], 유례의 조카인 흘해는 벌휴의 4세대 아래이다[벌휴-이매-내해-우로-흘해]. 아달라는 혁거세의 5세대 아래이므로[혁거세-남해-유리-일지갈문왕-일성-아달라], 이를 종합하면 유례·흘해는 계보도상 혁거세의 8~9세대 아래가 된다. 4세기 중엽의 인물이라는 유례·흘해로부터 세대당 30년씩 8~9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혁거세의 재위는 대략 1세기말~2세기 초에 해당하는 셈이다. 혁거세가 ‘1세기말~2세기초’에 재위했다는 今西龍의 언급은 이러한 계산의 결과로 보인다.

반면 今西龍은 내물왕이 4세기 후반에 재위했다고도 하여 위 설명과 괴리되고 있다. 또한 그의 계산법과 충돌이 불가피한 실성[402~417]·눌지대[417~458]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기년조정론이 미완성의 모양새를 띠게 되었다. 더욱이 개인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세대별 사망 간격을 30년으로 고정하고서 이를 전제로 다른 요인들을 무시하고 기년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다.

이상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今西龍은 1세대 30년을 기준으로 한 계산과[‘제1방법’] 역대연표를 통한 추정[‘제2방법’], 그리고 중국·일본 사료와의 비교[‘제3방법’]를 거치면서 각각의 결론을 조금씩 달리 내렸으나, 이들 결론 간의 비중을 언급하지 않았다. 今西龍은 최종 결론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년 계산을 시도하면서 신라의 건국 기년을 중국 사료에서 新羅가 등장하는 4세기 직전의 2·3세기로 폭넓게 설정한 셈이다.

今西龍은 신라 초기 왕대의 실제 기년에 대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조정을 시도했다. 이는 신라 초기기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으나, 기준의 설정이 자의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소지왕 이전 기사에 대한 今西龍의 불신을 일차적 조건으로 설정한 前間恭作은 그 이전의 世次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그 결과 고구려·중국 사료를 신라 기년의 기준으로 삼아 前秦에 사신을 파견하고 광개토왕비에서 신라가 나타나는 내물왕대에 新羅라는 一國과 함께 왕통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제16대 흘해대까지의 世次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박씨왕계는 박씨를 칭한 神德王[912~917]의 부자 3대에 박씨 왕통을 세우려는 기획이 추진되면서 현존하는 世次가 작성되었다고 한다.⁶⁰⁾ 이 때 기존 전설을 이용해 15王을 만들고 그 위에 박혁거세를 위치

시킨 것이 흘해대까지의 16왕이라는 것이다.⁶¹⁾ 이때 박씨·석씨 1왕씩을 제외하고 박씨·석씨 왕이 각각 7명씩 안배되었다고 한다.⁶²⁾

이 경우 초기 왕대에 석씨가 포함된 동기까지 설명이 이루어져야 온당했으나, 이러한 설명은 생략되었다. 또한 중국 사료의 기재를 기준으로 내물왕대 이전의 세차를 부정하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물왕대 이전 왕대의 신라말 조작설은 池內宏으로 계승되어 좀 더 구체화되었다. 거칠부·이사부·사다함·김후직 등이 내물왕을 기준으로 ‘몇 代孫’으로 기록된 반면 내물왕 이전의 인물을 기준으로 한 ‘몇 代孫’이라 한 인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 시기의 왕대가 후세에 조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⁶³⁾ 박·석·김 3성의 世系가 신라 하대 말에 만들어진 것은 당시 신라에서 소수 귀족에게 성씨가 보급된 상황과 관계가 깊다는 것이다.⁶⁴⁾ 이 글에서 불신의 근거는 모두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논증에 의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편 太田亮은 기사별 干支와 내용을 기준으로 접근했다. 파사 27년[106]의 가야 정벌 기사와 흘해 37년[346] 왜의 금성 침공 기사가 모두 丙午年의 사건을 설명했고 간지가 서로 일치하므로 같은 사건을 정리했다고 보았다. 또한 왜로부터 경주에 접근하려면 가야를 거쳐야 하므로, 흘해 27년 기사는 파사 27년 기사를 바탕으로 조작되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두 기사의 시기차인 240년 즉 干支 4運 만큼 신라본기 초기기사의 기년이 인상되었다는 것이다.⁶⁵⁾

구체적으로 보면 내해가 즉위한 병자년[196]은 그가 지마의 사망시기로 추정된 동 5년 의 20년 뒤 병자년[136]과 간지가 같으므로, 그 사이의 20년에 재위한 某王 뒤에 바로 내해가 즉위했다고 보았다. 신라본기 초기기사에서 인상된 4운 중 1운은 이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3운에 대해서는 고구려·백제·왜와의 비교로 보아 자비왕부터는 재위가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 접근했다. 내해의 사망 직전 해인 同 34년 기유년[229]이 간지로는 자비의 즉위년[458 무술년]과 48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를 내해 다음의 助賁 즉위년[230]과 자비 즉위년[458]까지의 차이인 228년에서 빼면 180년 차이가 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사이에 3운이 연장되었다는 것이다.⁶⁶⁾ 또한 시조 혁거세가 허구로 기재되었고 제2대 南解가 실제로는 제10대 奈解이며 제3대 儒理는 제15대 基臨=제14대 儒禮라 하여 최초의 신라왕은 脫解라 하였다. 그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

60) 前間恭作, 앞글, 66~69쪽.

61) 앞글, 78~79쪽.

62) 앞글, 81쪽.

63) 池內宏, 1941 앞글, 10쪽.

64) 앞글, 12쪽.

65) 太田亮, 앞, 426~429쪽.

66) 앞책, 446~448.

료상 탈해의 재위기간[57~80]에서 4운을 내려 계산하면 신라의 건국기년은 A.D.297년이 되는 셈이다.

그의 주장은 왜·가야 관련 기사가 실린 시기의 왕은 존재가 확실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왜의 신라 공격이 가야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같은 干支의 기사들은 동일한 기사를 바탕으로 나머지 한쪽을 조작했다고 본 경우가 많다. 사건 전개와 추이가 같은 기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해서 인정된 왕은 탈해·파사·지마[5년까지]·아달라·내해·기림 정도이다. 기년을 인상시킨 목적은 신라가 삼국 중에서 제일 앞섰음을 나타내는 데 있었다고 한다.⁶⁷⁾ 그러나 그가 제시한 전제조건들은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들로 채워져 있어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신라가 4세기 중엽에 건국했다고 본 末松保和는 박·석·김 3시조 전설은 신라가 병합한 소국 것들을 加上해 만들었다고 했다. 내물 이전의 16王名 중 대다수가 奈勿·實聖·訥祗·慈悲·炤知·智蓋 6왕명을 분화·중복·반영시켜 조작했다는 것이다.⁶⁸⁾ 또한 기존 견해와 달리 김왕조의 古傳이 성립된 시기를 지증왕대~법흥왕대로 보고 이것이 진흥왕대 사료 편찬시에 정리되었다고 했다.⁶⁹⁾ 이는 법흥왕대 이전의 정복기사들이 전설적 기사에 불과해 사료적 가치가 없다는 그의 지적과는⁷⁰⁾ 괴리되고 있다. 그는 아마도 지증·법흥대에 신라가 크게 성장해 국가적으로 시조 계보를 조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末松保和는 기년을 새롭게 조정했다기보다 기존의 조정론을 바탕으로 초기 왕계의 조작 유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셈이다. 그러나 내물왕대 이전의 기년을 믿을 수 없다는 논거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고 기존의 연구를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상의 연구는 1890년대에 지적된 기년상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나타나는 모순을 지적하는 데에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전제조건과 이를 논증해 나가는 근거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은 점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67) 太田亮, 앞책, 426~430쪽.

68) 末松保和, 앞책, 58~79쪽.

69) 末松保和, 앞책, 54~55쪽.

70) 末松保和, 앞책, 146쪽.

4. 일제강점기 사료비판론의 공과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은 1890년대의 연구를 계승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대한 비판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제 그들이 남긴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려 한다.

그들은 문헌고증이라는 방법으로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 나갔다. 이는 19세기 말부터 일본에서 지속되어 온 근대사학적 연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의 자료를 비교하여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다. 그들이 제기한 왕위계보 수정론과 기년조정론, 그리고 대외관계기사에 대한 비판론은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해당 기사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는 데 분명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 한국인 연구자들의 사료비판 방법론도 대부분 그들의 성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고증은 입론의 기준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료 고증은 중국 사료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삼았고, 여기에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등장하더라도 세밀한 검토 없이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사료에 등장하는 것도 4세기 후반의 사신과견만 주목할 뿐, 280년대 진한왕의 사신 파견에 대해서는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라 하더라도 엄밀한 고증 없이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근대사학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인 객관적 합리성을 담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신라본기 비판론은 근대적 사료비판론의 외형을 갖췄으나, 실제로는 그 구성요건이 현저히 결여된 채 진행된 것이다.

이들의 연구 내용은 기존보다 풍부해졌으나, 그 결론은 오히려 단순하게 수렴되는 경향이 있었다. 1890년대의 연구자들은 중국 사료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는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태도는 있었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반면 일제가 한국 병탄을 본격화한 뒤부터 중국사료를 기준으로 신라본기 초기 기사를 재단하는 경향이 현저히 확대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연구자들은 1890년대의 연구 중에서도 那珂通世처럼 신라본기 초기 기사에 대해 비판의 강도가 컸던 연구자의 견해를 반복하면서 세부적인 근거를 추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이 연구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의 강화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계 사료를 기준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은 최근까지의 연구에서도 주된 흐름을 이어 왔다. 물론 신라본기 초기기사가 적지 않은 문제를 담고

있다는 점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382년⁷¹⁾ 신라가 前秦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太平御覽』의 기록은 신라가 성장했다는 충분조건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모두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삼국지』 동이전의 修撰態度가 안이하여 杜撰에 속한다는 평가도 있다.⁷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지』의 논리적 모순이나 모호함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서⁷³⁾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비판을 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모든 기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韓傳에서도 소국들의 분립적 측면과 위계적 측면을 이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삼국지』와 『삼국사기』 양쪽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당시의 역사상을 복원하는 데 일차적 조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진한 지역의 상황에 대한 중국 사료의 기록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3세기 중후반경에 진한 소국이 분립되었다고 보고 太康 원년[280]~7년[286] 西晉에 대한 진한왕의 사신 파견을 진한 지역에서 우세한 세력이 등장하는 기점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魏略』에서 1세기 초에 낙랑과 교섭한 ‘辰韓’으로부터 『삼국지』 한전에 기재된 3세기 중후반의 ‘辰韓’, 그리고 『진서』에 보이는 ‘辰韓’ 사이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변화를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연계해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라본기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⁷⁴⁾ 특정한 왕대나 재위기간을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은 또 다른 변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⁷⁵⁾ 안정적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별 기사의 신빙 여부나 실제 반영시기를 하나하나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이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으로 생각된다. 이보다는 신라본기 초기기사가 서술된 맥락을 파악해 나가는 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라 상고사를 복원하는 데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71) 『太平御覽』 신라조에서는 建元 18년(382)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내물 26년(381)으로, 『자치통감』 권104에서는 太元 1년(377)으로, 『通典』 신라조에서는 苻堅 때(357~385)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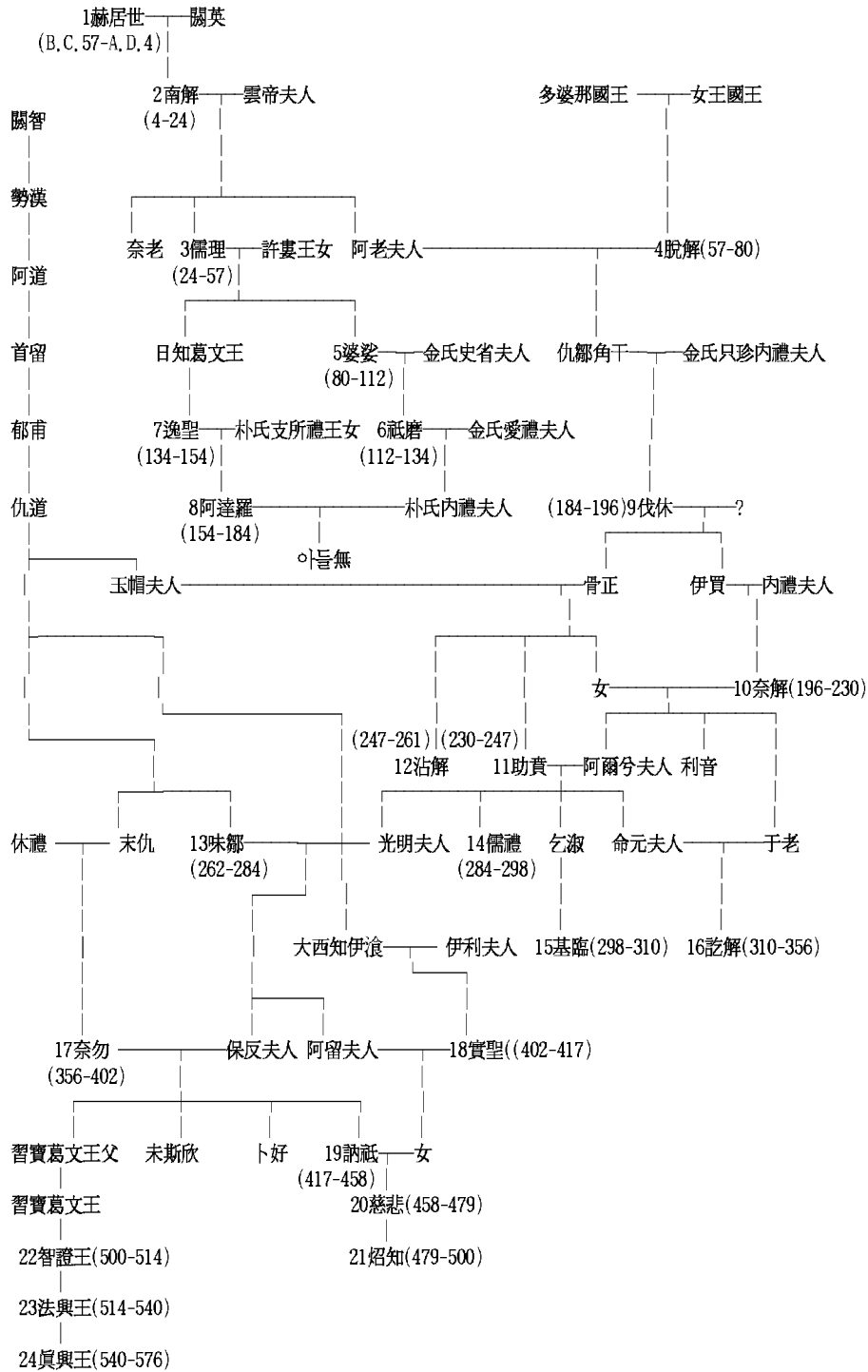
72)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일조각, 1993, 142쪽.

73) 李康來, 「“삼국사기”의 이른바 ‘초기기사’ 수용방식의 문제」, 『韓國古代史探究』, 2009, 107~110쪽.

74)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자체의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을 주목할 수 있다(이강래, 앞책, 44쪽).

75) 李熙眞, 「“三國史記” 초기기사에 대한 최근 紀年調整案의 문제점」, 『歷史學報』162, 1999, 233쪽.

신라 왕실계보도



이부오, 「일제강점기 신라사 사료비판론의 전개」에 대한 토론문

文昌魯

(국민대 국사과학 교수)

I

발표자는 그동안 ‘신라초기 기년문제에 대한 재고찰’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신라상고기의 지방통치체제’와 관련된 문제에 꾸준히 접근하여 이 방면에 괄목할 성과를 이룬 연구자입니다. 실제로 서기 3~5세기 신라의 지방통치체제에 주목하여 ‘신라 군·성제의 기원과 소국집단’(서경, 2003)에 천착하였으며, 이와 함께 근대사학적 방법론으로 신라사를 연구했던 일본인 학자, 특히 今西龍의 신라사 연구성과에 대한 번역을 집중해서 책으로 엮어 ‘이마니시 류의 신라사연구’(서경문화사, 2008)를 출간하여 주목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삼국사기』신라본기를 본격적으로 분석했던 津田左右吉의 논고(「‘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대하여」, 「羅·濟 경계고」(이상 『신라사학보』 15, 16)를 번역하면서 그 내용을 일별한 바 있어, 이번 발표 주제의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는 먼저 1890년대에 일본이 근대적 사료비판론을 도입하여 신라본기 초기기사에 대한 평가와 그 근거를 살펴본 뒤에, 이를 계승한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이 전개한 사료비판론과 그 변화에 대하여 ‘건국시기론’, ‘대외관계론’, ‘기년조정론’으로 나누어한 본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료비판론의 공과와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딱히 토론꺼리를 잡기가 힘들어 토론문 작성에 애를 먹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로 발표자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부분이 많지 않았고, 연구사 검토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론자가 일인학자들의 원 논문을 극히 제한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어서 토

론꺼리를 찾기가 어려웠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I

발표문의 전체 논지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대체로 공감하기 때문에,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단편적인 소감과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려고 합니다.

(1) 본 발표는 그동안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최재석, 『한국고대사회사방법론』, 일지사, 1981; 『일본고대사연구비판』, 일지사, 1990 외 그의 저술 다수 : 이강래, 『삼국사기형성론』, 신서원, 2007 등), 대부분 일제 강점기 이후의 연구에 대해서만 집중한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반해 본 발표는 19세기 말, 곧 구한말 근대적 사료비판론을 먼저 검토한 후(菅政友, 吉田東伍, 林泰輔, 坪井九馬三, 那珂通世 등의 논고), 그것이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핀 데에 그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평소 성실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일반적으로 연구사검토는 인물별, 연도별, 주제별로 하는 경우가 비교적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역시 ‘사료비판론’의 변화와 그 논거를 밝히기 위해서 ‘건국시기론’, ‘대외관계론’, ‘기년조정론’ 등의 3가지 소목차로 주제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건국시기론’과 ‘기년조정론’, 또는 위 3가지 항목은 서로 긴밀한 연계를 갖는 측면이 있으며, 논지 전개에 있어서 각 소목차별로 병렬적인 서술을 하다 보니, 논거나 주장 등의 서술내용에 있어서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 학자들의 사료비판론에 대한 큰 흐름 내지는 전체의 맥락을 살피기에는 다소 산만하다거나 혼동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세로줄은 연구자 또는 연구년도 별로, 그리고 가로줄에는 쟁점이나 논거(출전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누구의 학설을 지지하고, 계승하였는지 등의 연구사적 흐름과 그 계통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발표자가 1890년대 이래의 연구성과를 일일이 찾아서 정리한 수고로움도 좀 더 의미있게 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발표자는 대체로 일인 학자들이 『삼국사기』 초기기사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지녔으며, 중요한 역사적 사실 판단에는 반드시 중국 기록이나 일본 기록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

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분석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이 1890년대의 연구가 일본사료를 중시한 데 비해서, 일제 강점기에는 중국 사료가 보다 강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발표문 7쪽에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런 입장이었을까?”라는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그 내용이 소략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예컨대 일제의 한반도나 중국대륙 침략정책 등과 연관된 시대적 상황, 민족적 편견 등등)에 대한 분석을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말과 일제 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관점이 각각 일본과 중국사료를 강조한 사실은 그 시대적 소산임을 생각할 때,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며, 왜 관점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설명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발표문 5쪽에서도 일부 인용했던 기왕의 연구(旗田巍,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1983외 관련 연구)를 좀 더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4)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이 ‘선언적’ 수준인 경우가 있어서 인지, 맺음말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 사료비판론의 공과」의 일부 서술 중에서도 간혹 선언적인 언급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13쪽에 “반면 일제가 한국 병탄을 본격화한 뒤부터 중국사료를 기준으로 신라본기 초기기사를 재단하는 경향이 현저히 확대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까닭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인 학자들이 삼국 가운데 신라사의 기년과 세계에 치중했던 까닭(津田左右吉은 고구려, 백제본기도 비판)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보태는 것이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사실 토론자는 발표주제와 관련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론문의 내용이 피상적이고 두서가 없습니다. 또한 발표자의 의도를 잘못 헤아린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2009/9/14).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신라 화랑 연구

조 범 환

(서강대학교 박물관 연구교수)

- 목 차 -

1. 문제제기
2. 今村鞆의 잘못된 화랑 연구 시작
3. 池内宏의 화랑 연구를 통한 지적 식민정책
4. 鮎貝房之進의 화랑 왜곡과 식민정책의 침범
5. 三品彰英의 화랑 연구와 조선독립불능론
6. 맺음말

1. 문제제기

일제 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은 왜 화랑/화랑도에 관심을 두었을까? 그들이 화랑/화랑도에 관심을 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것이 본고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연구자들의 화랑/화랑도에 대한 연구는 몇몇 논문으로 그치지 않고 책으로까지 출간되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43년 출판된 三品彰英의 『新羅花郎の研究』는 현재 한국사학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¹⁾ 일제 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화랑도에 대한 연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1) 현행 고교 국사교과서를 보면 “화랑도는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는 三品彰英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학자들이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화랑/화랑도 연구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대체로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화랑에 대한 연구를 전부 살펴본 것이었고, 둘째는 특정한 연구나 연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洪淳昶의 연구를 먼저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화랑에 대한 연구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연구태도가 아전인수적인 편견에 충만되어 있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²⁾ 다음으로 崔在錫은 신라의 화랑과 화랑집단에 대한 연구 검토에서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가 잘못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그들의 역사 왜곡에 주목하였다.³⁾ 최근에도 화랑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는 논문이 발표되었다.⁴⁾ 이 논문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화랑에 대한 연구 전부를 검토하고 있어 일제시기 화랑연구에 대해서는 그다지 천착하지는 않았다. 다만 간략하게 그들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종현은 화랑에 대한 담론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였고 식민지 시기 화랑도 담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⁵⁾ 이 밖에도 일제 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화랑/화랑도 논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한 것들이 있다.⁶⁾

후자와 관련해서 全京秀는 삼품창영과 李基東의 연구를 비교하면서 두 사람의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⁷⁾ 특히 이 논문에서는 삼품창영이 화랑의 전신으로서 삼한사회에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큰 연령집단으로서의 청년조직을 사료로 입증하기 위하여 사료의 맥락까지 왜곡시킨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⁸⁾ 그리고 池教憲의 연구도 주목되는데, 일본인 연구자인 鮎貝房之進과 삼품창영의 논리를 비판하였다.⁹⁾ 그러면서 그는 두 사람의 연구는 신라화랑의 참된 모습을 왜곡하거나 신라화랑의 값어치를 훼손함으로써 한국의 민족문화를 비하시키고 한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을 파괴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파악하였다.

2) 洪淳昶, 「新羅花郎道の 研究史的 考察」, 『新羅伽倻文化』 2, 1970.

3) 崔在錫, 「新羅의 花郎과 花郎集團」, 『民族文化論叢』 8, 1987 ;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그리고 같은 논문을 정리하여 「花郎研究의 成果-초기부터 1986까지를 중심으로-」, 『화랑문화의 신연구』, 문덕사, 1996에 발표하였다.

4) 崔光植, 「화랑에 대한 연구사 검토」, 『화랑문화의 신연구』, 문덕사, 1996.

5) 정종현, 「국민국가와 ‘화랑도’-애국계몽기~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 담론과 활용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5, 2006 ; 『신라의 발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재수록.

6) 申澄植, 『新羅史』,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176~177쪽 참조.

7) 全京秀, 「新羅社會의 年齡體系와 花郎制度」, 『韓國文化人類學』 17, 1985.

8) 全京秀, 위의 논문, 1985, 90쪽.

9) 池教憲, 「新羅花郎 研究에 나타난 日本學者 鮎貝房之進과 三品彰英의 論理」, 『정신문화연구』 38, 1990.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두 가지 형태의 연구 경향을 보면,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가 잘못 되었다거나 혹은 자료를 잘못 이용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실 지적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또는 특정한 연구자의 연구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목적 때문에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일제 강점기 일본인 연구자의 화랑/화랑도 연구를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그들이 화랑에 대하여 연구를 한 궁극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가 그들의 연구에도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할 것이다.

2. 今村 鞆의 잘못된 화랑 연구 시작

일제강점기에 화랑에 대하여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이마무라 도모에(今村 鞆, 1870~1943)이다. 그는 「新羅の花郎を論ず」라는 제목의 논문을 192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朝鮮』에 발표하였다.¹⁰⁾ 그가 이 논문을 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잠시 되짚어 보기로 하자.

이마무라는 22세에 오오사카부(大阪府) 순사로 경찰업무를 개시한 이후, 일본 내에서 십 수년간 경찰로 활동하다, 타이완을 거쳐, 1908년 39세의 나이에 선배였던 아츠이 시게루(松井 茂, 1866~1945) 경무국장의 추천으로 조선에 왔다.¹¹⁾ 이후 그는 1925년까지 충청북도 경찰부장(1908), 강원도 경찰부장(1909), 경무총감부 남부경찰서장(1910), 평양경찰서장(1914), 제주도사(1915) 등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간부로서의 직무수행 외에 조선의 풍속 관습을 조사하고, 잡지에 글을 기고하였다. 1925년 퇴직한 이후 그는 朝鮮史編修會 등 여러 곳에 촉탁으로 지내면서 조선의 社會風俗史의 연구가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43년 경성에서 죽을 때까지 조선의 민속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그런데 그가 화랑에 대한 글을 발표한 해가 1928년이므로 이미 직업 경찰관을 그만 둔 상태였다. 따라서 어찌 보면 재야민속학자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글을 집필한 것이다.¹³⁾

10)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기관지인 『조선』에 대해서는 이복규·김기서 편역, 『조선총독부 기관지 일어판』 『조선』지의 민속·국문학자료』, 2004, 민속원, 5쪽 참조

11) 김혜숙, 「이마무라 도모(금촌병)의 朝鮮風俗 연구와 在朝鮮日本人」,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8, 2006, 76쪽.

12) 김혜숙, 위의 논문, 2006, 76쪽.

A. 원래 나 자신이 학문 즉 역사 민속의 방면에 발을 들여놓게 된 동기는 1901년에 충청북도의 경찰부장이 되어 내지로부터 부임해 온 직후, 조선경찰의 창설시대에 즈음하여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은 조선의 풍속습관을 조사하여 그것을 숙지하는 것이라고 깨닫고, 그 이후 조금씩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대단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어서 실지조사와 함께 조선의 고문헌을 읽어 볼 필요를 느껴, 조금씩 읽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의 독특한 속어가 있고 나아가 사회사정이 다르므로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곤란이 뒤따랐다. 하지만 20여년에 걸친 연구가 열매를 맺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중략) 여하튼 내가 과학적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1925년에 촉탁에서 퇴직한 이래 민속학 서적과 잡지를 읽은 덕택이고, 또 하나는 1930년 조선사편집회의의 촉탁이 되어 일 년간 편집위원들과 접촉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이마무라 도모에, 「民俗學과 小生」, 『朝鮮民俗』 第三號, 京城·朝鮮民俗學會, 1940, 1쪽)

위의 기록을 보면, 이마무라가 조선의 민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일제의 통치의 일환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더욱더 조선의 민속을 알고자 하였을 것임은 이를 나위가 없다. 그의 조선의 풍속에 대한 관심은 결국 『朝鮮風俗集』의 발간으로 나타났다. 이 책은 1914년 초판이 나온 이후 바로 1915년에 재판, 1919년 정정 3판이 나올 만큼 1910년대 꾸준히 읽혔다고 한다.¹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의 조선의 풍속에 대한 관심이 결국 화랑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의 저작집 목록¹⁵⁾을 보면 주로 조선의 민속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신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쓴 글은 몇 편이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 신라 화랑에 대한 글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이다. 그는 「신라의 화랑을 논하다」라는 글의 첫머리에서, “신라·고려의 역사는 많은 것이 정치사이기 때문에 민속에 관한 기사가 너무 적고 조선 고대의 민속과 사회에 관한 사항은 많이 보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아는 것은 어렵지만, 신라사의 기사 중에 화랑에 관한 것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고 또 고찰을 요하는 항목이라 생각하여 이에 나의 얇은 견해를 서술해 본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신라의 화랑을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구절이라 생각된다.

이마무라는 조선의 민속을 살피는 과정에서 고대 사회의 풍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삼국사기』나 『고려사』를 읽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화랑을 알게

13) 이마무라 행적을 더듬어 볼 때 지방 경찰이나 지방 행정가 시기와 퇴직 후 재야민속학자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김혜숙, 앞의 논문, 2006, 77쪽의 주 7) 참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화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재야민속학자 시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14) 김혜숙, 위의 논문, 2006, 76쪽.

15) 주영하 외, 『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민속』,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11~319쪽.

되었다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화랑 그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에 의문이 간다. 그는 논문에서 “그들이(화랑) 신에게 봉사하는 무당이었다는 것은 후대 남자 무당을 화랑이라고 부름으로써 예전의 흔적을 보이는 것에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설명은 신라 화랑을 화랑 그 자체로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무당과 연결시켜 화랑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이것은 이마무라가 화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신라 화랑을 화랑 자체로서 파악하기보다는 당시 그가 민속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당이 화랑으로 불리는 것을 알고 그것의 연원을 살피는 과정에서 화랑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라 화랑에 대하여 파악하고 싶은 직접적인 목적보다는 무당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목적에서 신라의 화랑에 눈을 돌렸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삼국사기』 화랑 관련 기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도 근간이 서지 않고 또 이치에도 합당하지 않아 1500년 전의 사실이라고는 하지만.....”라고 하여 화랑에 대한 기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위 기사는 金富軾이 『삼국사기』를 썼을 때, 그 자료였던 구비, 전설, 오래된 기록 등에 있던 진짜 재료를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삼국사기』에 실린 화랑 관련 기록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화랑과 조선시대의 무당을 서로 연결시켜 설명함으로써 화랑의 존재 자체를 몰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이상에서 보면 이마무라는 신라 화랑 그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조선의 무당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화랑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당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옛 전적을 살피는 과정에서 화랑을 눈여겨 본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그는 조선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 민속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화랑에 주목하였고, 그러한 그의 연구는 화랑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⁸⁾

-
- 16) 朴賢洙는 “금촌명의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추원의 풍속 조사는 연구 조사 당시의 풍속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 실패하고 역사적인 연원을 찾는 데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였는데(박현수, 『日帝의 朝鮮調査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78쪽), 이는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이마무라는 조선의 풍속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무당에 관심을 두었고 무당이 화랑으로 불리고 있었던 것을 알고 신라의 화랑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 17) 이마무라가 총독부의 기관지인 『朝鮮』에 글을 발표하였다고 하는 것은 조선의 식민지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황민호, 「일제하 조선총독부 기관지의 발행과 법률 관련 자료의 경향」, 『法史學研究』 31, 2005, 302쪽).
- 18) 홍순창은 이 논문이 “일인 학자의 화랑도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한 점에 있어서 주목된다”고 하였다(홍순창, 앞의 논문, 1970, 68쪽).

3. 池內宏의 화랑 연구를 통한 지적 식민정책

이마무라의 화랑에 대한 글이 나온 다음 해인 1929년에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1878~1952)가 「신라인의 무사적 정신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史學雜誌』 40-8호에 실린 것으로 제목에는 화랑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화랑도에 대한 글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이케우치는 일제시대 한국사를 연구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조선총독부 의뢰로 만철조사부역사조사부에서 실증주의적 연구에 주력하여 그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화랑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관심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이케우치는 이 논문에서 신라인의 武士的 정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제목자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신라의 화랑들이 용감하게 죽은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신라 화랑들 가운데서 전장에서 용감하게 죽은 이들을 골라 열거하면서 무사적 정신의 발로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그는 왜 신라인의 무사적 정신을 강조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그는 논문에서 신라인의 정신생활상의 특색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특색은 조선인 사이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그가 조선 사람들의 정신태도가 화랑의 정신을 상실한 이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화랑 정신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케우치의 이러한 생각은 민족주의자들이 상무정신을 강조한 것에 대하여 반박의 논리를 펴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申采浩는 상무주의를 추구하는 글을 많이 발표하였고 상무적 국가주의의 확립을 부르짖었다.¹⁹⁾ 민족주의자들의 이러한 상무주의 정신의 확립에 대하여 이케우치는 지금에 와서 그러한 화랑 정신을 일깨우는 것은 어렵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던 것이다.

이후 그는 1936년 『東洋學報』 24권 1호에 「신라의 화랑에 관해서」라는 글을 또다시 발표하였다. 이 글은 앞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미시나나 아유카이가 그의 견해를 반박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그렇지만 그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것도 이 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앞의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몇 가지 더 지적하였는데, 주목되는 것은 원화제도

19) 윤중문, 「한말 신체호의 현실인식과 대응론」, 독립기념관 발표문, 9~10쪽 참조

20) 李弘植, 「池內宏著 滿鮮史研究(上世 第二册)-池內博士의 業績의 回顧를 兼하여」 『亞細亞研究』3, 1960, 203쪽을 보면, “...실증적 문헌을 존중하는 역사가의 입장에서의 화랑제도에 관한 입론이며 민족학적 추측을 많이 가하여 화랑을 밝히고자 한 삼품창영씨론에 對한 하나의 입장을 보였다”고 하였다.

라든가 설원랑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다. 즉 김부식의 두찬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신라 화랑의 탄생 시기를 뒤로 낮추어 보려고 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화랑은 발생 당시 그리고 신라의 전성기에는 신라 무사도를 대표하는 신라 무사의 花形이었다. 이들을 추종하고 이들을 따랐던 일군의 무리들은 평상시에는 수양단이었고 전시에는 전사단이었다”라고 하였다. 이케우치가 신라 화랑에 대하여 얻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화랑의 존재 자체를 전사와 수양이라는 측면에서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은 결국 신라 화랑을 통해서는 민족주의자들이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상적인 측면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도리어 그는 일본의 무사도 정신을 통해 조선 지식인들의 정신을 바꾸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경성제국대학교의 교수였으며 그가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컸다. 이렇게 볼 때 이케우치의 화랑 연구도 식민지 정책을 위한 도구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4. 鮎貝房之進의 화랑 왜곡과 식민정책의 침범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1864~1946)은 일본 센다이 지방 유력 가문의 출신으로 1895년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직접 간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 해 12월에 일본으로 추방되었지만 일제의 조선병탄으로 말미암아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朝鮮總督府에서 조선의 역사와 민속을 연구하였다.²¹⁾ 또한 그는 1902년 10월에 서울에서 한국연구회라는 월례연구담화회를 설치하는데 있어 깊이 관여하였으며, 조선문화에 대한 문헌적 연구에 치중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일인들의 본격적인 연구 활동의 초기 담당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²²⁾

그는 조선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신라 화랑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花郎攷』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1932년에 발간되었는데 그의 저서 『雜攷』속에 白丁攷·奴婢攷와 함께 출판되었다. 「화랑고」는 앞서 일본인들이 발표한 화랑 관련 논문들 보다는 분량이나 내용이 더 많다. 화랑의 전기, 창시, 명칭, 조직, 존속기간, 화랑과 낭도와의 관계, 화랑 창설의 목적, 화랑 기질의 원인, 화랑도의 쇠퇴 원인, 화랑도의 변천 등을 10개의 장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아유카이의 연구는 앞선 일본인 화랑 연구자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의

21) 김태식, 『풍납토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김영사, 2001, 424쪽.

22) 朴賢洙, 「日帝의 식민지 調査機構와 調査者」, 『정신문화연구』 72, 1998, 14쪽.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화랑도는 儒·佛·道와 접하게 되면서 쇠퇴하였고 둘째, 화랑의 기백은 대화민족의 피를 받아 발로된 것이고 셋째, 신라인들의 주요 구성원은 대화민족이며, 박제상이나 물계자 같은 사람들도 대화민족의 자손이라고 한 점, 넷째, 화랑과 낭도와의 관계는 동성에 관계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아유카이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이미 당대의 연구자인 삼품창영의 비판이 있었다. 즉 아유카이가 여성 화랑을 창기로 풀이한 것이나 화랑과 낭도와의 관계를 同性愛로 본 것에 대해서 학구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통속적 소견이라 하였다.²³⁾ 그리고 현재 지교헌이 아유카이의 연구를 자세하게 비판하여 밝히고 있다.²⁴⁾ 그는 아유카이가 화랑을 연구한 목적이 신라 화랑의 참된 모습을 왜곡하거나 신라 화랑의 값어치를 훼손함으로써 한국의 민족문화를 비하시키고 한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을 파괴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았다.²⁵⁾ 이러한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교헌이 지적하지 않았던 측면을 좀 더 살펴봄으로써 아유카이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기로 하자.

그는 논문에서 화랑의 전기와 관련하여 호종단을 등장시켜 설명하고 있다. 호종단은 송나라 福州 사람으로 상선을 타고 고려에 들어와 예종의 총애를 받으며 고관을 역임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고려의 전도를 순력하며 이르는 곳마다 碑碣들의 글자를 도려 내거나 부숴버리고 유명한 종들을 못쓰게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화랑과 관련된 기록도 호종단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서 아유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물 때문에 화랑과 관련된 기록들이 제대로 남아 있지 못한 것을 부각시켰다. 더 나아가 그가 호종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부각시킨 것은 조선 사람들의 문화의식의 무지를 비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아유카이가 화랑에 대하여 이러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인 가운데서 화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劉昌宣이 주목된다.²⁶⁾ 그는 「신라화랑제도의 연구」라는 글²⁷⁾에서 아유카이의 글을 비판하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수긍하였다. 그가 아유카이의 글을 비판한 것은 화랑성애단체설에 대한 것뿐이고 화랑제가 대화민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 또한 이 논문에서 그는 아유카이

23) 삼품창영, 『신라화랑의 연구』, 1943, 119쪽. 비록 그러한 비판을 하기는 하였지만 미지나 쇼에의 글 전체를 보면 아유카이의 견해를 많이 추종하는 부분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24) 池教憲, 앞의 논문, 1990 참조.

25) 池教憲, 위의 논문, 1990, 104쪽.

26) 劉昌宣(1905~?)은 일본 릿교대학(立教) 출신으로 전공이 역사학이나 국어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27) 이 논문은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에 『新東亞』(5-10~12, 6-1~3에 연재되었다.

의 논지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를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아유카이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화랑에 대한 왜곡상을 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아유카이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화랑에 대한 연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지식인들의 화랑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라 믿어지는 것이다.

일제는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제3대 조선총독으로 사이토 마코토가 부임해 와서 문화통치의 기치를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교활한 의도가 있었다. 그때 비밀리에 시달된 '교육시책'을 보면 조선 사람들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²⁸⁾ 그런 과정에 아유카이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의도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화랑의 연구를 통해 충실하게 그러한 것을 드러내었다. 당시 민족주의 인물들이 화랑을 통한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아유카이도 화랑의 연구를 통해 민족주의자들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아유카이는 누구보다도 일제의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첩병의 노릇을 한 인물이었다고 파악된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활동하였는데 촉탁은 대체로 인맥관계에 의하여 소개와 추천에 의하여 임명되었다고 한다.²⁹⁾ 그러므로 촉탁의 경우 本官과는 달리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아유카이는 그러한 지위를 바탕으로 일제의 식민정책 수행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도를 화랑에 대한 연구를 통해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三品彰英의 화랑 연구와 조선독립불능론

일제 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 가운데서 화랑에 대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낸 이는 미시나 쇼에(三品彰英, 1902~1971)라고 할 것이다.³⁰⁾ 그의 화랑에 대한 연구를 일제 강점기

28) 첫째,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사, 전통, 문화를 알지 못하도록 하여 민족의 얼과 문자를 잊어버리게 한다. 둘째, 조선사람 선인(先人)들의 무위(無爲), 무능(無能), 악행(惡行)을 많이 들추어내서 이를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 그들 스스로가 선인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기풍화 한다. 셋째, 조선의 청년들이 조선의 인물과 사적(史蹟)에 관한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 실망과 허무감에 빠질 것이므로 그 때에 일본의 인물, 사적, 문화를 가르치면 쉽게 동화하여 반(半)일본인화 되게 한다.

29) 崔錫榮,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1997, 149쪽.

30) 미시나 아키히데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박미경, 「미시나 쇼에의 한국신화 연구 고찰」, 『일본학 연구』 25, 2008, 80~83쪽 참조.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미시나 아키히데를 미시나 쇼에로 읽고 표기하

의 앞선 연구자들과 비교해 보면 단연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924년 교토(京都)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에 民俗談話會 발족을 주도했으며, 1928년 동 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 논문은 「歸化氏族の研究」이었다.³¹⁾ 그리고 대학원 재학시절 신라 화랑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당시 논문의 제목은 「신라의 奇俗 화랑제도에 관하여-신라 사회사의 연구-」였다. 그리고 그 논문을 당시 발간되던 『역사와 지리』라는 학술잡지 제25권 1호부터 제 27 권 5호에 걸쳐 연재하였다.

이후 그는 「신라화랑의 원류와 그 발전」이라는 글을 1934년 『史學雜誌』 45-10·11·12에 연재하였다. 이 논문은 앞서 발표하였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발표하였던 논문과 비교해 보면 매우 보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1943년에 『신라화랑의 연구』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였다. 이에 그의 논문의 목차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고 그것을 통해 그의 화랑 연구의 확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다음의 표는 그러한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三品彰英의 화랑연구 목차의 변화」

『역사와 지리』 신라의 奇俗 화랑제도에 대하여 -신라사회의사의 연구-	『사학잡지』 신라화랑의 원류와 그 발전	『신라화랑의 연구』
(25권 1호, 1930) I. 화랑의 제정 1. 진흥왕의 화랑제정 2. 화랑제도의 紀年 3. 화랑연구의 자료 II. 화랑의 원시종교적 성질 1. 화랑의 종교적 성질 2. 화랑의 복식 3. 화랑과 가무 4. 화랑원류고 (25권 2호, 1930) III. 화랑의 원시종교적 성질 1. 화랑의 遠遊 2. 화랑과 산 3. 화랑명칭고 (25권 4호, 1930) IV. 창년수양집회로서의 화랑제도 1. 수양집회로서의 화랑제도 (25권 6호, 1930) 2. 화랑유품으로서의 고려의 선량	제1장 화랑원류고(45-10, 1934) 제1절 삼한시대의 성년식과 남자집회사 제1항 자료문헌 제2항 삼한의 성년식과 타민족의 성년식 제2절 조선주변민족간의 성년식과 약자집회사 제3항 남해방면과의 분포관계 제4항 대륙방면과의 분포관계 제2장 화랑제도의 본질과 그 기능 제1절 화랑과 신령 제5항 화랑에 관한 대표적 사료 제6항 화랑 김유신과 신령 제7항 화랑과 신동 제2절 화랑과 가무 제8항 신라인의 가무 제9항 화랑의 가곡 제10항 화랑과 악기 제3절 화랑여장고(45-11, 1934) 제11항 화랑여장고 제12항 원화고 제13항 가배고	서언 제1장 화랑집회의 원류 제1절 원시한족의 남자집회사 제1항 원시한족의 성년식 제2항 성년식과 시련 제2절 한족남자집회와 그 문화경역 제3항 부족성년입신식의 분포 제4항 한족 근린제족의 남자집회사 제2장 화랑의 본질과 그 기능 제1절 화랑의 제정과 그 본질 제5항 화랑집회와 그 조직 제6항 화랑과 그 신령 제7항 화랑과 신동 제2절 화랑집회와 가무 제8항 신라의 고대가무 제9항 화랑의 가곡 제10항 화랑과 악기 제3절 화랑의 전분장식 제11항 여성화랑 제12항 화랑의 장식

고 있다.

31) 박미경, 위의 논문, 2008, 80~81쪽.

<p>3. 타민족의 약자집회와 화랑제도의 비교 (26권 1호, 1930)</p> <p>V. 화랑과 전쟁</p> <p>1. 歌郎과 전쟁</p> <p>2. 전쟁과 여성 (26권 3호, 1930)</p> <p>3. 화랑의 전진에 있어서의 활동 (26권 5호, 1930)</p> <p>VI. 화랑과 국가 (26권 6호, 1930)</p> <p>VII. 화랑과 신선사상</p> <p>1. 신라갈수록 신불사상</p> <p>2. 화랑의 신선적 윤색 (27권 4호, 1931)</p> <p>3. 화랑신선화의 이유</p> <p>4. 풍류고</p> <p>VIII. 화랑과 불교</p> <p>1. 불교와 고유신앙의 습합</p> <p>2. 화랑과 불교신앙</p> <p>3. 화랑과 승려 (27권 5호, 1931)</p> <p>IX. 화랑과 팔관회</p> <p>1. 팔관회</p> <p>2. 화랑과 팔관회 결어</p>	<p>제4절 화랑의 원유과 그 유오지</p> <p>제14항 화랑의 유오지</p> <p>제15항 화랑유오의 本義</p> <p>제5절 전사단으로서의 화랑집회</p> <p>제16항 젊은이 집회와 전쟁</p> <p>제 17항 戰陣에 있어서 화랑의 활동</p> <p>제6절 화랑집회의 교육적 기능과 기타</p> <p>제18항 교육기관으로서의 화랑집회</p> <p>제19항 화랑집회의 사법권적 기능과 의협적 정신</p> <p>제3장 화랑연구상에 보이는 신라사의 일면(45-12, 1934)</p> <p>제1절 화랑제정연차고</p> <p>제20항 화랑제정연차고</p> <p>제2절 마립간고</p> <p>제21항 신라의 회의</p> <p>제22항 마립간과 부족회의</p> <p>제23항 마립간원의고</p> <p>제3절 화랑집회와 신라사</p> <p>제24항 마립간호에서 왕호까지</p> <p>제25항 진흥왕대와 화랑제도</p> <p>제26항 외래문화와 화랑제도</p> <p>제27항 신라왕위와 화랑집회</p>	<p>제13항 가배</p> <p>제4절 화랑의 원유와 그 유오지</p> <p>제14항 화랑의 유오지</p> <p>제15항 화랑유오의 의의</p> <p>제5절 전사단으로서의 화랑집회</p> <p>제16항 원사사회에 있어서의 전쟁과 젊은이 집회</p> <p>제17항 전쟁과 가무와 여성</p> <p>제18항 전진에서의 화랑의 활동</p> <p>제6절 화랑집회의 교육적 기능 및 집회</p> <p>제19항 교육기관으로서의 화랑집회</p> <p>제20항 화랑집회의 사법적 기능과 의협적 정신</p> <p>제3장 화랑연구에서 본 신라사의 일면</p> <p>제1절 화랑의 제정</p> <p>제21항 화랑제정의 연차</p> <p>제22항 마립간 호칭에서 왕 호칭으로</p> <p>제23항 진흥왕의 화랑제정의 역사적 의의</p> <p>제2절 신라왕권의 추이와 화랑집회</p> <p>제24항 신라왕위와 화랑집회</p> <p>제4장 화랑습속의 추이와 그 말류</p> <p>제1절 외래문화와 화랑집회</p> <p>제25항 남자집회와 외래문화</p> <p>제26항 화랑습속과 도교와의 습합</p> <p>제27항 화랑습속과 불교와의 습합</p> <p>제2절 화랑의 유품</p> <p>제28항 팔관회와 선량</p> <p>제29항 고려시대 민족교육에 있어서의 선량</p> <p>제30항 군역으로서의 선량</p> <p>제31항 화랑이라는 호칭의 옛과 오늘</p> <p>제5장 화랑습속의 사적조망과 일반남자집회-결론</p>
--	--	---

이상의 「표 1-三品彰英의 화랑연구 목차의 변화」에서 보면 그가 처음 화랑에 대하여 쓴 논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용이 보충되고 생각이 발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미시나의 화랑에 대한 연구에 있어 그 내용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본 발표의 첫머리에서 미시나의 논문은 후일 한국사 연구자들의 화랑 연구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음을 지적하였는데, 지금도 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화랑 연구에 이토록 관심을 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B. 1929년 저자가 京都제국대학 대학원 1학년 재학시 연구보고로서 제출한 것이 「신라의 기속 화랑제도에 대하여-신라사회의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잡지 『역사와 지리』제 25권 제 1

호에서 제 27권 제 5호에 걸쳐 게재된 것이 그것이다. 단시일에 썼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연구적 기초의 미숙으로 매우 엉성한 것이었으나, 저자 자신에게는 화랑연구의 출발점이 된 추억의 논문이자 그것에 남은 아쉬움으로 오히려 그 뒤에 손질해야 하겠다는 하나의 자극도 되었다. 저자가 처음 신라의 화랑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그것이 신라고대사회 연구상 중요성을 지님을 깊이 유념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 연구보고의 테마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촉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단 문제로서 다루고자 했을 때 당시 이 분야의 선배들의 연구가 거의 없어 불가해한 점이 속출했고 그것만으로도 탐구적인 흥미에 끌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단속적이기는 하나 이 문제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그 후라고 해서 새로운 한국고대 사료가 발견된 바 없어 연구의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점은 저자 스스로의 불학으로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다(삼품창영, 『신라화랑의 연구』, 1934, 머리말)

위의 B기록을 보면, 미시나가 화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연구보고의 테마를 잡는 과정에서 화랑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보고의 테마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밝혀져 있지 않다. 여기서 당장에 그 이유를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의 스승이 이마니시 류(今西龍)이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시나가 처음으로 한국사를 배운 것은 이마니시의 강의를 통해서였으며 이마니시의 강의는 주로 한국고대사였다고 한다.³²⁾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그는 이마니시의 권유로 화랑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가 제출한 보고서를 다음 해인 1930 및 1931년에 걸쳐 『역사와 지리』라는 잡지에 발표하였다. 물론 수정을 가하였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큰 가감없이 그대로 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역사와 지리』에 실린 글을 통해 그가 가진 화랑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화랑을 연구하는 데 있어 ‘奇俗’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화랑도가 매우 이상한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화랑을 연구하고자 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랑의 연구를 시작하는 목적이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습속이므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더 나아가 고려나 조선의 기록에 보이는 화랑을 통해 그것의 변질된 모습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후에 그는 화랑에 대하여 더 정제된 글을 발표하였다.

C. 저자는 1934년 『사학잡지』(제 45편 제 10, 11, 12호)에서 「신라화랑의 원류와 그 발전」이라

32) 박미경, 앞의 논문, 2008, 81쪽의 註6) 참조

는 표제로 화랑문제를 논하여 관계자의 가르침과 구고의 결함을 보완하여 고대사회에 관한 연구의 관점을 밝혔다(삼품창영, 『신라화랑의 연구』, 1934, 머리말)

미시나는 『역사와 지리』에 논문을 발표한 이후 1934년에는 『사학잡지』에 세 번에 나누어 화랑에 대한 글을 다시 발표하였다. 앞의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처음 쓴 논문과는 달리 체계를 갖추고 附記까지 하였다. 그리고 각주도 달아 두어 완전한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3장 2절에 마립간과 관련된 것은 전에 원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이다. 그가 구고의 결함을 보완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며, 화랑에 대한 내용이 더 보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화랑과 관련하여 기왕에 발표되었던 논문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거나 논평을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이 논문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삼한시대의 성년식과 청소년집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역사와 지리』에 실린 논문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부분을 특별히 부각한 것이다. 그는 삼한의 청소년 조직을 대만의 高砂族에서 구하고 있다. 그가 대만의 고사족에서 삼한의 청소년 조직의 기원을 구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만의 토착종족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일제는 대만을 식민지화하면서 고사족의 문화를 조사 연구하게 되었다.³³⁾ 그리고 그러한 자료가 발간된 이후에 미시나는 그것을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시나의 화랑 연구 가운데 삼한의 청소년 집회에 대한 것은 대만의 고사족에 대한 일본인의 조사 자료가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시나는 신라의 화랑을 설명하면서 군사적 기능을 이케우치나 아유키와 더불어 과장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왕권의 봉사집단으로 보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는 화랑의 독자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왕권의 부속적인 존재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인 학자들이 화랑을 통해 조선의 정신을 강조하려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헤아리게 한다.

미시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43년에는 『신라화랑의 연구』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어찌보면 화랑에 대한 그의 완성된 체계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는 앞선 일본인 연구자들의 논문을 비판하면서 자설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적잖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먼저 화랑도를 삼한시대의 청년집회소 및 남성결사라는 가설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의 책에서 청소년 집회와 관련하여 인디언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1937년 도미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미국 체류 중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도

33) 박현수, 앞의 논문, 1993, 59쪽.

중에 몇몇 인디언 마을을 방문해 실지조사를 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³⁴⁾ 결국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 그는 청소년 집회소에 대한 것을 이끌어 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³⁵⁾

또한 그는 북방의 만주 몽고족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남자집회사 문화요소를 전혀 남기지 않고 있어 이 점에서 한민족은 남방과 긴밀한 문화관계를 지녔으며, 북방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³⁶⁾ 더 나아가 그는 한족과 만주는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남방문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신화연구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³⁷⁾

다음으로 그는 원화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여성화랑의 존재는 사료적으로 전혀 막연하며, 그 구체적이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도 원화에 전설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미시나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D. (1)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성원에 관하여 본다면, 원시시대에 있어서는 부족의 남자를 모두 포함하는 부족적 남자집회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신라의 화랑집회에 있어서는 상급계급에 속하는 자가 가입하는 한정적 남자집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세 이후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조직은 붕괴되고 박수·광대 등 천민의 조합에 그 이름이 남아있다. 그 성원을 성별로 볼 때, 여성화랑시대에는 특정 여성의 참가가 보이나 중세 이후에 이르러서는 무창류가 참가하고 오히려 그것이 주요한 성원이었다.

(2) 그 기능에 관해서 보면, 몇 가지 기능 중 원시 및 신라시대에 있어서는 군사적 기능이 가장 왕성했으나, 중세 이후는 그러한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말았다. 이에 반해 제의적 기능은 원시시대로부터 계승되어 중세이후 타기능이 소실된 데 비해 이것만은 오늘의 민속에까지 그것이 변질되어 존속하고 있다. 성적 습속도 제의적 기능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양자가 고금을 통하여 오랜 습속으로서 존속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수반적 습속에 불과했으나 중세 이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만이 잔존하게 되었다.

(3)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관계면에서 보면, 남자집회는 원시에 있어서는 의회정치적 증핵을 이룬 것으로 상정되나 신라 화랑시대에 있어서는 왕권지배에 부수하는 국가봉사를 행했고, 신라 말기 이후 오히려 그 일부의 변질은 반국가적 반란세력마저 되었다. 또한, 제의적으로는 중세 고려조에 있어서는 국가적 제의에 참가했으나, 근세 이후는 민간의 천속으로 화하여 때로는 반사회적인 악풍의 온상마저 되었다.

34) 박미경, 앞의 논문, 2008, 81쪽.

35) 전경수, 「신라사회의 연령체계와 화랑제도」, 『한국문화인류학』 17, 1985 참조

36) 삼품창영 저, 이원호 역, 『신라화랑의 연구』, 집문당, 1995, 41쪽.

37) 平藤喜久子, 「植民地・朝鮮と日本の比較神話學-三品彰英の朝鮮研究-」, 『東アツアの古代文化』 135, 2008 참조.

미시나의 주장을 보면 결국 화랑제도는 신라시대에만 왕성하였고 그 이후에는 그러한 기능들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반국가적·반사회적 기능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결국 화랑을 통해 그것의 정신을 본받으려한 민족주의 학자들의 견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 학자들은 화랑도의 정신 자체를 민족정신으로 과학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신을 지닌 젊은 인재 양성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인 연구자들, 그 가운데서도 미시나는 민족주의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한국사의 자율성과 발전성의 결핍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시나는 1940년에 『朝鮮史概說』이라는 저서를 출간한다. 이 책에서 그는 한국 역사의 특성을 ‘他律性’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책은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⁸⁾ 그리고 그러한 의도에는 바로 朝鮮獨立不能論이었다. 그러한 바탕 위에 화랑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화랑의 변형 모습을 이러한 데에서 은연중에 강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E. 한국 고대 문화 연구에 관한 나의 관심은 일본 고대 연구의 입장에서이다. 한국 민족은 일본민족과 가장 근친한 관계에 있으며, 때로는 그 同祖관계까지도 논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동조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본고대 연구가 유력한 비교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선 가장 먼저 고대 한국이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안정맞춤인 것은 한국사의 자율적 발전상이 부족한 성격으로 인해 한국문화는 특히 그 민간에서 고대성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고대문화연구의 비교자료로 이미 일본에서 그 발전상밖에 알 수 없는 것의 원초 형상을 암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삼품창영, 『삼품창영논문집 제4권 증보일선신화전설의 연구』, 평범사, 1972, 453쪽)

미시나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한국문화를 바로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적어도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보조 자료로 삼고자 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화랑에 대한 연구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규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변형되어 현재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의 연구를 잘못 이해하면 신라 화랑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면 그의 연구는 또 다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화랑도 연구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1943년 12월 20일에 출판된 『신라화랑의 연구』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책이 출간될 당시 저자의 약력을 보면 해군

38) 이만열, 「근현대 한일관계 연구사」,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2005, 52쪽.

교수해군기관학교교관 및 경도제국대학문학부 강사였다. 해군 관련 학교의 교수로 지내면서 화랑에 대한 것을 정리하여 발간한 것은 당시의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짐작된다. 다시 말해서 1943년 10월 20일 ‘반도인학도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며, 11월 14일 중의원에서 학도병 미지원자에 대한 징용령이 의결되어 당시 전문학교 이상 재학하고 있는 조선인 학생 대부분은 징병과 징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미시나가 화랑을 강조한 것은 결국 일제의 총동원체제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가 『신라화랑의 연구』라는 책을 출간한 것도 총동원체제하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이 전장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독려했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라의 화랑들이 전장에 나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것을 귀감으로 삼으라고 한 것이다. 신라의 화랑들이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왕과 국가에 충성한 것과 같이 조선의 젊은이들도 전쟁터에 나아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일본제국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삼품의 신화연구에도 반영되어 있다. 조선에서 징용령이 발령되었던 해인 1943년에 출판된 『일선신화전설 연구』에서 그는 “조선의 신화는 민족적인 것이 상실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신화와 비교하는 것에 의해, 고대일본문화 중에 조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조선이 ‘참동포라고 할 수 있는 데에는, 민족본래의 신대로 복귀하고, 거기에서 한걸음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에서의 징용령에 관해서도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 왔던 이 동포민족이, 바야흐로 일어나 매우 존엄한 위세로 대동아 여러 민족을 이끌고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⁹⁾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화랑에 대한 그의 글은 이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당시 각계의 명사가 신문지상에서 혹은 직접적인 강연에서 학병 출진을 독려하며 전거로 활용하고 있는 유력한 논리가 ‘화랑도’의 사적이었다.⁴⁰⁾ 일제시대 조선인 연구자나 일본인 연구자들은 하나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화랑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 의도는 사뭇 달랐다. 조선인 연구자는 새로운 혼을 강조하고자 하였지만 일본인 연구자들은 그것과는 달리 조선의 독립을 부정하거나 혹은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 몰기 위한 의도에서 화랑을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지나 쇼에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지목해도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39) 平藤喜久子, 「消和前期の日本神話研究-植民地帝國の神話學-」 7쪽.

40) 정중현, 「국민국가와 ‘화랑도’—애국계몽기~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 담론과 활용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05호, 2006, 189쪽.

6. 맺음말

이상에서 일제 시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화랑/화랑도에 대하여 연구한 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들은 학문적인 태도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화랑을 연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화랑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었고 그러한 변질이 현재에는 어떠한 형태로 남아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살피고 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켰던 것이다.

이마무라 도모에는 일제 강점기에 화랑에 대하여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는데, 그의 관심은 결국 화랑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조선의 민속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무당이 화랑으로 불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화랑을 연구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그의 화랑 연구는 이후 화랑을 연구하는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있어 잘못된 방향을 제시한 첫 번째 연구자라 할 수 있다.

이케우치 히로시는 경성제국 대학교 교수로서 당시 조선인 지식인들에 미친 영향이 큰 인물이었다. 그의 화랑 연구는 조선의 지식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화랑의 정신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유카이 후노사신은 앞선 연구자들 보다도 더 철저하게 화랑을 천박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그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있어 첩병에 있던 인물로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화랑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더 나아가 화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선인들에게 심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그는 『화랑고』라는 책을 통해 화랑의 모습을 더욱 변질시키는 데 앞장 섰다고 할 수 있다.

미지나 쇼에는 1943년 『신라화랑의 연구』라는 책을 통해 신라 화랑에 대한 체계를 세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지금도 한국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화랑의 시작을 삼한시대 청소년 집단에서 찾고 있는데, 바로 미지나의 견해를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미지나의 연구도 결국은 신라 화랑 그 자체보다는 식민지 정책을 위한 수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의 연구의 주된 테마는 신화와 민속에 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화랑에 대한 것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신화를 연구하는 관점에서 화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화랑의 연구가 상당히 왜곡되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제 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화랑/화랑도 연구는 학문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조범환 선생님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신라 화랑 연구」에 대한 토론

정운용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조범환 선생님은 『新羅禪宗研究 -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중심으로-』(서경문화사, 2001)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잘 드러나듯이 신라 下代의 불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일부 정치사 관련 업적을 추적하고 계신다. 자료 이용의 치밀함과 그에 대한 섬세한 해석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며, 왕성한 집필로 관련 연구 성과의 진작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다.

오늘의 발표 주제인 ‘화랑’과 관련해서도 이미 「신라말 화랑 세력과 왕위계승」(1999) 및 「신라 중고기 낭도와 화랑」(2008) 등 주목되는 논문을 발표하신 바 있다. 특히 오늘의 발표는 필자께서 수행해 오신 화랑 관련 연구에 있어서, 초기의 입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일본인 연구자들의 선행 업적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예리한 시각에서 수행하셨다고 판단된다. 발표문의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토론자로서는 토론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목차 설정에서의 표현 문제

발표자께서는 목차의 2~5장에서 일본인 연구자 4명을 집중 거론하시면서, 해당 연구자의 화랑 연구를 특징지어 각각의 표제어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본문의 서술 과정에서는 과연 池内宏의 업적이 “지적 식민정책”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조선총독부 촉탁이었던 鮎貝房之進의 1930년대 업적이 어떻게 해서 “식민정책의 첩병” 역할을 하였는지, 또 三品彰英의 논리는 “조선독립불능론”과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일본인 연구자의 집필 동기 문제

발표자께서는, 서론에서 언급하셨듯이, 일본인 연구자들이 “왜” ‘화랑 / 화랑도’ 연구에 관심을 두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셨다. 대체로 보아 발표자의 견해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일본의 식민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화랑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연구 성과를 생산한 것인지, 아니면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한 것인지를 문제도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가능하다면, 이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今村 鞆의 연구에 대한 평가

발표자께서는 今村 鞆이 화랑을 연구한 것은 “신라 화랑을 화랑 그 자체로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무당과 연결시켜 화랑을 이해하고자 한 것”(3쪽)임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하여 “화랑의 존재 자체를 몰각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다. 물론 조선시대 무당의 연원이 화랑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역사민속학의 입장에서는 특정 사안(조선시대 무당)의 역사적 연원(화랑)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연구 방법론이라 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선의 무당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라면 더욱 화랑의 실제적 입장보다 무당의 역사적 위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화랑의 존재를 “몰각”시킨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4. 池內宏의 연구에 대한 평가

발표자께서는 池內宏이 “신라인의 무사적 정신”을 화랑을 통하여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색이 조선인 사이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4쪽)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池內宏이 화랑의 “전사와 수양이라는 측면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신라 화랑을 통해서만 민족주의자들이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상적인 측면을 발견하기가 어렵다”(5쪽)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池內宏이 굳이 화랑의 “무사적 정신”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민족주의자들이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상적 측면”의 내용은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鮎貝房之進의 연구에 대한 평가

발표자께서는 池敎憲 선생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아유카이가 화랑을 연구한 목적이 신라 화랑의 참된 모습을 왜곡하거나 신라 화랑의 값어치를 훼손함으로써 한국의 민족문화를 비하시키고 한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을 파괴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6쪽)이라 하셨다. 이 경우 “신라 화랑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며, 또 화랑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 三品彰英의 연구에 대한 평가

발표자께서는 三品彰英의 화랑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 “화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연구보고의 테마를 잡는 과정에서 화랑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음”(9쪽) 지적하면서, 三品彰英의 화랑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문제 삼는 듯한 언급을 하셨다. 그러나 三品彰英이 화랑에 대한 첫 글을 작성한 1929년이라는 시점은 三品彰英이 대학원 시절이었다. 아울러 三品彰英 스스로 밝힌 바 있듯이 그 이후 “탐구적인 흥미에 끌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단속적이기는 하나 이 문제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4년에 간행된 저서인 『신라화랑의 연구』를 1940년대 일본 제국주의의 ‘총동원체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다소의 무리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에서 조범환 선생님께서 검토하신 일본인 화랑 연구자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다.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조하면서도 토론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컸다. 이는 토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표자께서 검토하신 일본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 업적을 직접 대조·검토하지 못한 채 토론문을 작성한 것에서 기인한 바도 크다. 이 점을 사과드리며, 발표자의 서술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드린 질문이 있더라도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의 신라 불교 연구

판카즈 모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 머리말

식민지시대 일본인학자들 한국불교를 어떻게 접근하였으며 이해하였는지 이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서 근대사학이 형성된 그 당시 일본이 한국고대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한 팽창적인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명치시대의 신불교의 성격이 어떠했었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프랑스 학자 푸코는 권력/지식 연계론을 설명하면서 ‘모든 종류의 지식은 권력의 행사와 떼어 수 없이 맞물려 있다’라고 말 한다. 푸코가 말하는 지식은 학문적 이론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계된 평범하고 포괄적인 앎’을 가리킨다.

2. 일본이 바라보는 한국 고대사

명치시대부터 일제는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심어서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조선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오리엔탈리즘적 신화를¹⁾ 한국사회에서 부활시켰는데 그 시대

1) Stefan Tanaka's book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1993) convincingly argues that Japan used the Western ideas of progress in order to construct its cultural identity in opposition to that of China. . In the Korean context, Orientalism became further reinforced through the agency of Japan, the colonial power. Several scholars, notably, Galen Amstutz ("Interpreting Amida: History and Orientalism in the Study of

의 일본인 학자들이 한국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보겠다. 명치 일본의 역사적 관행은 국가의 정치적 명령에 복종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한 압력의 배경에는 두 가지의 반동적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본 “자신이” 또는 “특권적 행위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측면에서 왔으며, 다른 한 가지는 주로 한국의 ‘후진성’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노력에서 왔다. 일본 역사가들이 고수해 온 동양 중심 신화의 정치적 암시는 분명하였다. 즉, 한국은 자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으며, “우월한” 국가로서 일본이 “후진적인” 한국을 지배하여 계몽이나 현대화의 길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역사가들의 비문에 대한 무비판적 해석은 이같이 폭넓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논쟁의 소지가 있는 비문 부분에서 왜와 고대 한국 국가들의 관계를 언급한 내용이 분명히 원본에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일본의 역사가들이 「일본서기」에 실린 대로 大和정권이 한반도 내에 있던 남방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허구적 설명을 지지하기 위해 비문을 적극적으로 남용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또한 캐롤 글럭(Carol Gluck)이 거론한 바와 같이, 明治維新기 일본은 황제 중심의 신화적인 역사(Myth-history)의 전통을 날조하고 제작하는 일에 적극 간여하였으며, 그런 시도를 통해서 현대 국가를 이룩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 시기에 江戸時代の 國學者인 本居宣長(1730~1801)의 학맥이 강화되었으며, 제국주의적 신화에 기반을 둔 「日本書紀」와 「古事記」가 일본 역사 의식의 단면으로서 확고히 기반을 굳혀나갔다. 「日本書紀」와 「古事記」에 실린 大和정권의 신라정복관련기사를 민족주의의 프리즘(prism)으로 다시 읽고 그에 고무되어서, 일본인들은 국경을 넘어서서 이른바 잊혀졌던 제국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행동을 취하자고 부르짖었다. 江戸時代の 대표적인 사상가로서 메이지 유신의 이념론자로 추앙 받던 吉田松蔭은 일본의 민족주의 정신의 확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에 대한 임무 수행에 오랫동안 소홀했던 일로써 조선을 질타하여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고대 일본의 번성 기에 했던 관행대로 한국으로부터 인질을 받아들여 올바른 섬김의 예를 갖추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시기에 발표된 많은 논문들을 살펴보면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서기」에 기초하여 고대의 야마토 통치기에 백제와 가야제국이 일본의 속국이며 식민지에 불과했다는 이론이 이제 고고학적 유물로서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역사적

Pure Land Buddhism”) and Judith Snodgrass (“Presenting Japanese Buddhism to the West: Orientalism, Occidentalism, and the Columbian Exposition”) have persuasively demonstrated how the Buddhism presented in the West by Japan was shaped by Orientalist notions.

정설로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동경 제국 대학교에 새로이 설립된 역사학과의 동양사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들이 한국 침략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성토에 이념적 합리화를 부여해 주었다(미시나와 무라카미). 배형일 양이 최근 논문인 ‘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재구’에서 입증한 바처럼, 동경 제대의 탁월한 석학인 白鳥庫吉(1865~1942)도 일본의 신라, 백제와 가야에 대한 식민지화가 1500년 전에 전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초기 유물로서 광개토태왕비를 언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1905년 러·일 전쟁 기간 중 고대에 존재했던 제국주의적 야망을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이 확실히 승리한다는 증거를 이 비가 제공하고 있으므로 당시 일본인들의 승전에 대한 바람에 응답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에서 진행된 역사적 관행이 그 시대 일본의 정치적 명령과 부당하게 연계되어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반동적 이념, 즉 “자신이”, 혹은 “특권적 행위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의 역할은 주로 이른바 한국의 후진성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那珂通世와 타츠다 쇼키치와 같은 일부 일본 사가들은 「일본서기」와 「고기」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남방 지역이 2세기 동안 일본의 식민지적 지위에 놓여 있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었다.

3. 明治시대의 신불교과 그의 세계관

19세기 후반에 일본 불교는 神道 중심의 세계에서 그 자체의 정체성을 재정의 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시작했다. 불교는 외래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적인 특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던 廢佛毀釋에 도전해야만 했다. 明治(明治)시대에는 일본 불교 전통의 護國정신을 강조하고 일본의 불교 역사에서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上田了(1858-1919)의 『佛敎活論序論, 1887』와 村上專精(1851-1929)의 佛敎一貫論 과 같은 영향력 있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²⁾ 그러한 맹렬한 민족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고 길러진

2) 井上田了 의 明治시대의 논문들과 村上專精은 이러한 두 텍스트들의 상세한 소개와 완전한 해석 제공했다. ‘Defend the Nation and Love the Truth’: Inoue Enryō and the revival of Meiji Buddhism”, Monumenta Nipponica, 38-3(1983)을 참조. 明治불교의 다른 중요한 연구들은 James Edward Ketelaar, Of Heretics and Martyrs in Meiji Japa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松本文三郎 編, 日本佛敎史(V. 3)의 챕터 “明治維新の佛敎”, pp.251-392.

일본의 新佛敎는 불교세계에 대한 근시안적이며 일본 중심화 된 관점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명치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인 島地默雷의 관점에 의해서 명백해진다. 그는 그의 『佛敎各宗綱要, 1896』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동쪽 불교의 가르침들은 해안을 휩쓰는 파도에 지나지 않기에 장황하게 그것들은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³⁾ 중세와 근세 일본 불교계의 學僧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의 연장선에서 보았고 불교역사에 대한 논고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국을 제외하고 인도, 중국, 일본 이삼국에 국한된 소위 “佛敎三國世界觀”⁴⁾으로 알려진 일본의 대승불교사의 인식체계가 명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훨씬 강화되었다. 그것의 영향은 완전히 한국불교의 존재를 간과한 村上專精의 佛敎一貫論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 논문에서는 단지 남쪽의 불교는 태국과 스리랑카와 같은 나라에서 전해진 것이고 북쪽의 불교는 티벳, 중국, 일본으로 퍼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⁵⁾ 한국 불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해방후의 일본불교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인 鎌田茂雄과 田村圓澄은 명백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려고 하였다. 田村圓澄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일본의 학문은 일본 불교의 형성에 대해 수와 당 불교의 관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지리적으로 더 인접하고 역사적으로 중국보다 우리와 더 가까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한 것이다.⁶⁾

명치시대 동안에 한국역사와 한국 불교에 대한 일본의 이해는 둘 다 활력과 타고난 추진력의 부족이 인식되었다는 사실에 밀접하게 일치하는 이 문맥에서의 글은 가치가 있다.

이 문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언급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일본 불교 종파들과 제국주의자 그리고 명치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의 권력 사이에 긴밀한 협동이다. 일본이 조선과 1886년 강화도 조약을 맺자마자, 大谷종파는 한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투의 이념적인 기반의 역할을 하였다.⁷⁾ 1890년대에, 청일(淸日)전쟁이 일어났을 때, 불교종파들은 신도들에 의해서 착수된 더 적극적인 공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전적인 사상적 공격으로 무장하였다. 예를 들어, 田中智學는 13세기에 승려인 日蓮의 기록을 상기시켰고, “공격적인 생각을 오직 행동으로 수행하자”와 “법화경

3) John Jorgensen, “Korean Buddhist Historiography”, Pulgyo Yngu 14(1997), p.230.

4) Ketelaar, op. cit. pp.28-30.

5) Staggs, op. cit. p.479

6) 田村圓澄 저, 노성환 역, 『고대한국과 일본불교, 1997 p.1

7) 최병헌은 소도종파 안에서 한국의 원종(圓宗)을 흡수하기 위한 동의에 의해서 취해졌던 도전들과 만해 한용운에 의해 시작된 반대 운동의 어떤 양상들을 논의했다. 최병헌, 「일제불교의 침투와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진산 한기두 화갑기념 한국종교사상 (I) 1993, pp.452-453을 참조

은 무력이다”와 같은 슬로건을 내세웠다.⁸⁾ 다른 불교 지도자들은 政祭一致의 전통적인 관행의 부활과 부처계율과 제국법의 통합 그리고 그 불교전통의 호국정신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정신적인 슬로건들을 내세웠다. 정토와 소도 선(禪)과 같은 그러한 불교 종파들은 한국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계획에 순종하는 불교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이념적인 운동들을 전개하였다. 曹洞宗승려인 武田範之의 활동들은 이러한 점들을 뚜렷하게 설명한다. 그는 명성황후의 암살, 합병한 한국의 정부방침의 촉진과 한국 불교종파인 원종(圓宗)을 소도신도 안으로 흡수하려는 계획에 참여하였다.⁹⁾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요구에 공헌한 武田範之의 대대로 내려온 불교의 이용은 식민지 한국에서 소도종파에 의해 강력하게 진척되었다. 1930년대 초에 한국에서 일본 황제에 대한 충성과 伊藤博文의 권위로 사원의 축조를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해 식민시대 초기에 불교호국단(나라의 보호를 위한 불교도들)을 창립한 것은 이것에 전형적인 예이다.¹⁰⁾ 식민지시대 동안에 한국에 대한 일본 불교학문은 대체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패권을 장악한 정치의제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작가들은 노골적으로 한국 불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의 모방과 연장선으로 설명했다. 30년대의 일본 군국주의 시대 동안에 한국의 후원이 요구되었을 때, 어떤 일본인 작가들은 한국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를 보호하는 전통”에 대해 그들 자신들의 시각을 적용하였다.

李朝佛教(高橋亨, 寶文館, 1929)는 그 첫 번째 전형의 예이다. 高橋亨의 기념비적인 서적은 조선왕조 동안에 불교연구에 대한 우수한 기록의 중요성을 가지지만 “원시의 중국불교의 강한 지지”와 “독창성과 창조적인 사상의 부족”에 의해 특징화된 한국 불교전통에 대한 그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¹¹⁾ 사상의 맨 처음 흐름의 영향에 대한 증거는 20세기에 일본의 두 명의 주요한

8) Staggs, op. cit, p.343

9) 韓哲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1988 pp.59-66;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pp.55-71; Ishikawa kikizan, “The Social Response of Buddhists to the Modernization of Japan: Contrasting Lives of Two StZen Monks”,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25/1-2(1998), pp.94-106.

10) Nam-lin Hur, “The StSect and Japanese Military Imperialism in Korea”,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26/1-2(1999), pp.107-134.

소도종파의 경영상의 수장인 오타게 모겐은 1993년에 한국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과를 하였다. “특히 한국과 한반도에서, 일본은 첫째로 1895년에 한국의 황후를 암살의 무례를 범했다, 그리고 나서 1904-5년에 한국의 조선왕조를 속국의 상태로 강요했고 마지막으로 1910년에 한국의 합병을 통해 말살정책을 전개했다. 우리의 종파는 이것에서 정위부대, 이 나라에서 한국인들을 동화시킬 공리를 했고 충성스런 제국의 신민으로 한국인들을 변화시킬 정책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January 1993 issue of StShh, pp.28~31 quoted in Brian Victoria, Zen at War, New York: Weatherhill. 1997, p.156

11) 高橋亨, 李朝佛教(寶文館, 1929, p.12 Shim Jae-ryo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Buddhism: Is

불교학자들인 塚本善隆과 高崎直道の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 동안에 쓰인 그 소론에서 塚本善隆는 논평했다.

4세기 후반 경에 중국에서 번성한 불교는 한국에 종교로 전해졌고, 그때부터 한국의 정치, 사상과 함께 한국불교의 운명도 중국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¹²⁾

다음단락들에서 塚本善隆는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다양한 발전들에 관해서 중국의 전례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중국의 근원과 같이 맨 처음 한국불교의 방향도 선(禪)이었다”라고 말한다. 조선왕조에서 채택한 성리학에 이에 수반하는 불교박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이러한 억압적인 불교정책은 중국에서 추구한 동일한 정책과 일치한다. —15세기부터는 공식적으로 한국이 중주국—그리고 한국에서 불교집단의 쇠퇴는 중국에서의 불교의 운명과 유사하다.”¹³⁾

한국의 불교는 엄밀하게 중국불교의 흐름을 따랐고, 한국의 승려들은 중국에서 번성되었던 불교의 주요한 학설들과 교의상의 종파들을 받아들여 연구하고 집필하였지만 그것은 한국꽃병에 중국 꽃으로서 한국의 불교를 이해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다. 중국불교연구분야에서 塚本善隆의 훌륭한 이해력과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에 대한 그의 연구는 분명히 한국을 정체되고 의존적이라고 해석한 당시 일본의 역사기술의 경향에 의해서 형성된 한국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상호간의 변화들에 대한 무감각함을 보여준다.

저명한 불교학자인 동경대학의 高崎直道가 내놓은 의견에서 주장된 것처럼 한국불교가 그 자체의 독립적인 성격이 부족하다는 견해는 식민지 후의 시대에 진척되었다.

비록 한국역사에서 불교가 거의 왕실의 후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국불교의 주요한 의미는 그것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교리에서는 주목할 만한 발전은 없었다.¹⁴⁾

高崎直道の 주장에는 많은 결점들이 있다. 1955년에 한국불교는 15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Korean Buddhism Syncretic?”,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 1989, Robert E. Buswell, Jr은 또한 한국 불교와 그 자체의 현대 해석들의 정의를 내린 특징들의 그의 논의에서 이러한 인용구를 인용했다. 그의 최근 논문 ‘Imagining ‘Korean Buddhism’: The Invention of a National Religious Tradition’, in *Nation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Korean Identity* edited by Hyung Il Pai and Timothy R. Tanggherlini,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8, pp.103을 보라.

12) Zenryu Tsukamoto, “Buddhism in China and Korea” (Tr. by Leon Hurvitz), in *The Path of the Buddha: Buddhism interpreted by Buddhists*, edited by Kenneth W. Morgan, New York: Ronald Press, 1956, p. 234.

13) Ibid p.235

14) J. N. Takasaki, “Korea and Japan”, in *2500 years of Buddhism* edited by P. V. Bapat, Delhi: Publications Division, 1956, p.61

보냈는데, 그 자체의 수명에 거의 2/3가 역불조선을 포함했다는 사실은 불교가 “거의 그 역사에서” 왕실의 후원을 받았다는 그의 주장과는 모순된다. 또한 왕실의 후원은 교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高崎直道の 전제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신라의 원효와 원측, 고려의 의천과 지눌과 같은 훌륭한 사상가들을 배출한) 한국의 불교전통에 대한 일본의 방기는 만약에 그것이 제국주의 일본의 인식론상의 범위의 본질과 목적에 반하여 맥락화된 경우에 한해 적당하게 이해될 수 있다.

4. 일본적인 “호국불교” 패러다임으로 본 신라불교

일본 제국주의가 정점의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호국불교”의 해석적인 틀 안에서 한국의 불교전통에 대한 일본의 해석은 30년대에 시작되었다. 명치시대에 그들의 선조들과 같이, 1930년대의 저명한 일본불교학자들은 신도의 비난에 응답하고 일본과 불교의 운명은 마치 그러한 것들이 이른 시기부터 있어왔던 것처럼 불가분하게 뒤엉켜졌다는 강요된 생각을 했다. 그들은 황제의 법과 불교의 법 사이에 존재하는 공생관계의 역사적인 패턴들은 聖德太子의 憲法十七條, 同大寺의 축조, 仁王經과 金光明經의 본문들에서 그러한 “호국”의 강조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주장했다.¹⁵⁾ 그들은 또한 불교교리들과 일본 황제의 사상과 이해관계 사이의 밀접한 조화를 입증했다.¹⁶⁾ 한국으로부터 이념적이고 물질적인 원조는 만주와 중국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음모에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본 학자들은 그 제국주의의 근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한국인에게 성공을 거두었던 “호국” 정신의 결정체로서의 한국불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불교의 구성개념을 이용했다. 江田俊雄와 의 학문은 이러한 두 번째 범주로 분류한다. 에다의 1935년 한국불교의 호국사상에 대한 논문은 폭력의 전횡으로 인한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해 불교 경전의 주문에 의해서 서문이 쓰였다. 그는 원광의 세속오계의 중요성을 논한다. 황룡사 9층탑의 축

15) Christopher Ives, “The Mobilisation of Doctrine: Buddhist Contributions to Imperial Ideology in Modern Japan”,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26/1-2(1999), pp.77-79. 이 챕터에서 일본의 불교전통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에, 그것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중세시대에 불교와 국가 사이에 교의상의 동일성을 추구했던(明菴榮西와 日蓮와 같은 많은 승려들을 배출했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See B. C. Naylor, “Seaweed From Stormwaves: The Life and Thought of Nichiren-Buddha’s Messenger to Jap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ydney, 1984; and Albert welter, “Eisai’s Promotion of Zen for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in *Religions of Japan in Practice* edited by George G. Tanabe, J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p.63-70.

16) Christopher Ives, “The Mobilisation of Doctrine: Buddhist Contributions to Imperial Ideology in Modern Japan”, pp.82-97

조에서 차장의 역할, 원효의 경전들에서 호국적인 요소들, 임박한 중국의 공격을 신라왕실에 알리기 위해 당나라로부터 의상의 귀국 그리고 국정을 돌보기 위해 도선의 풍수지리설의 이용.¹⁷⁾ 이러한 유형의 또 다른 평론인 八百谷孝保, 新羅社會と 淨土教는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는 경고를 내놓았지만,¹⁸⁾ 또한 어떤 “신라적인” 또는 그 나라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불교승려의 역할과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일치와 같은 특징으로서 신라인들의 특징을 논의했다.¹⁹⁾

일본 식민지시대에 특히 1920년대 이래 일본의 동양사학계에 한국고대사를 전문적으로 다룬 학자들이 출현했다. 朝鮮史編修會와 깊은 인연을 맺은 金西龍²⁰⁾과 末松保和²¹⁾는 한국불교 역사에 대한 어떤 양상들에 대해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한 초기 한국의 역사를 연구한 선구적인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원래 역사기술의 경험학파로 훈련된 역사가들이고, 불교에 대한 그들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의 역사에 실린 텍스트의 문맥에 치우쳐 질문하고 이용 가능한 자료들에 의해 제기된 의문들을 명백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한국 사본들 보다는 일본의 자료들에 더 신뢰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末松保和는 불교가 신라와 일본땅에 뒤늦게 6세기에 전래되었기에 4세기 후반에 백제에 전해졌다는 한국측 역사자료에서 명백한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의 필연적 결과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또한 이마니시 류는 원광법사의 불교활동을 호국정신으로 간단화 시키면서 신라에서는 부처의 자비가 전쟁의 고통과 피해를 완화시켰다고 결론을 졌다.²²⁾

비록 그들의 연구가 명치시대에 그들의 선조들의 연구와 같은 패권정치의 규범들에 의해 단단하게 속박되지 않았을 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사서 접근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으로서 불교를 인지하진 않았다는 것에 주목될 필요가 있다.

17) 江田俊雄 “朝鮮佛教と護國思想”, 『朝鮮仏教史の研究』 pp.155-170.

18) 八百谷孝保, 新羅社會と 淨土教, 『史潮』 7/4, 1937, p. 628.

19) Ibid, pp.609-658

20) 신라 불교계와 圓仁/円仁의 관계, 그리고 원광대사에 대한 金西龍의 논문은 그의 책 『新羅史研究』에 실려 있다.

21) 末松保和의 쟁점이 되는 논문 “新羅佛教傳來傳説考”은 그의 1954년 작 『新羅史の諸問題, 1954』에 포함되어 있다.

22) 金西龍, 「新羅圓光法師傳」 『新羅史研究』 pp.395-409.

5. 맺음말을 대신하여

근대 일본이 서구의 내셔널히스토리를 수용하면서 그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신라불교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신라불교가 지닌 역사적인 의의를 파악하지 못 하고, 신라가 불교정치이념으로 어떻게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을 다스렸는지 또한 불교를 사회통합과 문화 융성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사실은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는 커다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를 경험하여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체제를 성립시켰는데 불교의 공인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의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진흥왕대는 신라의 영토팽창의 시기였기 때문에 제국이념을 내포하는 전륜성왕 이념의 채택은 고구려, 백제와의 항쟁에 정당성을 제시하는 한편 정복된 지역의 ‘新民’에게 왕의 위엄을 강조하고 민심을 수렴하며 왕권강화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진흥왕대에 와서 불교는 하나의 정치이념으로서 더욱 발전하였으며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뒤늦게 출발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망의 삼국 통일을 완성하고 그 위세를 인접국에 떨치게 되었으니, 불교사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준 실례라 하겠다. 안으로 불의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밖으로 적과의 싸움에서 비겁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정신에 투철하는 것이 세속오계의 근본정신이었으나 일본인 학자들은 세속오계의 윤리덕목을 호국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간단화 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의 신라 불교 연구’를 읽고

김 상 현
(동국대 교수)

1. 근대적 학문 방법론에 의해서 한국불교사가 연구된 것은 대개 일제강점기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불교사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유의하면 이 시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불교사 연구의 방법론이나 그 사관이나 시각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일반 역사학에서의 식민사학에 대한 검토나 그 극복을 위한 노력에 비해서 불교사에서의 그것은 아직 미미한 상황에 있다. 대개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있다.

길희성의 ‘한국불교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한국종교연구 1집, 서강대 종교연구소, 1998)

김천학의 ‘일본불교의 한국불교 인식’(불교평론 4호, 2001)

후쿠시 진닌, ‘일본의 삼국 통일신라시대 불교 연구 동향’, 일본의 한국불교 연구 동향, 장경각, 2001)

조남호의 ‘다카하시 토우루의 조선불교연구’(한국의 사상과 문화 20집, 2003)

2.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되는 판카즈 모한 교수의 ‘일제 강점기 일본인 연구자의 신라 불교 연구’는 반가운 연구 성과라고 하겠다. 식민지 시대 일인 연구자들의 한국불교 연구에도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아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의 모방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일본적인 호국불교의 패러다임으로 신라불교의 호국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는 지적은 토론자도 동의하고 있다. 1935년에 에다 토시오(江田俊雄)가 처음으로 「조선불교와 호국사상」을 발표한 이후 禹貞

相과 金東華가 1950년대 후반에 다시 호국불교를 논의한 후 1970년대에 이르러 강조되었다. 그 후 호국불교적 특징을 강조하는 시각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등 많은 영향을 주었다.

3. 발표자는 에다 토시오의 조선불교와 호국사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길희성에 의하면, 에다의 연구는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의 연장 내지 아류로 보는 이전의 견해를 넘어서서 한국불교의 특성을 다양한 역사적 모습에 근거하여 밝히고자 노력한 비교적 학문적 공정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김천학에 의하면, 에다도 기본적으로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의 종속적인 측면에서 결론 내린다고 한다. 즉, 에다 역시 식민사관에 입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에다의 한국불교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4. 김천학은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식민사관에 근거한 한국불교 연구만이 그들 연구의 목적이고 전부는 아니다. 그들의 한국불교 연구를 학문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일제 강점기에 남긴 대작들이 아직도 빈번히 이용되고 있고 현대에 남긴 업적들이 어느 면에서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 연구를 앞지른다. 이를 무시하고 일본의 한국불교 연구 성과를 식민주의사관, 혹은 삼국사관 등으로만 해석할 때 우리는 일본의 한국불교 연구에서의 중요한 학문적 성과를 지나치게 된다. 발표자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차 순 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목 차 -

- I. 머리말
- II. 연구사
- III. 고적조사연구와 시기별 변화
 - 1. 연구의 시작
 - 2. 고적조사연구와 조사방법
 - 3. 경주지역의 신라유적에 대한 인식과 발굴
- IV. 맺음말

I. 머리말

일제강점기가 우리 역사에 남긴 영향은 한두 권의 책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크며, 알게 모르게 그 잔재는 지금도 남아서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되거나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제청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극히 단순한 감정문제나 분노의 표현과 같이 일회성에 그치는 선전홍보물과 흥미위주의 신문기사 또는 방송국의 언론보도나 시사성 비판들이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물의 홍수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시기 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8월 15일

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주변에서 알려주고 있음을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각으로 양분된 채 그려지고 있고, 당시 식민지사회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을사오적’이라는 대표적 화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잔혹한 일본인과 불쌍한 조선인들로 구분되는 이러한 자화상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뇌리에 담겨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시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문화활동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습에 접근하기보다는 부분적인 이해 또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모습을 참된 모습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금도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침탈활동에 앞장선 일본인 연구자들이 남긴 유산은 우리 역사에 빛과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이를 구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신라사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심포지엄인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신라사 연구에 대한 검토’ 역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사실 확인과 오류를 수정하고 정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 분야 중 역사문제는 당시 식민지가 된 대한제국을 일본의 일부로 경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화두였다. 과거사를 통해 볼 때 일본이 조선을 고대부터 식민지로 삼았다는 역사적 사실의 발견이야말로, 자신들의 식민지 병합과 통치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자료수집 그리고 학술성과를 통한 논증은 바로 그들이 원하던 성과물이었다. 따라서 대한제국 말기부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홍보하고 이와 결부된 사실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속셈을 파악한 육당 최남선은 고적조사활동에 대해서 “일본인의 조선고적고사사업(朝鮮古蹟考査事業)은 아마 세계의 인류에 영원한 감사를 받을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들도 다른 이됨에 어서 남만한 감사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마는, 제가 할 일을 남이 한-남도 하는데 저는 모른 채 한-내 집 세간을 살살이 들추어내는 남이 있는 줄을 임자라고 기척도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염치없고 면목 없는 일임을 생각하면 이 부끄러움이 언제든지 사라지지 아니할 것임을 생각하면 감사하리란 용기조차 나오지를 못할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¹⁾. 비록 그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1) 崔南善, 1922, 「朝鮮歷史通俗講話開題」, 『東明』第6號, 東明社,

崔南善 著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全集編纂委員會 編, 1973, 『六堂崔南善全集』, 玄岩社, 鶴園裕, 1997, 「近代朝鮮における國學の形成」-『朝鮮學』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35, 朝鮮史研究會.

최남선 관련 자료는 상기 쓰루조노 유타카(鶴園裕)의 논문에 전재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적어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고적조사연구가 당대 한국 지식인들에게 어떤 문화적 충격을 주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II. 연구사

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 그들을 통치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구미 열강들이 자신들이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지역에 대한 인류학 조사와 각종 문헌자료 수집 및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일본 역시 자신들이 유럽으로부터 받은 문화적 충격과 피관찰자로 대우 받았던 인식을 대만과 태평양지역의 여러 섬들에 대한 인류학 조사를 통해서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조사내용은 일본 인류학자인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가 1886년에 창립한 동경인류학회에서 발간한 『동경인류학회보고(東京人類學會報告)』(1911년에 『인류학잡지(人類學雜誌)』로 제호를 변경함.)에 수록된 여러 기사 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대만, 환태평양 제도 등에 대한 인종, 풍속, 도구(유물) 등에 대한 조사기록과 답사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한국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작업에 수많은 학자와 군인들 그리고 일반인 등을 동원하였고, 이때 수집된 각종 자료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이 되어서 일본의 대한정책에 이용되었다.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는 기초적인 자료조사와 주변지역과의 비교연구가 주로 행하여졌다. 한편 이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 중국 등 일본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성과물과 특징에 대해서는 국내와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기별로 정리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²⁾.

2) 이선복, 1988, 『고고학개론』, 학술총서101, 이론과 실천, pp.227~228.

西川宏, 1970, 「日本帝國主義における朝鮮考古學の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七集, 朝鮮史研究會,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一〇〇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pp.53 ~106.

內田好昭, 2001, 「日本統治下の朝鮮半島における考古學的發掘調査(上)」, 『考古學史研究』第9號 -特輯 關野貞と朝鮮古蹟調査-, 京都 木曜クラブ, pp.59~90.

吉井秀夫, 2006, 「일제강점기 경주 신라고분 발굴조사」, 『신라고분 발굴조사 100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9~20,

차순철, 2006, 「일제강점기의 신라고분조사연구에 대한 검토」, 『文化財』第三十九號, 국립문화재연구소, pp.95~ 130.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바 시게노부(大庭重信)가 1886~1910년까지 『인류학잡지』에 게재된 일본 이외지역에 대한 기사 내용 851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한국 관련조사 내용은 모두 69건이 확인되며, 고고유적 및 유물 외에도 민속 습관이나 풍속·구비·전승 등과 같은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며 언어·방언·문자 등이 다음을 차지하며, 이외에도 현지 주민들의 체질과 체형 그리고 민족의 이동 등과 같이 북서지역을 다루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1896년부터는 중국보다는 한국에 대한 고고학 조사에 대한 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출토유물에 대한 비교, 인종론에 대한 관심과 일본민족의 계통에 대한 관심이 조선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다고 판단이 된다³⁾. 한편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 거류민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간단한 스케치와 사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다⁴⁾.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일본의 인류학 연구자들은 한국의 정세와 풍습 그리고 여러 종류의 토기 외에도 고분, 조선왕릉 및 사대부의 분묘 형태와 석물들과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장승⁵⁾들에 대한 초보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⁶⁾.

1899년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근대화의 길에 들어선 대한제국은 1901년 경부선 철도의 건설시작,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과 그 뒤를 이은 제1차 한일협약 체결, 1905년의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에 따라서 대한제국은 1906년부터 통감부에 의한 내정간섭을 받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일본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자 메이지 정부는 동경제국대학 건축과와 사학과를 졸업한 관학자인 야기 쇼자부로(八木裝三郎)⁷⁾, 세키노 타타시(關野貞)⁸⁾, 도리이 류쥬(鳥居龍藏)⁹⁾, 이마니시 류(今西龍)¹⁰⁾ 등을 조선에 파견해서 여러 가지 학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景仁文化社.

- 3) 庭重信, 1996, 「『人類學雜誌』に見る周邊地域關聯記事の傾向」, 『考古學史研究』第6號, 京都木曜クラブ, pp.45~54.
- 4) n.n., 1898, 「韓國古墳發見ノ高杯及石鐮」, 『東京人類學會報告』, 第三十卷 第百五拾號. 東京人類學會.
- 5) 한국의 장승에 대해서는 인류학회를 창설한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가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6) 岡倉曲三郎, 1895, 「朝鮮の墳墓」, 『雜報』, 『東京人類學會雜誌』第十卷 第百五號, 東京人類學會, pp.134~135.
- 7) 八木裝三郎, 1900, 「韓國通信」(八木裝三郎氏より坪井正五郎氏への來信) 第一信(十月二十九日釜山發), 第一信(十一月一日釜山發), 第三信(十一月二日釜山發), 『雜報』, 『東京人類學會雜誌』第十五卷 第百七十六號. 東京人類學會, pp.75~77.
- 高正龍, 1996, 「八木裝三郎の韓國調査」, 『考古學史研究』第6號, 京都木曜クラブ, pp.34~44.
- 8) 關野貞 1904,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帝國大學工科學術報告』第六號.
關野貞 著, 姜奉辰 譯, 1990, 『韓國의 建築과 藝術』, 産業圖書出版公社.
- 9) 鳥居龍藏 1906, 「滿洲調査復命書」, 『史學雜誌』第十七編 第二・三・四號, 史學會
- 10) 今西龍, 1908, 「新羅旧都慶州附近の古墳」, 『歴史地理』第11卷 第1號, 日本歴史地理研究會, pp.129~131.
- 今西龍, 1908, 「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其遺物ニ就いて」, 『東京人類學會雜誌』第269號, 東京人

당시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조사 성과 및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선학들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카즈메 히데이치(坂詰秀一)는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제국」 통치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의 역사를 통합 정리하였고¹¹⁾, 동경제국대학 건축학과 교수였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1909년부터 1915년까지 한국에서 실시한 고적조사활동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 있다¹²⁾. 또한 동경대학 종합연구박물관에서는 세키노 타다시의 조사연구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가 출판된 바 있다¹³⁾. 그리고 사오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는 1900년부터 2000년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주지역의 신라고분을 중심으로 시기별 조사내용과 고적조사활동 그리고 조사기관의 변화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행하였다¹⁴⁾. 이외에도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각종 발굴조사 성과와 이 시기에 건립된 조선총독부 박물관들과 분관 그리고 각 지방의 부립 박물관들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역할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¹⁵⁾.

해방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각종 조사활동과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의견을

類學會, pp.395~405.

李富五, 2007, 「신라 舊都 경주의 地勢와 遺蹟·遺物(今西龍)」, 『新羅史學報』9, 新羅史學會, pp.199~245.

李富五, 2007, 「신라시대 경주의 분묘와 그 유물에 대하여(今西龍)」, 『新羅史學報』10, 新羅史學會, pp.277~298.

11) 坂詰秀一, 1997, 『太平洋戦争と考古學』歴史文化ライブラリ, 吉川弘文館.

12) 早乙女雅博, 1997, 「關野貞の朝鮮古蹟調査」, 『精神のエクスペディション』東京大學出版會.

京都木曜クラブ, 2001, 『考古學史研究』第9號(特集: 關野貞と『韓國建築調査報告』)

京都木曜クラブ, 2003, 『考古學史研究』第10號(特集: 朝鮮古蹟調査の制度と技術)

鄭仁盛, 2006, 「植民地朝鮮における「古蹟調査」の記憶-關野貞のよる樂浪遺跡の調査·研究-, 『コロンニアズムと朝鮮文化』-朝鮮總督府「朝鮮古蹟調査事業」をめぐって-, 早稻田大學 21世紀 COEプログラム 關聯シンポジウム, 早稻田大學朝鮮文化研究所, pp.9~18.

정인성, 2006, 「關野貞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일제강점기 「古蹟調査」의 기억 I-, 『湖南考古學報』24, 湖南考古學會, pp.139~156.

13) 藤井恵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西秋良宏 編, 2005, 『關野貞アジア踏査』東京大學コレクションXX,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14)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 「一〇〇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pp.55~56.

15) 李成市, 2004, 「朝鮮王朝の象徴空間と博物館」, 『植民地近代の視座: 朝鮮と日本』, 岩波書店.

최석영, 2004, 『한국 박물관의 근대적 유산』, 서경문화사.

崔錫榮, 2006, 「近代日本と朝鮮における博物館の「政治學」: 博覽會, 天皇と時局-『博物館研究』に現われた「日帝の博物館」の役割變化を中心に」, 『コロンニアズムと朝鮮文化』-朝鮮總督府「朝鮮古蹟調査事業」をめぐって-, 早稻田大學 21世紀 COEプログラム 關聯シンポジウム, 早稻田大學朝鮮文化研究所, pp.41~49.

국립중앙박물관, 2005, 『겨레와 함께 한 국립박물관60년』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박물관의 문화유산 활용」, 『시대와 함께 한 博物館, 博物館人』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세미나, 국립중앙박물관,

개진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고학 발굴조사 및 연구사¹⁶⁾와 출토유물, 문화재 침탈에 따른 피해조사¹⁷⁾,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조선고적연구회¹⁸⁾ 등과 같은 공적 연구기관에 대한 조사활동과 당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한 민간단체들(경주고적보존회¹⁹⁾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종합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²⁰⁾. 결국 고적조사사업은 일본의 조선통치 정당화를 알리기 위한 이론의 토대를 설정하기 위한 것²¹⁾으로 식민통치가 조선의 옛 문화를 되찾고 선양하고 있음을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²²⁾.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고적조사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고적조사에 따른 도굴 조장 및 문화재 훼손에 대한 부분과 문화재의 반출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및 고적조사활동에 따른 폐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
- 16)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一〇〇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p.55.
 차순철, 2004, 「경주 신라고분의 호수부여에 대하여」-일제강점기에 부여된 구분번호를 중심으로-, 『慶研考古』창간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吉井秀夫, 2006, 「일제강점기 경주 신라고분 발굴조사」, 『신라고분 발굴조사 100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9~20,
 차순철, 2006, 「일제강점기의 신라고분조사연구에 대한 검토」, 『文化財』第三十九號, 국립문화재연구소, pp.95~13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新羅古墳 基礎學術調査研究 I』-研究報告書-.
- 17) 黃壽永, 1973, 『日帝期 文化財 被害資料』考古美術資料 第22輯, 考古美術同人會.
 이구열, 1996, 『한국 문화재 수난사』, 들베개.
 이순우, 1999,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하나』, 하늘채.
 이순우, 2003,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둘』, 하늘채.
 정규홍, 2005, 『우리 문화재 수난사』-일제기 문화재 약탈과 유린, 학연문화사.
 정규홍, 2007, 『석조문화재 그 수난의 역사』, 학연문화사.
 정규홍, 2009, 『유랑의 문화재』-제 자리를 떠난 문화재들에 대한 보고서, 학연문화사.
- 18) 최석영, 1997,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pp.249~294.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景仁文化社.
- 19) 김현숙, 2007, 「일제강점기 경주고적보존회의 발족과 활동」,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간행위원회, 예경.
 정인성, 2009, 「일제강점기 '慶州古蹟保存會'와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大邱史學』第95輯, 大邱史學會, pp.1~39.
- 20)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景仁文化社.
- 21) 예컨대 식민사관의 뒷받침하기 위한 고고학 발굴조사, 문헌사료 비판 등을 들 수 있다.
- 22)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여 출판된 『朝鮮古蹟圖譜』, 『古蹟調査報告』, 『朝鮮史』의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당시 조사에 참여한 일본인 연구자들은 “고적조사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된 학술성과 내용이 일본 국내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학적 조사”임을 강변하고 있지만, 당시 일본 국내에서 ‘천황릉’에 대한 조사가 불허된 정치·사회 여건을 고려한다면, 구미에서 배운 고고학 연구법을 일본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시험장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이 이용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메이지말에서 다이쇼 초기에 일본고고학계는 활기를 띄었지만 실제로 발굴조사는 매우 드물었는데, 그 방법의 완전함 불완전함을 별도로 하고, 먼저(조선)반도의 땅에 새로운 조사방침을 확립한 것이다²³⁾.”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본 연구자들이 한국을 그들의 고고학 연구의 실습을 위한 장소로 이용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고적조사연구 활동에 참여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회고록에 수록된 내용이나 후학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면서 당시의 학문성공을 칭송하고 있다.

쿠로이타 카즈미(黑板勝美)에 대한 후학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는 “조선사편수회 고문으로서 『조선사』의 간행과 지도를 맡아 이를 완성하였고, 조선고적연구회, 평양명승고적보존회를 중심으로 조선의 고적조사사업에 힘을 기울였고, 조선보물고적명승및천연기념물보존위원, 조선총독부박물관협의위원을 맡아서 조선의 역사 및 문화재보존에 대한 공적이 크다.”고 적고 있다²⁴⁾.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는 이마니시 류의 조사활동에 대해서 신라고분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만든 “조선사 연구의 선구”라고 칭송하였고, 그 자신에 대해서도 “조선고적조사사업은 정치적인 목적과는 상관없는 것이며,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문화 정책이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²⁵⁾.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는 일제강점하에서 조선, 중국, 만주 등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적조사연구 활동에 대해서 “동아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²⁶⁾.

고이지미 아키오(小泉顯夫)는 1922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취직이 결정되었을 때, 하마다 고우가쿠(濱田耕作)의 가르침이었던 “언제라도 조선이 일본의 손에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학자로서 일본인으로써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는 뜻에 따라 “최후의 날

23) 藤田亮策, 1933, 「朝鮮考古學略史」, 『ドルメン』4 -滿鮮特輯號-, 岡書院, p.16.

24) 黑板勝美先生生誕百年記念會, 1974, 『黑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p.348.

25) 藤田亮策, 1951,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第1輯, 朝鮮學會.

26) 梅原末治, 1947, 「朝鮮の古蹟調査と其の東亞考古學への寄與」, 『民主朝鮮』.

外村大, 2006, 「朝鮮總督府の古蹟調査保存事業と朝鮮民衆」, 『コロニアズムと朝鮮文化』-朝鮮總督府「朝鮮古蹟調査事業」をめぐって-, 早稻田大學 21世紀 COE 프로그램 關聯シンポジウム, 早稻田大學朝鮮文化研究所, p.31.

까지 선생의 가르침을 지켰고, 조선의 문화재를 지켰고, 아리미즈 료이치와 함께 1년 가까이 조선에 머물렀다.”라고 술회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일본인 연구자들²⁸⁾의 시각은 그들이 행한 고적조사연구가 조선총독부의 문화사업으로 행해졌지만, 고고학, 미술사학, 건축학 등 제 연구 분야에서 「타자의 시선」이 아닌 「연구자의 시선」을 가지고 행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고적조사 연구결과가 당시의 일본고고학계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동양학계로부터도 주목을 받았고, 당시 한국에서 이루어진 고적조사 및 정비·보호와 관련한 행정업무체계와 경험 등은 전후의 일본의 문화재행정에 영향을 주었지만²⁹⁾, 고적조사연구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당사자는 바로 일본고고학계 그 자신이었다. 특히 전쟁 후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사연구에 있어서 한국에서 활동한 고고학자들이 계속 그 역할을 이어갔고, 고적조사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연구 경험이 곧바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현지 지역민, 즉 한국인이 철저하게 배제된 고적조사연구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생각된다.

이미 고적조사연구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학에서 상세하게 비판하였지만, 고고학 분야에서 당시의 고적조사활동과 성격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통사보다는 부분사 측면에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평양에 소재한 낙랑유적에 대해서 검토한 정인성은 세키노 타다시와 그의 연구팀이 평양지역에서 행한 고적조사활동을 검토하고 초기에 이루어진 고구려와의 연계성이 점차 낙랑군 관련 유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최초의 낙랑고분 발굴조사가 식민사관 창출을 위해서 사전에 기획된 조사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조사결과가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이나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등과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사의 타율성을 선전하는 식민사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³⁰⁾.

이영훈과 오영찬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평양 낙랑유적 발굴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27) 小泉顯夫, 1986, 「あとがき」, 『朝鮮古代遺蹟の遍歴』, 六興出版, p.385.

28) 아리미즈 료이치는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인 고고학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약력을 소개하면서, 그 업적을 기술하고 있다.

有光教一, 2007, 「二十世紀に活躍された朝鮮考古學關係者」, 『朝鮮考古學七十五年』, 昭和堂, pp.206~235.

29) 吉井秀夫, 2006, 『植民地朝鮮における考古學的調査の再檢討』平成15年度~平成17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成果報告書.

吉井秀夫, 2009, 「일본 고고학사에서 본 조선고적조사사업과 조선총독부박물관」, 『시대와 함께 한 博物館, 博物館人』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세미나, 국립중앙박물관,

30) 정인성, 2006, 「關野貞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일제강점기 「古蹟調査의 기억 1-」 『湖南考古學報』24, 湖南考古學會, pp.139~156.

서 문화의 인식과 이를 통해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그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¹⁾”

경주지역에서 이루어진 고적조사연구, 특히 신라고분과 관련된 학술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선학들에 의한 논고가 발표된 바 있다.³²⁾ 이를 살펴보면 주로 각 시기별로 발굴된 신라고분의 의미와 학사적인 특징을 기초하여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필자 역시 대한제국~일제강점기 사이에 이루어진 고적조사활동 중 신라고분 관련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목적을 이루었거나, 이후 학계에 끼친 영향이 큰 중요발굴조사를 기준으로 모두 5기의 획기를 구분한 바 있다. 이 구분 안은 각 분기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고적조사에 대한 연구 성과와 구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대형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그리고 조사기관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³³⁾

-
- 31) 이영훈·오영찬, 2001, 「낙랑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낙랑』, 국립중앙박물관, pp.227~235.
 吳永贊, 2004,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樂浪古墳 資料와 研究現況」, 『韓國古代史研究』34, 韓國古代史學會, pp.41~70.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고조선계와 한(漢)계의 종족 융합을 통한 낙랑인의 형성, 사계절.
- 32) 李熙濬, 1990, 「解放前의 新羅·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研究 -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2)-」, 『韓國考古學報』24, 韓國考古學會, pp.49~80.
 崔秉鉉, 1992, 「新羅,伽耶의 考古學-研究史的 檢討-」, 『韓國考古學報』21, 韓國考古學會, pp.119~137.
 李盛周, 1995, 「帝國主義時代 考古學과 그 殘迹」, 『古文化』47, 韓國大學博物館協會, pp.27~70.
 姜仁求, 2000, 「三國時代 考古學의 現況과 課題」, 『古墳研究』, 學研文化社.
 李清圭·金大煥, 2000, 「慶州地域 墳墓調査와 研究」, 『人類學研究』10, 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研究會, pp.1~16.
- 33) 한국의 근대고고학에 대한 시기구분문제에 대해서는 이선복과 사오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 그리고 최석영 등이 각각의 구분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선복 - 제1기(19세기말~20세기초), 제2기(20세기초 10년간), 제3기(1916~1945)
 이선복, 1988, 『고고학개론』, 학술총서101, 이론과 실천, pp.227~228.
 최석영 - 제1기(1902년 이전), 제2기(1902~1914년), 제3기(1921~1924년), 제4기(1925~1929년), 제5기(1930~1945년)
 최석영, 1997,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pp.249~294.
 早乙女雅博-1) 東京帝國大學의 調査(1900~1909), 2) 總督府의 第1次 古蹟調査(1910~1915), 3) 總督府新體制下에서 第2次 古蹟調査(1916~1920), 4) 總督府古蹟調査課의 第3次 古蹟調査(1921~1930), 5) 朝鮮古蹟研究會의 第1次 古蹟調査(1931~1932), 6) 朝鮮古蹟研究會의 第2次 古蹟調査(1932~1935), 7) 朝鮮古蹟研究會의 第3次 古蹟調査(1936~1945)
 早乙女雅博, 2001, 「新羅의 考古學調査「一〇〇年」의 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pp.53~106.

「표 1」 일제강점기 신라고분 연구사 구분 안

시기구분	연도	조사내용 및 특징
제1기	1886~1889	일본 인류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괄적인 자료조사 활동시기 . 이후 일본 관학파들의 조사에 단초를 열었던 시기
제2기	1900~1909	1906년 이마니시 류에 의한 최초의 신라고분 황남동 남총 동천동 북산고분 조사 1909년 야쓰이 세이이치에 의한 서악동 석침총 발굴조사는 신라고분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 .
제3기	1910~1919	조선총독부에 의한 신라고분 표본조사 실시. 전국적인 고분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사. 고적조사보고서 발간 .
제4기	1920~1929	금관총 발견에 따른 신라고분 발굴조사.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주관아래 다수의 중·대형 신라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초호화판 보고서 발간- 식민통치의 정당성 홍보수단으로 활용 .
제5기	1930~1945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학술조사의 어려움으로 조선고적연구회 창설 (경주, 평양 부여 등지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짐.) 경주시까지 확장에 따라서 중·소형 신라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가 이루어짐.

Ⅲ. 고적조사연구와 시기별 변화

1. 연구의 시작

우리나라에 소재한 문화유산에 대한 고적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한국의 문화유산과 민속 자료 등을 일본 국내에 소개한 사람들은 당시 한국에 체재 중인 일본인 거류민들 또는 관리, 상인 등이었다. 이들은 개인이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짧은 소개 글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함께 첨부된 간단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을 방문한 연구자들이 보낸 소식을 연재하면서 학계 외에도 일반인들에게 계속 새로운 정보를 전하고자 하였다.

일본 메이지정부는 한국 내 소재한 건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한국문화에 대한 특징과 지역적 모습을 살펴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조선고적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고학, 인류학적인 관심으로 한반도 각지를 본격적으로 답사한 최초의 일본인 연구자는 1900년 가을에 4개월 동안 조사를 다닌 八木奘三郎(야기 쇼사부로우)으로 추정된다³⁴⁾. 당시 야기는 동경

34) 高正龍, 1996, 「八木奘三郎の韓國調査」, 『考古學史研究』第6號, 京都木曜クラブ, pp.34~44.

제국대학 인류학교실 소속으로, 한국에서 인류학, 고고학, 역사학분야의 조사를 여럿 하였지만 정식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1902년 6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62일간 동경제국대학 건축사연구실의 세키노 타타시(關野貞)는 서울, 개성, 경주, 부산 주변에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들을 처음으로 조사하였는데³⁵⁾, 그 결과물로서 1904년에 『한국건축조사보고(韓國建築調査報告)』가 간행되었다. 이 때 이루어진 조사는 당시 공과대학장인 다쓰노 킨고(辰野金吾)가 “「한국 건축」의 역사적 연구성과 달성을 위해 폭넓게 관찰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것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그의 조사지역은 서울, 개성,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해인사까지 포함한 비교적 넓은 범위이며 한국에 소재한 여러 고분과 고건축물들을 보고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³⁶⁾

또한 1906년 9월에는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경주, 서울, 개성을 답사했다. 이때 그는 경주에서는 17, 8일간 체재하면서 황남동 145호분(황남동 남총)과 동천동 북산고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³⁷⁾. 이때 수습된 토기들은 『동경인류학회잡지』제269호에 사진이 게재되었고, 1915년에 발간된 『조선고적도보』5에도 동일한 유물이 ‘경주 북산³⁸⁾고분’(北山古墳)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대한제국 탁지부(度支部)의 의뢰에 따라 세키노 타타시는 1909년부터 한반도 각지의 고건축과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1910년 이후부터 이 조사는 조선총독부 내무부의 사업이 되어 1915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고적조사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적인 면은 대한제국정부의 탁지부에서 일본인 학자를 초청하여 고적조사를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당시 대한제국 정부 내 중요요직에 일본인들이 채용된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 정부가 직접 조사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특히 당시에 현지조사를 담당한 세키노 타타시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현지 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지역에 주재한 일본군 헌병과 경찰들이 호위를 하고 조사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점은, 이들의 조사가 개인적인 조사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들

35) 京都 木曜クラブ, 2001, 『考古學史研究』第9號 -特輯 關野貞と朝鮮古蹟調査-. pp.2~90.

藤井惠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西秋良宏 編, 2005, 『關野貞アジア踏査』東京大學コレクションXX,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pp.233~260.

36)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一〇〇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pp.55~56.

37) 今西龍, 1908, 「新羅旧都慶州附近の古墳」, 『歴史地理』第11卷 第1號, 日本歴史地理研究會. p.130.

38) 이마니시 류는 그의 논문에서 北山の 위치를 경주시 북쪽에 위치한 小金剛山으로 지칭하고 있다.

今西龍, 1908, 「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其遺物ニ就いて」, 『東京人類學會雜誌』第269號, 東京人類學會, p.403.

조사 성과의 대부분은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서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키노 타다시의 조사성과는 『한국건축조사보고(韓國建築調查報告)』, 『조선예술지연구(朝鮮藝術之研究)』, 『조선예술지연구속편(朝鮮藝術之研究續編)』,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조선미술사(朝鮮美術史)』 등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한국을 식민지화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맞게 이용되었다. 세키노를 비롯한 일본인 연구자들은 그들의 조사내용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강연」이라는 방식으로 조사성과와 역사·미술에 대한 여러 학설을 설교하게 되는데, 이후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각종 보고서와 출판물을 통해서 한국의 정체성과 식민사관에 입각한 여러 학설을 주장하였다.

1909년 종로 광통관(廣通館)에서 세키노 타다시,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구리야마 이치(栗山俊一)는 조선고적조사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당시 조사를 위해서 지역을 방문하면 이러한 강연회가 자주 개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강연한 내용은 한국의 문화가 중국과 일본의 영향 아래에서 발전했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예속된 모습으로 이해하고 조사내용을 설교하였다³⁹⁾. 한편 이 강의 내용은 1909년 대한제국 탁지부 건축소에서 『한홍엽(韓紅葉)』이란 제목으로 출판을 하게 되는데, 한국미술사를 중국 미술사의 아류로 보고, 통일신라시대에 예술의 절정을 이루다가 점차 퇴보하여 조선시대에 이른다고 본 견해는 이후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관 형성과 한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가 쓴 ‘상세(上世)의 일한관계(日韓關係)’를 살펴보면 “한반도는 고대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일본서기(日本書紀)』, 『고사기(古事記)』에 나타난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신라정벌설’에 기초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에 가까운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다⁴⁰⁾. 이러한 역사관은 결국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규정한 당시 정한론자(征韓論者)의 생각과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39) 大韓帝國 度支部 建築所, 1909, 『韓紅葉』

당시에 강연한 내용은 “상대에 있어서 일한의 관계”(야쓰이 세이이치 谷井濟一), “평양개성의 고분”(구리야마 순이치 栗山俊一), “한국예술의 변천에 대해서”(세키노 타다시 關野貞)이다.

40) 야쓰이 세이이치의 한국 역사관에 대해서는 “제국이 식민 지배하는 한반도의 고적 조사현장에서 활약하는 존재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인시키고 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식민지 정책과 자신을 일체화시켜 그들만을 위한 굴절된 애국을 실천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야쓰이의 한국관은 그의 스승이 쿠로이타 가쓰미(黒坂勝美)인 점과 연결시켜 보고 있다.

鄭仁盛 · 사오도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 2008,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일제 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東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1』, 동북아역사재단, p.19.

2. 고적조사연구와 조사방법

세키노 타다시는 한국에 대한 고적조사연구 결과 여러 문화유적들의 가치를 갑(甲-최우수품), 을(乙-우수품), 병(丙-보통품), 정(丁-하품)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중에서 ‘갑’·‘을’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병’·‘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했다.⁴¹⁾ 이러한 구분방법의 기준은 고 건축물의 창건연대가 문헌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거나, 오래된 것, 건물의 구조가 충실하게 고식을 가지고 있는 것, 시대가 내려오는 것이라도 규모가 크거나 또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⁴²⁾. 결국 이러한 고적분류 등급에 포함되지 못한 대한제국의 각종 관청건물들은 이후 하나하나 철거되었고, 고적으로 분류된 건축물만 남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주목되는 사실은 세키노 타다시의 초빙 목적이 통감정치 하 한국의 사법행정권 접수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물 처리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은 주목된다⁴³⁾. 한편 아래 「표 2」는 경주지역의 고적들에 대한 등급표로 주로 고적이나 왕릉 등만 보호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표 2」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적으로 지정된 이들 유적들 중 대부분은 세키노 타다시가 1902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조사했을 때 확인했던 유적인 점이다. 이를 살펴보면 왕궁이나 사찰과 관련된 문화재 혹은 피장자가 분명하고 석물이 있는 왕릉은 모두 ‘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왕릉이라고 해도 석물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을’로 지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표 2」 세키노 타다시가 분류한 경주지역의 고적 등급

所在地	古蹟	時代	分類年	關野貞分類	指定年	保存令
慶州	月城遺址	三國	1909	甲	1936	寶物32號
慶州	彌勒石像	三國	1909	甲		
慶州	芬皇寺塔	新羅	1909	甲	1934	寶物100號
慶州	瞻星臺	新羅	1909	甲	1934	寶物105號

41) 關野貞 著, 姜奉辰 譯, 1990, 『韓國의 建築과 藝術』, 産業圖書出版公社.

42) 韓三建, 2005, 「關野貞による古建築價値判斷基準について」, 『關野貞アジア踏査』東京大學コレクションXX,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p.224.

43) 西川宏, 1970, 「日本帝國主義における朝鮮考古學の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七集, 朝鮮史研究會, p.99.

44) 關野貞, 1910, 「朝鮮遺蹟 一覽(地方別)」, 『朝鮮學術之研究』.

關野貞 · 谷井濟一 · 栗山俊一, 1911, 「朝鮮遺蹟調査略報告」, 『朝鮮藝術之研究續編』.

慶州	佛國寺多寶塔	新羅	1909	甲	1934	寶物84號
慶州	釋迦塔	新羅	1909	甲	1934	寶物86號
慶州	石窟庵	新羅	1909	甲	1934	寶物89號
慶州	武烈王陵碑	新羅	1909	甲	1934	寶物92號
慶州	鐘閣奉德寺鐘	新羅	1909	甲	1934	寶物99號
慶州	鮑石亭	新羅	1909	甲	1934	古蹟1號
慶州	五陵	三國	1909	乙	1936	古蹟
慶州	諸陵墓	三國新羅	1909	乙	1936	古蹟
慶州	四天王石燈	新羅	1909	乙·丙		
慶州	南山山城	新羅	1911	甲	1936	古蹟38號
慶州	興德王陵	統一新羅	1911	甲	1936	古蹟46號
慶州	憲德王陵	統一新羅	1911	甲	1936	古蹟45號
慶州	味鄒王陵	新羅	1911	乙		
慶州	阿達羅王陵	新羅	1911	乙		
慶州	眞平王陵	新羅	1911	乙		
慶州	神文王陵	統一新羅	1911	乙		

1906년 9월에는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조사한 황남동 145호분(황남동 남총)과 동천동 북산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남겨지지 않았다. 다만 『조선고적도보』에 출토유물에 대한 사진이 수록되어있는데, 이는 당시 조사 수준이 유물에 대한 확인정도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09년에 조사된 황남동 145호분(皇南里 南墳)과 서악동 석침총(西岳里 石枕塚)은 고분의 평면도, 분구 단면에 대한 조사 및 기술이 확인되며⁴⁵⁾, 중요부분에 대한 유리원판사진촬영이 시도되었다. 당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된 유리원판 사진이 발굴조사에 채용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황남동 100호분(검총)의 경우 보고서에 제시된 유구도면은 분구 단면도뿐이며, 유물의 출토상황 및 유구의 구조를 잘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실측도는 없다.

1911년에는 신라 왕릉들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며, 황남동 100호분(검총)에 대한 발굴

45) 車順喆, 2006, 「경주 서악동 석침총 발굴조사와 그 의의」, 『文物研究』 제10호, 동아시아문화연구학회
단·한국문화연구원. pp.133~152.

조사를 시작으로 1915년에는 보문동 부부총, 금환총, 완총⁴⁶⁾, 동천동 외총이 조사⁴⁷⁾되며, 1918년에는 적석목곽분인 보문동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⁴⁸⁾. 이들 고분에 대한 조사계기는 1913년에 야쓰이 세이이치가 경주 명활산성, 남산성, 선도산성 그리고 관문성 등의 신라성곽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기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표 3」 1906~1915년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

번호	조사년도	유적명	시대	조사내용 및 참고문헌
1	1906	小金剛山 北山古墳	삼국	추정 횡혈식석실분, 인화문토기 등 13점 수습. 今西龍, 1908, 「新羅旧都慶州附近の古墳」, 『歴史地理』第11卷 第1號, 日本歴史地理研究會. 今西龍, 1908, 「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其遺物ニ就いて」, 『東京人類學會雜誌』第269號, 東京人類學會. 朝鮮總督府, 1917, 『朝鮮古蹟圖譜』五.
2	1906 1909	皇南里 南塚 (皇南洞 145號墳)	삼국	적석목곽분. 부분적인 시굴조사. 적석층 확인. 今西龍, 1908, 「新羅旧都慶州附近の古墳」, 『歴史地理』第11卷 第1號, 日本歴史地理研究會. 今西龍, 1908, 「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其遺物ニ就いて」, 『東京人類學會雜誌』第269號, 東京人類學會.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三.
3	1909	西岳里 石枕塚	삼국	횡혈식석실분. 석침 및 토기출토 谷井濟一, 1910, 「韓國慶州西岳の一古墳に就いて」, 『考古界』第8編 第12號, 考古學會. 谷井濟一, 1910, 「慶州の陵墓」, 『朝鮮芸術之研究』.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三.
4	1909	金尺里古 墳群	삼국	대구-연일간 도로공사로 파괴된 고분 6기에 대한 관찰. 谷井濟一, 1910, 「韓國慶州西岳の一古墳に就いて」, 『考古界』第8編 第12號, 考古學會. 谷井濟一, 1910, 「慶州の陵墓」, 『朝鮮芸術之研究』.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一〇〇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5	1911	劍塚 (皇南洞10 0號墳)	삼국	적석목곽분 1기 발굴조사. 철검 1, 지석 1. 토기 호 등 출토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三.
6	1915	普門里 夫婦塚	삼국	적석목곽분 1기 및 횡구식석실분 1기에 대한 발굴조사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三.

46) 야쓰이 세이이치는 「新羅の墳墓」에서 보문리 완총을 ‘진총(烟塚)’으로 기술하고 있다.

47)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三.

48) 原田淑人, 1922, 「慶北道慶州郡內東面普門里古墳發掘調査及慶山郡清道郡金泉郡尙州郡慶尙南道梁山郡東萊郡諸遺蹟調査報告書」, 『大正七年度 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49) 谷井濟一, 1913, 「○ 慶州通信」, 『彙報』, 『考古學雜誌』第三卷 第十一號, 考古學會. p.62.

7	1915	普門里 金環塚	삼국	추정 횡구식석곽묘 1기. 세환이식 1점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三.
8	1915	普門里 塚塚	삼국	추정 횡구식석곽묘. 합 2점 등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三.
9	1915	普門里 古墳 (1차)	삼국	적석목곽분 1기. 청동합 등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紀念會, 1976. 『黑板勝美先生遺文』
10	1915	東川里 瓦塚	삼국	횡혈식석실분 1기. 토기 뚜껑, 대부직구호, 기와, 철도자 등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三.

또한 1915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조선통치의 정당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발간하였고⁵⁰⁾, 1917년 이후부터는 『고적조사보고(古蹟調査報告)』와 『고적조사특별보고(古蹟調査特別報告)』가 발행되면서 선 발굴조사, 후 보고서 발간이라는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된다⁵¹⁾. 비록 초기에는 고적조사위원들의 출장복명서를 활자화해서 보고서로 발간한 것이지만 일본 국내와 같은 시기에 형식과 체재가 갖추어진 보고서가 발행된 점은 당시 고적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국주의적인 문화적 착취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세키노 타다시가 실시한 고적조사에서는 당시 최신의 고가장비였던 유리원판 사진기가 항상 동원되어 다양한 모습의 사진촬영이 이루어졌고, 발굴되거나 확인된 유적들을 도면에 기록하기 위해서 근대적인 투영기법으로 석실을 비롯한 유구와 유물들을 실측하였다. 이렇게 한국 고적조사연구에서 실측, 지형측량, 사진촬영이 결합된 조사법을 채용하게 된 것은 세키노와 그의 연구구성원들이 대부분 건축학을 전공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노부야(網伸也)와 우치다 요시아키(内田好昭)는 한국에서 세키노 타다시와 조선총독부 토목국 영선과(營繕課)에서 작성한 측량도와 실측도는 대상물의 정확한 형태와 등고선이 표현된 점을 지적하

50) 『朝鮮古蹟圖譜』는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고적조사연구 사업에서 조사된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수록한 초호화판 도록으로 1915년부터 1935년까지 연차적으로 발행되었다. 모두 1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록된 사진은 6,633장이다. 이 책자의 발간목적은 한국문화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물을 국·내외 여러 기관에 배포를 함으로써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총독통치를 정상적인 통치행위로 미화하면서 선정시책(善政施策)으로 미화하여 선전하는 역할이었다.

51) 조선총독부에서 고적조사와 관련된 최초의 보고서는 세키노 타다시·야츠이 세이이치·쿠리야마 순이치가 약보고 형식으로 1914년 9월에 제출한 것이다. 수록된 내용은 조선유적 일람(地方別), 조선중요유적 일람(時代別), 세키노 타다시 ‘조선문화의 유적(基 二)’, 야츠이 세이이치 ‘황해도 봉산군에 있어서 한 종족의 유적’으로 당시 조사한 유적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보고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朝鮮總督府 著, 出版科學總合研究所 影印, 1981, 『古蹟調査報告 大正三年度』朝鮮考古資料集成 13.

면서, 일본인 연구자가 본격적인 측량기술을 도입한 발굴조사는 일본에서의 조사가 아니라 세키노의 한국 고적조사연구였다고 평가하였다⁵²⁾. 결국 일본고고학에 있어서 새롭게 채용된 방법론은 당시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측면이 없지 않다.

3. 경주지역의 신라유적에 대한 인식과 발굴

1916년 7월10일 조선총독부는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8조(조선총독부령 제52호)를 시행하였고, 「고적조사위원회규정」11조를 정해서 고적조사위원회와 박물관협의회를 설치했다. 고적조사위원회 발족 당시에 임명된 고적조사위원은 조선총독부의 관계관 이외에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구로이타 가즈미(黑板勝美), 이마니시 류(今西龍), 도리이 류쥬(鳥居龍藏) 등과 같이 한국 고적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일본인 학자가 위원으로 우선적으로 위촉되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오다 쇼코(小田省吾),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 구도 쇼헤이(工藤壯平), 유맹(劉猛:중추원 찬의, 일진회 이론가), 유정수(柳正秀:중추원 찬의), 구희수(具義秀:교육)가 포함되었으며 간사는 오다 미기지로우(小田幹治郎)였다⁵³⁾. 이후 1931년에는 고적조사위원으로 야쓰이 세이이찌(谷井濟一), 우마즈카 제이치로(馬場是一郎)가 참가했으며 1932년에는 하마다 료샤쿠(浜田耕作), 하라다 요시히토(原田淑人),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가 새롭게 위원이 되는데, 이들 일본인 연구자 대부분은 한국의 유적과 문화를 연구한 당시 관학과 학자들을 대표한 인물들이었지만, 위원회에 참여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일진회나 중추원 찬의로 활동한 친일파들이었다.

한편 이때 발효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8조와 「고적조사위원회규정」 11조는 함께 나온 「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훈령)과 함께 고적조사에 있어서 조선총독부의 허가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임의적으로 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지웠지만, 뒤에 언급할 금관총의 사례처럼 우연한 발견에 따른 조사는 사실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16년부터 모든 발굴조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경주와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여러 고분군들과 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사천왕상 등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 도굴행위⁵⁴⁾와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단 발

52) 網 伸也·內田好昭, 2005, 「關野貞と日本考古學」, 『關野貞アジア踏査』東京大學コレクションXX,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pp.117~128.

53) 早乙女雅博, 1997, 「第七回朝鮮古蹟調査-扶餘と慶州-」, 「關野貞の朝鮮古蹟調査」, 『精神のエキスベデーション』東京大學出版會.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景仁文化社, pp.92~96.

굴조사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경주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도 이러한 풍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은 『신라구도 경주지(新羅舊都 慶州誌)』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서 전문적인 도굴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⁵⁵⁾. 하지만 이러한 도굴의 성행과 함께 한편으로는 고분의 분구에 사용된 흙을 채토하여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행위도 성행하게 된다⁵⁶⁾.

1916년에 실시된 고적조사는 낙랑, 고구려 관련유적들이 분포하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와 백제 관련유적이 위치한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가야 관련유적이 집중된 경상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17년부터 경상북도 성주 성산동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선산 낙산동고분군, 대구 달성고분군, 경상남도 창령 교동고분군, 김해패총, 함안 말산리고분군 등지에서 주로 가야고분과 산성 그리고 패총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김해패총의 경우 하마다 고우사쿠가 유럽에서 배워온 새로운 발굴조사법인 ‘계단식 발굴조사법’이 처음으로 실시된 유적으로 고고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적과 패각층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발굴조사가 잘못 시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⁵⁷⁾.

경주지역의 신라고분은 1918년에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가 보문리 고분을 발굴하고, 사천 왕사지 동서귀부가 위치한 지역을 지나가는 경철도 부지에 대한 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54) 1915년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과 1916년 2월에 경주에 거주하던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등이 유적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주 사천왕사지 서편목담을 도굴하고 녹유사천왕상을 채집한 사례를 들 수 있다.

稻田春水, 1915, 「朝鮮共進會美術館の一瞥」, 『考古學雜誌』第六卷 第三號, 考古學會, pp.66-67.

谷井第一, 1916, ‘○ 朝鮮 慶州發見釉埴(口繪解説)」, 『彙報』, 『考古學雜誌』第六卷 第八號, 考古學會, pp.53-54.

55) 奥田悌, 1920, 『新羅舊都 慶州誌』, 玉村書店.

56) 이와 같은 사례로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보문동고분군의 구릉지를 경작지로 만들면서 고분이 노출된 사례, 1926년 고이치미 아키오가 서봉총을 발굴하기 위해서 고분 분구 흙을 철도가설용으로 반출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小泉顯夫, 1927, 「慶州瑞鳳塚の發掘」, 『史學雜誌』第38編 第1號, 史學會.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蹟の遍歴』, 六興出版.

57) 文化廳文化財部, 1966, 『埋藏文化財發掘調査の手びき』, 國土地理協會, p.57.

배진성, 1999, 「金海 會峴里貝塚 층위확인조사」, 『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발표요지』, 전국역사학대회준비위원회, pp.419~432.

「표 4」 1916~1920년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

번호	조사 년도	유적명	시대	조사내용 및 참고문헌
1	1918	普門里 古墳 (2차)	삼국	적석목곽분 1기. 청동합 등 原田淑人, 1922, 『慶北道慶州郡內東面普門里古墳發掘調査及慶山郡清道郡金泉郡尙州郡慶尙南道梁山郡東萊郡諸遺蹟調査報告書』, 『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이후 신라고분에 대한 조사연구는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새롭게 진행되게 되었다⁵⁸⁾.

1921년 9월 24일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박문환 씨의 집을 증축하기 위한 공사도중 다량의 유물이 노출되었고, 이 유물은 경주경찰서 순사인 미야게 고우조우(三宅興三)가 발견하고 그 내용을 조선총독부와 경주고적보존회 회원인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에 알렸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에서 직원이 내려오지 않자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주경찰서장의 입회아래에서 모로가 히데오, 와타리 후미야(渡理文哉), 오사카 긴따로(大坂金太郎) 등 경주고적보존회 소속 회원들이 유물수습을 하였다. 작업이 완료된 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조선총독부에서 파견된 오가와 게이기치(小川敬吉)는 금관총 출토품에 대한 현장조사와 유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마치고 올라갔고, 10월 12일에는 하마다 료샤쿠(浜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가 도착해서 유물 발견 당시의 상황을 녹취한 후 그 내용에 근거해서 묘광 내 목곽 안에 금관을 비롯한 여러 중요유물의 출토상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잔존한 분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분구 표토층 밑에 점토층과 적석층이 있고 그 아래에 목곽이 존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⁵⁹⁾. 결국 적석목곽분의 내부구조와 부장유물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준 금관총에 대한 발굴조사는 적석목곽분의 특성상 발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 지역 고분군의 학술적 가치가 점차 인정되어지고 끊임없는 학자의 시선이 집중된 사실을 알려준다.”는 고이지미 아키오(小泉顯夫)의 말⁶⁰⁾처럼 경주에서 신라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금관총에서 노출된 유물들을 수습하기 위한 조사를 경주지역에 거주하던 경주고적보존회

58) 이하 경주지역 신라고분 조사내용은 다음 글에서 발췌하였다.

차순철, 2006, 「일제강점기의 신라고분조사연구에 대한 검토」, 『文化財』 第三十九號, 국립문화재연구소, pp.95~130.

59) 浜田耕作 · 梅原末治, 1924,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古蹟調査特別報告』 第3冊, 本文上册, 朝鮮總督府. 浜田青陵, 1932, 『慶州の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小泉顯夫, 1986, ‘金冠塚遺寶の發見と遺物の整理’, 『第一章 新羅の古墳を掘る』, 『朝鮮古代遺蹟の遍歴』, 六興出版. pp.14~26.

60) 小泉顯夫, 1927, 『慶州瑞鳳塚の發掘』, 『史學雜誌』 第38編 第1號, 史學會.

원들이 실시한 점에 대해서 ‘신라왕릉의 발견’과 당시의 황사에 의한 기상악화로 경주 주민들의 민심이 심하게 동요되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지만⁶¹⁾, 이미 1916년 2월에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가 사천왕사지 서탑지 북서편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녹유사천왕상 등을 수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부분을 관련 연구자가 내려오지 않아서 유물수습을 했다는 오사가 긴따로의 이야기만을 믿기에는 조금 주저된다. 다만 조선총독부와 지방과의 연락에 혼란이 있었다는 점과 출토품에 대한 관리가 당시 경주군청과 경찰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은 나름대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점이라고 볼 수 있다.

1924년 5월10일~6월3일에는 금령총(金鈴塚)이, 5월10일~6월13일까지는 식리총(飾履塚)이 발굴조사 되었다⁶²⁾. 이 발굴조사는 경주고적보존회원인 모로가 히데오가 경주를 방문한 사이또 마코토(齊藤實) 총독에게 청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금관총에 대한 발굴조사 후 이루어진 이 조사를 통해서 적석목곽분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조사방법의 터득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한편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노동동 4호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⁶³⁾, 금관총과 마찬가지로 주택 건설 중 발견된 고분에 대한 수습조사로 이루어졌다.

관동대지진의 영향으로 시작된 행정기구 축소정책으로 인하여 1924년 가을에 고적조사과는 갑자기 폐지되었다. 이 영향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의 예산으로만 발굴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던 중 1926년 5월 대구-경주-울산-부산을 잇는 동해남부선로의 협궤철도의 폭을 넓게 보수하면서 용지매립에 필요한 흙을 채토하는 장소를 황남동고분군의 주변인 황남동 40·44번지, 43번지 일대로 정하고 토취작업을 하다가 많은 양의 토기와 토우가 발견되어 긴급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확인된 고분은 수혈식석곽묘(竪穴式石槨墓)로 지금까지 알려진 신라묘제인 적석목곽분과는 규모와 형태에서 달랐다⁶⁴⁾.

1926년 5월 대구-경주-울산-부산을 잇는 동해남부선로의 협궤철도의 폭을 넓게 보수하면서 용지매립에 필요한 흙을 채토하는 장소를 황남동고분군의 주변으로 정하고 작업하다가 많은 양의 토기와 토우가 발견되었다. 확인된 고분의 구조는 수혈식석곽묘(竪穴式石槨墓)로 지금까지 알려진 묘제와는 다른 것이었다. 특히 다수의 고분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고이지미 아키오(小泉顯夫)는 경주역 건설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노서동 129호분(瑞鳳塚)의 분구를 제거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조사방법은 분구 상부의 표토부터 점차

61) 大坂六村, 1931, 「十. 金冠塚」, 『趣味の慶州』, 慶州古蹟保存會, pp.52~70.

62) 梅原末治, 1932,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本文」, 『大正十年度古蹟調査略報告 第一冊』, 朝鮮總督府.

63) 國立中央博物館, 2000, 『慶州 路東里四號墳』.

64) 국립중앙박물관, 2009, 『경주 황남동 출토 신라토우 영원을 꿈꾸다...』

아래쪽으로 순차적으로 파내러가는 방법을 취했는데, 그 결과 적석 아래에서 목곽부분을 쉽게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분구의 흙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바깥 호석열이 확인되었고 남분(瑞鳳塚)⁶⁵⁾과 북분(데이비드塚)⁶⁶⁾이 서로 연결된 표형분으로 밝혀졌다. 노서동 129호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초대형 적석목곽분의 구조가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외호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표형분의 중복관계가 처음으로 밝혀짐으로써 신라고분의 상대편년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확인되었다. 1924년과 26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결과 적석목곽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분구 전체에 대한 제거작업과 호석의 노출을 통한 시기구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점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조사방법으로 계속 이용되었다. 하지만 고이지미가 발굴조사 한 노서동 129호분은 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되지 못함으로써, 식민지고고학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평양의 낙랑고분을 발굴조사 한 동경대학 문학부까지 이어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1929년에는 노서동고분군의 범위 내에서 파괴된 황혈식석실분 1기(노서동 131호분)가 발굴조사 된다. 적석목곽분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평지에서 최초로 확인된 황혈식석실분으로 우메하라 스에지가 조사하던 것을 고이지미 아키오가 마무리했다⁶⁷⁾.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했던 마총(노서동 133호분)과 구분되는 고분으로 노서동 137호분(쌍상총)과 함께 평지 석실분의 존재를 알려준다. 특히 적석목곽분에서 황혈식석실분으로 묘제가 시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65) 田中萬宗, 1930, 『朝鮮古蹟行脚』, 泰東書院.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蹟の遍歴』, 六興出版.

穴澤味光·馬目順一, 2007, 「慶州瑞鳳塚の調査」-梅原考古資料と小泉顯夫の回想とづく發掘狀況の再現と考察-.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刊行委員會, pp.615~670.

66) 1929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영국인 퍼시벌 데이비드(Sir Percival Victor David Ezekiel David)의 기부금 3천원을 慶州古蹟保存會로 이관시켜서 고분발굴조사에 따른 조사비를 집행하게 하였다. 퍼시벌 데이비드는 영국 Percival David Foundation의 창립자로 중국 도자기 수집가이며, 영국 런던대학의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의 기부자이다. 데이비드塚의 보고서는 노서동 129호분(서봉총)과 함께 발간되지는 않았다. 중요한 출토유물은 新羅土器 數十點, 銀製馬具破片, 刀子, 蜻蛉玉(잠자리구슬), 鳳凰을 밀타화로 그린 漆器破片, 純金製耳飾, 紫玻璃玉, 翡翼曲玉, 純金鑿釧, 純金指輪 여덟 개 등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穴澤味光, 2007, 「慶州路西洞「デイヴィッド塚」の發掘」-「梅原考古資料」による-, 『伊藤秋男先生古稀記念考古學論文集』

67) 有光教一, 1955, 「慶州邑南古墳群について」, 『朝鮮學報』8輯, 朝鮮學會.

「표 5」 1921~1930년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

번호	조사 년도	유적명	시대	조사내용 및 참고문헌
1	1921	金冠塚 (路西洞128號墳)	삼국	적석목곽분 1기. 浜田耕作·梅原末治, 1924,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古蹟調査特別報告』第3冊, 本文上冊, 朝鮮總督府. 浜田青陵, 1932, 『慶州の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2	1921	外東面 入室里遺蹟	원삼국	원삼국시대 분묘 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顯夫, 1924,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大正十一年度 古蹟調査報告 第二冊』, 朝鮮總督府.
3	1922	四天王寺址 望德寺址 皇龍寺址 昌林寺址	삼국 ~ 통일 신라	삼국~통일신라시대 폐사지 4 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顯夫, 1924, 「慶尙南北道忠清南道古蹟調査報告」, 『大正十一年度 古蹟調査報告 第一冊』, 朝鮮總督府.
4	1924	金鈴塚 (路東洞127號墳)	삼국	적석목곽분 1기. 梅原末治, 1932,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本文」, 『大正十年度古蹟調査略報告 第一冊』, 朝鮮總督府.
5	1924	飾履塚 (路東洞126號墳)	삼국	적석목곽분 1기. 梅原末治, 1932,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本文」, 『大正十年度古蹟調査略報告 第一冊』, 朝鮮總督府.
6	1924	玉圃塚 (路西洞4號墳)	삼국	적석목곽분 1기. 國立中央博物館, 2000, 『慶州 路東里四號墳』
7	1926	皇南洞古墳群	삼국	다수의 고분 조사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蹟の遍歴』, 六興出版.
8	1926	瑞鳳塚 (路西洞129號墳)	삼국	적석목곽분 1기. 小泉顯夫 1927 「慶州瑞鳳塚の發掘」, 『史學雜誌』第38編 第1號, 史學會.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蹟の遍歴』, 六興出版.
9	1929	데이비드塚 (路西洞129號墳)	삼국	적석목곽분 1기. 田中萬宗, 1930, 『朝鮮古蹟行脚』, 泰東書院.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蹟の遍歴』, 六興出版. 穴澤咏光, 2007, 「慶州路西洞「 데이비드塚」의發掘」-「梅原考古資料」による-, 『伊藤秋男先生古稀記念考古學論文集』
10	1929	路西里 石室墳 (路西洞131號墳)	통일 신라	황혈식석실분 1기. 有光教一, 1955, 「慶州邑南古墳群について」, 『朝鮮學報』8輯, 朝鮮學會. 伊藤秋男, 1976, 「韓國慶尙北道善山古墳郡(1)」, 『人類學研究所紀要』第5號, 南山大學人類學研究所.

하지만, 신라의 왕릉급 대형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결과 경주는 평양의 낙랑유적과 함께 조선의 문화유적의 보고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유적은 모두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금관총을 비롯한 여러 유적들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는 초호화관 양장

본으로 제작되어 국내외 각처로 보내졌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앞서 이루어진 『조선고적도보』의 발행과 동일한 목적이었던 조선총독부의 문화시정정책을 선전 고양하던 수단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1930년부터 45년까지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는 이전과 달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 먼저 시가지의 확대와 각종 건설공사에 따라서 황남동, 사정동, 서악동 일대에 소재한 여러 고분들이 발굴조사가 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서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는 고적조사사업은 재정난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얼마 후 조선고적연구회가 발족되고 여러 곳의 기부금을 수령하면서 고적조사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주관하던 모습에서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고적연구회는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주도로 1931년 8월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궁내성(宮內省), 일본학술진흥회(日本學術振興會), 귀족들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으며,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사무국을 두고 경주와 평양 그리고 부여에 각각 연구소를 설치한 후 지역 별 고적조사를 실시하였다. 1931년 설치된 경주연구소에는 아리미즈 료이찌(有光教一) 연구원과 조수 1사람이 근무하면서 각종 고적조사를 맡게 된다⁶⁸⁾. 이때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에 있어서 일본 궁내성의 하사금과 기타 보조금은 경주연구소의 신라문화 연구사업에 충당하였고, 일본학술진흥회의 보조금은 오로지 평양의 낙랑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에 사용하였다. 1931~45년까지 경주지역에서 발굴된 신라고분은 이전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에 힘입어서 조사대상과 내용, 발굴기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조사된 고분을 살펴보면 시내지역인 황남동, 황오동일대의 적석목곽분을 비롯하여 충효동과 서악동의 횡혈식석실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신라 묘제의 다양성과 여러 기의 분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평양과 경주에 연구소가 설치되었다. 경주연구소에는 1931년부터 1933년까지는 아리미즈 료이찌가, 1934년부터는 사이토 타다시(齊藤忠)가 조수로 있으면서 조사를 담당했다.

이 시기에는 전 시기와 같은 대형고분은 조사하지 못했고, 그 주변의 중소형 고분이 주요 발굴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의 중소고분의 발굴을 통해서 다곽분(多槨墳)과 같은 대형고분과는 다른 구조의 고분의 존재가 밝혀졌지만, 대부분의 조사는 학술발굴이 아니라 고분 파괴를 막기 위

68) 아리미즈 료이찌(有光教一)는 조선고적연구회 경주연구소에서 조수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사람은 조수 1명이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조선고적연구회 관련문서에는 아리미즈 료이찌를 1931년 9월 8일자로 전임연구원 발령을 촉탁을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본인은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有光教一·藤井和夫編, 2000, 「慶州皇吾里16號墳發掘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遺稿 I』, 東洋文庫. p.2.

한 구제발굴조사였다. 하지만 1931~45년까지 경주지역에서 발굴된 신라고분은 이전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에 힘입어서 조사대상과 내용, 발굴기법에 있어서 전대에 비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⁶⁹⁾. 그러나 횡혈식석실분의 경우에는 출입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한계를 지나고 있다. 이외에도 경주읍의 발전에 따른 건물지와 절터 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며, 경주남산에 소재한 불상과 탑들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 등도 이루어지면서 점차 조사대상이 다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고적연구회는 발굴조사 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모든 유물을 귀속시킨 것이 아니라 조선고적연구회 이사장의 판단에 의해서 동경제실박물관(현 동경국립박물관)이나 개인에게 유물을 기증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 반으로 나뉘어서 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⁷⁰⁾. 출토유물에 대한 보관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점은 결과적으로 조선고적연구회의 운영취지가 학술조사로 보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고적조사연구는 시작단계부터 일본 메이지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식민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고고, 미술, 건축, 인류학, 민속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때 이루어진 조사연구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경주, 부여, 공주, 평양, 함안, 김해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었고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왜곡된 시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당시 발굴조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은 개인 연구자에서 점차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가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재정지원이 줄자 민간지원에 의한 박물관 연구원 중심의 조사로 변화한다. 하지만 조선총독부가 행한 발굴조사 외에도 유물을 수집하기 위한 개인들의 발굴도 이루어졌지만 이는 대부분 개인 수장을 목적으로 하는 도굴행위였다.

69) 분구와 호석에 대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발굴조사가 되었고, 표형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고분들 사이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70) 아리미즈 교이치에 의하면 경주 노서동 215번지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1934년 조선고적연구회 이사장인 이마이다 키요노리(今井田清徳)의 기증에 의해서 동일유물이라도 반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반은 동경제실박물관에 보관되었다고 한다.

有光教一·藤井和夫編, 2000, 「慶州路西里215番地古墳發掘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遺稿 I』, 東洋文庫, p.131 註2 참조.

IV. 마치며

근대 초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의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수집활동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를 비롯한 일본인 관학과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886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일본 연구자들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조사 성과를 거두었고, 학문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조사연구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을 거두었다. 그것은 후지다 고우사쿠가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 환경을 비교하면서 고고학연구를 위한 발굴조사가 일본에서는 매우 드물었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방법의 완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조선)반도의 땅에 새로운 조사방침을 확립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학문의 발전을 거두기 위한 시험장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이용되었고, 그들의 고고학 연구를 위한 실습장소로서 이용되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당시에 이루어진 고적조사연구는 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문화통로를 밝혀냈지만, 이 모든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본인 연구자 자신이었다. 학술조사와 정보에서 배제된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조작하고 편집한 내용을 출판물로 전달받고,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여야만 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적조사연구는 일본인들 스스로의 학문연구능력은 높여주었을지는 몰라도 문화유산이 속한 한국인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일부 소수의 한국인들이 이러한 고적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단순노무작업과 회계 처리업무였고 학술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현장조사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결국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1945년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국립박물관을 맡은 김재원 박사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책임자로 한국에 잔류했던 일본인 연구자 아리미즈 교이치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시키면서, 발굴조사 방법과 고적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물려받게 되었다.

1921년 금관총 발굴조사와 1926년 서봉총 발굴조사 이후 경주지역의 대형 적석목곽분은 화려한 금관과 금제품을 비롯한 출토유물로 주목을 받게 되지만, 전국 각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유적들에 대한 보고서 발간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미발간 보고서가 간행되었지만, 서봉총과 같은 중요 고분에 대한 보고서가 아직 출판되지 못한 점은 당시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고적조사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과 정보가 이후 일본 고고학계에 새롭게 접합되어 조사내용이 향상된 점은 당시 일본고고학이 경험한 고적조사연구의 최대성과라 말할 수 있다⁷¹⁾.

71) 浜田耕作, 1935, 「朝鮮に於ける考古學的調査研究と日本考古學」, 『日本民族』, pp.443~461.

이상과 같이 일본인 연구자들은 1886~1945년까지 신라고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행하였다. 이들은 초기에는 메이지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한국이 식민지화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고고, 미술, 건축, 인류학, 민속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조사를 하였다. 이들이 신라고분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조사한 목적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경주, 부여, 공주, 평양, 함안, 김해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었고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왜곡된 시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난 근대~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고적조사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시에 조사된 여러 조사내용들을 재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 고고학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吉井秀夫, 2006, 『植民地朝鮮における考古學的調査の再検討』平成15年度~平成17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成果報告書.

吉井秀夫, 2009, 「일본 고고학사에서 본 조선고적조사사업과 조선총독부박물관」, 『시대와 함께 한 博物館, 博物館人』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세미나,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사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토론문

이 순 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라사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라는 큰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신 차순철 선생님은 이미 이 분야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셨고, 현재 현장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기에 누구보다 이 주제에 대한 명쾌한 의견이 있으시리라 생각되며, 그러한 점들이 이 논문에서 잘 드러나 있다고 보아집니다. 전체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자료의 적용 및 해석 부분에서는 저 또한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의 소임을 다해야 하기에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몇 가지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제 임무를 다하려 합니다.

먼저, 논문의 제목에서 ‘성과와 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주체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신중히 사용해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총독부가 바라본 ‘성과와 한계’와, 그 ‘성과’라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과 한계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고고학적 방법론의 측면과 역사 해석의 적용 혹은 인식의 측면은 구분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신라사 연구에 고적조사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논문에서 언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하마다[濱田]은 “조선에서의 조사 연구는 그 조사결과와 내용이 일본 고고학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연구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견해는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일본인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며 왜 일본고고학에서 새롭게 채용된 고고학적 방법이 식민지 본국이 아닌 피식민국가였던 한국

에서 적용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성과'라기보다는 '실험대상' 혹은 '이용'의 측면이 훨씬 많았을 것이며, 이러한 점은 그 사업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할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오늘 발표하신 논문의 논지가 좀더 풍성하게 전개되려면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에 관여했던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개별연구라고 보아집니다. 일본인 가운데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을 비롯한 몇몇 인물에 대한 연구는 일본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는 연구가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인 가운데는 고적조사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유관기관에서 활동한 劉猛, 柳正秀, 金漢陸 등등의 인물이 있으며, 이 외에 조선 총독부박물관에서 근무했던 인물들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개별 연구를 통해 일제시기 고적조사사업에서 한국인들의 역할 및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쩌면 해방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성격 규명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리라 기대해보는 혹시 이런 면에 대한 연구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엽적인 것이긴 한데, III장 3절에서는 경주지역의 신라유적에 대한 인식과 발굴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내용에서는 인식 부분보다는 발굴조사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서 서술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오늘 이 학술대회의 전체적인 주제와의 관련성이 좀더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표 1】에서는 제4기에 식민통치의 정당성 홍보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이미 보고서는 1916년부터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었기에 이 시기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기를 1930년을 시작점으로 잡았는데,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을 기준으로 고적조사사업의 주체와 성격이 변화하였음을 고려한다면, 1931년으로 정리함이 타당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의 신라 금석문 연구

장 일 규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1. 머리말

신라는 한국 역사상 천년 동안 유지된 왕조로,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여 찬란한 민족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신라는 일찍부터 많은 역사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신라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는 신라가 멸망한 직후인 고려 초부터 시도되었다. 그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편찬에 반영되었고,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고조선과 고구려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문화의 연원을 찾아나가면서 신라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신라사는 조선을 식민 지배하였던 일제의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은 근대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해 낙랑,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국고대사 연구에 집중하였다. 그들은 처음에 주로 신라사 연구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다가 점차 낙랑, 고구려, 백제에 관심을 가졌다. 신라사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그들은 신라사의 각 분야에서 실증사학적 모델을 구축해 놓았다. 특히 신라의 고분, 성, 사찰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탁본으로 남아 있거나 문혀 확인되지 못했던 금석문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금석문은 전해진 기록을 선택하여 편찬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보다 당시의 모습을 확연하게 알려준다. 곧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밝혀지지 않았거나 잘못 기술된 부분은 금석문에 의해서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제강점기의 신라 금석문 연구는 한국고

대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¹⁾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연구자들은 신라 금석문을 적지 않게 다루었다. 다만 그것은 대체로 고적조사와 병행되어 이루어졌으므로, 지금까지 그에 대한 이해는 고적조사의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려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글은 고적조사와 함께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신라 금석문 조사 과정과 그에 대한 연구 내용을 시대순으로 다루어 연구의 특징을 제시해보려는 것이다.

먼저 일제강점기 일제의 조선 고적조사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연구자들이 주로 신라 금석문을 다루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라 금석문을 주로 다룬 연구자들이 금석문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일본인 연구자들의 신라 금석문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가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는 여러 학술지에 흩어져 전한다. 이러한 글을 모두 一讀하는 결코 쉽지만은 않다. 앞으로 이 글은 계속 보완될 예정이다.

2. 일본인 연구자의 신라 금석문 조사

금석문은 금속이나 돌에 새겨진 글을 말한다. 그것은 금속으로 만든 용기나 무기·印章·造像·梵鐘 등에 새겨진 金文과 돌에 새겨진 碑文·墓誌·造像記 등의 石文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외에 甲骨이나 木簡·土器·기와·벽돌에 새겨진 문자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금석문 수집과 연구는 조선 선조의 아들이자 서화가인 李儼(1637~1693)가 편찬한 『大東金石書』에서 비롯되었다. 모두 7책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신라진흥왕순수비부터 조선 숙종 때까지 전해지는 금석문의 榻本이 수록되었다. 특히 신라의 금석문으로는 黃草嶺碑·金仁問墓碑·景德王碑·芬皇寺碑를 포함한 여러 榻本이 게재되었다.

그 뒤 조선 영조 때 金在魯(1682~1759)가 고려와 조선의 榻本을 246책으로 모아 『金石錄』을

1) 신라 금석문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張忠植, 「新羅金石文 調査研究의 現段階」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5, 1991.

早乙女雅博, 「新羅の考古學調査: 「100年」의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39, 2001.

李基東, 「百濟史와 新羅史 연구의 새로운 進展—금석문 및 木簡 자료에 의한 성과」 『東國史學』37, 2002.

金昌鎬, 「古新羅 金石文의 研究 成果와 그 課題」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23 新羅 金石文의 現況과 課題, 2002.

간행하였고, 金正喜(1786~1856)가 황초령과 비봉에 있는 신라진흥왕순수비를 판독하고 해설하여 1852년(철종 3) 경에 『金石過眼錄』1책을 간행하였다. 나아가 吳慶錫(1831~1879)은 1858년(철종 9)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금석문의 목록과 금석문 판독문을 실은 『三韓金石錄』1책을 발간하였다. 한편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洪良浩, 徐有槩, 李灑, 安鼎福, 趙寅永, 丁若鏞 등도 그동안 전해지던 금석문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1831년(순조 31)에 청나라 사람인 劉燕庭이 조선에서 전해진 삼국과 고려 금석문의 답본을 모아 『海東金石苑』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신라 금석문의 수집과 연구는 17세기부터 시작되어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일본은 1867년에 막부가 쓰러지고 왕정이 복고되면서, 부국강병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일방적인 관주도의 자본주의 육성과 함께 군사력 강화를 꾀하였다. 특히 일본의 군부는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면서 주변 나라에 대한 침략 의도를 점차 드러냈다. 이들은 1894년~1895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1905년의 러일전쟁의 승리를 토대로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모색하였다. 이 때 일제는 원활한 식민 지배를 위해서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제의 신라 금석문 수집도 이와 함께 진행되었다.

「표 1」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려는 야욕을 내세우면서 병합하고 지배했던 1900년부터 1945년까지 신라 금석문을 조사·연구하였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기로 하자.

「표 1」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의 신라 금석문 조사 및 연구 현황²⁾

시기	주관	연구자	조사·연구 내용
~1909	동경제대, 통감부 탁지국	八木奘三郎·關野貞 ·鳥居龍●(+++臧-뉘) ·今西龍·谷井濟一 ·栗山俊一	* 1902 관야정, 경주부터 해인사까지 조사 경주 읍성, 월성, 분황사, 오릉, 불국사, 백률사, 봉덕사범종 조사 * 1906 금서릉, 경주 형산강 평지의 고분 조사 * 1909 관야정, 경주 고분 조사 * 무열왕릉비, 종각봉덕사종 조사
1910~1920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 내무부 학무국 편집과, 총무국 총무과	關野貞·鳥居龍●(+++臧-뉘)·今西龍·谷井濟一·栗山俊一·小田幹治郎·後藤慶二·黑板勝美·小場恒吉·野守健·小川敬吉·原田淑人·浜田耕作·池内宏·梅原末治·小田省吾	* 1910 매년 전국의 건축·고분·城址·寺址 조사(~1915) * 관야정·곡정제일·울산준일, 해인사 조사 * 1911 관야정 등, 경주 고분 조사 * 조거용장, 사료조사 시작, 관야정은 고적조사를전담 * 1913 곡정제일, 경주 명활산성터, 남산성터 답사 * 경주고적보존회 발족 * 1914 곡정제일, 창녕 진흥왕순수비 발견 * 1915 조거용장, 경주 반월성 발굴 * 관야정 등, 경주 고분 발굴

2) 早乙女雅博, 「新羅の考古學調査「100年」の研究」『朝鮮史研究會論文集』39, 2001를 주로 참고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관승미, 경주 명활산성 주변 고분 발굴 * 조선총독부박물관 개관 * 1915~1917 『朝鮮古蹟圖譜』1~5책 발간 * 1916 ‘古蹟及遺物保存規則’ 시행 * 금서룡, 북한산 신라진흥왕순비 조사 * 1917 금서룡, 낙동강 주변 가야 지역 조사하면서 진흥왕척경비 조사 * 1918 원전숙인, 사천왕사터 조사 * 1919 『朝鮮金石總覽』 발간
1921~1930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 조선총독부 박물관, 학무국 종교과, 동경제대	關野貞·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顯夫·小田幹治郎·谷井濟一·馬場是一郎·鮎貝房之進·末松熊彦·小場恒吉·小川敏吉·原田淑人·野守健·神田惣●(+++臧-另)·小田省吾·田中十●(+++臧-另)·樫本龜次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1 경주 금관총 발굴 * 1922 소천현부·매원말치·등전양책, 경주 월성, 사천왕사터, 망덕사터, 황룡사터, 창림사터 조사 * 1923 소장항길·소천현부, 경주 남산 조사 * 소천경길, 분황사 조사 * 1924 경주 금령총, 식이총 발굴 * 1925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 개관 * 1926 경성제대 개교 * 경주 서봉총 발굴 * 1928 진중십장, 경주 남산 1:5000 실측도 제작 * 1929 매원말치·소천현부, 경주 고분 조사 * 朝鮮修史會 축탁 최남선 마운령 신라진흥왕순비 발견
1930~1945	조선고적연구회	黑板勝美·小田省吾·浜田耕作·原田淑人·馬場是一郎·池内宏·梅原末治·有光教一·小泉顯夫·藤田亮策·樫本龜次郎·今關光男·杉原莊介·藤島亥治郎·天沼俊一·鮎貝房之進·小場恒吉·松本榮一·矢島恭介·濱本助千代·澤俊一·田窪眞吾·齋藤忠·三上次男·關根龍·米田美代治·末松保和·藤澤一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1 조선고적연구회 설립 * 조선총독부 경주분관 내 경주연구소 설립 * 유광교일, 경주 황남동 고분 발굴 * 1932 유광교일, 경주 충효동·황오동 고분 발굴 * 1933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제정 * 1933~1936 유광교일·재등총, 경주 서악동, 황오동, 황남동, 노서동 등 고분 발굴 * 1934 남산신성비와 임신서기석 발견 * 1936 경주 남산 석불 조사 * 1937 재등총, 경주 건물터 조사 * 『古蹟調査報告』 완간

1900년 이전에 조선의 고적은 몇몇 개인 소장가에 의해서 일본에 알려졌다. 하지만 1900년 이후부터는 동경제국대학이 주관하여 조선의 고적을 본격적으로 조사하였다. 당시 이러한 조사는 이과대학에 소속된 팔목장삼랑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 뒤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에 있던 관야정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의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였다. 그는 1902년에 경주부터 해인사까지의 지역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경주의 읍성과 월성, 분황사, 오릉, 불국사, 백률사 등 신라의 주요한 성곽과 사찰, 고분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봉덕사 범종도 조사하였다.

당시 경주의 고적조사는 월성을 중심으로 이미 알려진 유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황사

와 불국사는 경주의 대표적인 사찰로 알려져 있었고, 오릉과 월성은 신라 왕실의 유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다만 봉덕사 범종에 대한 조사는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平子鐸嶺이 1905년에 「朝鮮古鐘について」³⁾를 통해 조선의 범종을 소개한 이래, 大道弘雄은 1911년에 연이어 조선의 범종을 고찰하였다.⁴⁾ 이후 1916년에도 稻田義助가 범종을 살폈으며,⁵⁾ 1925년에는 고고학회에서 조선 범종에 대한 사진집도 발간하였다.⁶⁾ 일본인 연구자는 19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조선의 범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일본에 몇몇의 조선 종이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745년(경덕왕 4)에 思仁 大角干이 만든 ‘无盡寺鐘’이 일본의 대마도 하현군 國府八幡宮에 걸려 있다가 명치 초년의 神佛分離 때 깨어져 없어졌고, 833년(흥덕왕 8)에 진주의 蓮池寺에서 만들어졌던 ‘연지사종’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약탈해 佛正院 常宮神社에 소장되었다. 856년(문성왕 18)에 만들어진 ‘窺興寺鐘’도 일본 대마도 상현군 海神社에 소장되었다가 역시 신불분리 때 파괴되었다. 그리고 904년(효공왕 8)에 松山村 大寺에 걸렸던 ‘송산촌대사종’ 역시 일본 구주 대분현 宇佐神宮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연지사종’과 ‘송산촌대사종’은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무진사종’과 ‘규흥사종’은 탁본만이 남았다. 일본에는 이미 4기 이상의 범종이 대마도와 구주, 佛正 등으로 옮겨져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 연구자들은 이들 종과 함께 당시 조선이 있었던 종을 비교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규모가 큰 봉덕사 범종을 조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실시한 관야정(1867~1935)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였던 일본의 대표적인 미술사학자였다. 그는 1901년에 동경제국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뒤 바로 조선에 들어와 건축을 중심으로 여러 고적을 조사하였다. 1904년에는 동경제국대학공과대학학술보고 제6호로 『韓國建築調査報告』를 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선의 지세와 기후, 지질, 역사, 종교, 사회 등 총설과 함께 경주와 개성, 한성 등의 주요 유적,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요 사찰, 능묘, 교량 등이 각각 조사·서술되었다.⁷⁾ 관야정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실시된 신라 유적에 대한 조사를 정리하여, 이후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에 사실상 기초를 만들었다. 그 뒤 그는 1909년부터 1915년까지 경주에 흩어져 있는 고분을 주로 조사하면서 1909년에 「韓國慶州に於ける新羅時代の遺跡」⁸⁾을 발표하였고, 1917년부터는 평안도 일대를 돌며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였다.

관야정 이후에 신라 금석문에 대한 수집은 금서룡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물론 이 때 조거용장

3) 『考古界』5-3, 1905.

4) 大道弘雄, 「朝鮮鐘考」(一) 『考古界』8-12, 1911 ; 「朝鮮鐘考」(二·三) 『考古學雜誌』1-2·5, 1911.

5) 稻田義助, 「朝鮮の梵鐘について」 『考古學雜誌』6-3, 1916.

6) 考古學會 編, 『朝鮮鐘寫真集』, 考古學會, 1925.

7)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33~39쪽.

8) 『東洋協會調査部學術報告』1, 1909.

이나 곡정제일도 경주의 유적을 조사하였다. 동경제국대학에 소속된 조거용장은 원래 1905년부터 압록강, 요하 주변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였다가 1911년부터 고적조사보다는 사료조사를 전담하였다. 곡정제일은 1910년부터 관야정·울산준일과 함께 팀을 이루어 경주의 고분을 비롯한 전국의 유적을 조사하여 1915년~1917년에 『朝鮮古蹟圖譜』1~5책을⁹⁾ 간행하는데 참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에 전국의 건축과 고분, 성터와 절터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1915년까지 계속되었고, 그 결과를 엮은 것이 바로 『조선고적도보』였다. 다만 당시의 조사는 전국에 걸쳐 가능한 모든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특별히 금석문에 관심을 더 둘 수는 없었다.

금서룡(1875~1932)은 1906년에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대학원생으로 경주에 와서 형산강 주변의 고분을 조사하였다. 그 뒤 학업을 마친 그는 19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신라의 금석문을 조사하였다. 1916년에는 북한산의 신라진흥왕순수비를 조사하였고, 이듬해에는 낙동강 주변의 가야 지역을 조사하면서 1914년에 곡정제일이 조사한¹⁰⁾ 창녕의 진흥왕척경비를 직접 확인하였다. 이러한 금석문에 대한 조사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와 학무국 편집과, 그리고 총무국 총무과의 명령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이 책은 大正 2년(1913)부터 5년(1916)까지 本府(朝鮮總督府) 參事官室에서 수집한 拓本에 의거하여 조선의 금석문을 편찬한 것이다.

1. 금석의 종류는 碑碣, 墓表, 謚冊, 墓誌, 石標, 石幢, 石刻, 石經과 그 외에 鐘, 佛像, 塔, 燈, 幢竿, (幢竿)石柱, 香爐, 舍利盒, 鏡 등으로, 年時は 漢置郡 때부터 韓國 때까지이다.

1. 지금 있는 금석문에서 고려 이전과 조선 초기에 속하는 것은 書籍, 舊拓本 등에 의거하여 간략히 채록해서 각 시대의 뒷부분에 附錄으로 두었다.

대정 8년(1919) 3월 조선총독부

『朝鮮金石總覽』은¹¹⁾ 1919년 3월에 조선총독부가 1913년부터 1916년까지 4년 동안 조사한 탁본 1천 여점을 간추려 만든 금석문의 총서이다. 여기에는 한나라의 군현이 설치되었던 때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금문과 석문이 망라되어 있다.

1913년에 조선총독부는 경주고적보존회를 발족하여 절터와 석탑 등을 비롯하여 신라 역대왕릉과 신라의 고분 22기를 대상으로 고적의 수리·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해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일제는 경주의 유적·유물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 때 금서룡은 관야정 팀에 들어가 고적

9) 朝鮮總督府 編, 1915~1917.

10) 谷井濟一, 「朝鮮昌寧古碑の發見」 『考古學雜誌』4-9, 1914.

11) 朝鮮總督府 編, 1919.

조사에 참여하였다.

1916년에 조선총독부는 박물관을 개관하고 ‘古蹟及遺物保存規則’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조선 내의 문화재는 모두 조선 안에 보존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박물관에서 조사와 보존, 진열의 사무를 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면서 부칙을 두어 고적과 유물의 개념과 종류를 정하고 고적 및 유물의 대장을 비치하며,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등록하도록 하였고, 특히 고적과 유물을 발견하면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 내의 유물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반도 통치의 문화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았다.¹²⁾ 이를 위해서 이전부터 조선의 고적 조사를 실시했던 일본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고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고적금유물보전규칙’은 전국의 많은 유적을 조사하고 등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매년마다 그 조사 내용은 조선총독부에 보고되었고, 조선총독부는 1916년에 『大正三年度古蹟調査報告』, 1918년에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를 발간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조선금석총람』은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진행된 금석문 조사 사업의 결과를 이러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이 책은 경술국치 이전부터 실시되었던 조선 고적조사의 내용은 물론 1910년 이후 1919년까지 진행된 전국 유적·유물 조사 내용 가운데 금문과 석문을 총망라하여 수록한 총서가 되었다.

금서룡은 1913년부터 조사 작업에 참여하여 1916년과 1917년에 잇달아 진흥왕순수비에 관심을 가졌다. 진흥왕순수비에 대한 관심은 內藤虎次郎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1911년에 「新羅眞興王巡狩碑考」를 발표하였다. 그 뒤 津田左右吉과 淺見倫太郎이 1913년과 1914년에 각각 「眞興王征服地域考及び眞興王について」와 「北漢碑峰上に在る千百年前の古蹟」을 써서 진흥왕순수비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¹³⁾ 금서룡은 1916년~1917년에 북한산과 창녕의 진흥왕순수비(적경비)를 조사한 이후 1918년부터 1921년까지 연이어 이 비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¹⁴⁾ 그는 이미 1918년에 간행된 『대정5년도고적조사보고』에 북한산 진흥왕순수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이 실시되면서, 신라 금석문에 대한 수집은 『조선금석총람』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뒤에 진행된 연구는 사실상 금서룡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그는 금석문 조사의 결과와 분석을 『新羅史研究』에 실었다.¹⁶⁾

12) 이순자, 앞의 책, 2009, 71~89쪽,

13) 津田左右吉, 「眞興王征服地域考及び眞興王について」 『朝鮮歴史地理』1, 1913 ; 淺見倫太郎, 「北漢碑峰上に在る千百年前の古蹟」 『朝鮮』120, 1914.

14) 今西龍, 「京畿道高陽郡北凌山遺蹟調査報告書」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1918 ; 「眞興王拓境碑」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20 ; 「新羅眞興王巡狩管境碑考」 『考古學雜誌』12-11, 1922.

금서룡 이후의 신라 금석문 연구는 특정한 대상을 두고 진행되지 않았던 듯하다. 그것은 1921년에 금관총에서 금관이 발견되면서 경주의 고적조사가 대체로 고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곧 뒤에 제시한 「표 2」를 보면, 『조선금석총람』 간행 이후에 1945년까지 알려진 금석문은 14개에 불과하다.

효자리비, 창립사무구정탑원기, 황복사 삼층석탑 조탑명 등은 경주 일대의 여러 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창립사 무구정탑원기는 1922년에 소천현부와 매원말치, 등전양책 등이 경주의 월성과 사천왕사터, 망덕사터, 황룡사터, 창립사터를 조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덕왕비 단편과 흥덕왕비 단편, 황복사비 단편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김인문비와 규흥사종명, 진흥왕마운령무사순수비는 이미 조선 후기 금석학자에게 거론되었던 것이나 일본의 알려진 것, 그리고 1929년에 조선수사회 축탁이었던 최남선이 마운령 신라진흥왕순수비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남산신성비와 임신서기석은 1934년에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일제는 1921년부터 등전양책, 소천현부, 소장항길, 매원말치 등이 금관총·금령총·식이총·서봉총 등 경주 일대의 고분을 주로 발굴하였다. 이들 고분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금관을 비롯하여 화려한 신라의 공예품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자연히 금속으로 만든 용기나 토기에 적혀 있는 명문만 알려질 뿐, 다른 금석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 그러한 현상은 1931년에 일제의 재정 압박으로 고적조사가 용이하지 않아 조선고적연구회를 설립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有光教一과 齋藤忠은 경주 황남동·충효동·황오동·서악동·노서동 등의 고분 발굴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발굴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경주 시가의 확장 등 긴급한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시 발굴이 대부분이었다. 자연히 1920년대 이후 신라 금석문의 수집은 몇몇 새로이 발견된 금석문을 제외하고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다만 금서룡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금석문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다. 葛城末治는 1921년부터 『朝鮮金石攷』¹⁷⁾와 「朝鮮金石文」,¹⁸⁾ 「朝鮮金石文概說」¹⁹⁾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금석문에 대한 학문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1932년에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大東金石書·大東金石目·大東金石綱目』²⁰⁾을 펴냈고, 1935년에 藤田亮策은 자신이 활동하기 이전에 활동하였던 금서

15) 김창호는 신라 금석문 연구가 활기를 띤 것이 꼭정제일이 1914년에 창녕 진흥왕순수비를 발견·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金昌鎬, 「古新羅 金石文의 研究 成果와 그 課題」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23 新羅 金石文의 現況과 課題, 2002, 4쪽.

16) 近澤書店, 1933. 1970년에 國書刊行會에서 復刊되었다.

17) 大阪屋號書店, 1921. 1974년에 國書刊行會에서 復刊되었다.

18) 『朝鮮史講座』, 1923~1924.

19) 『靑丘學叢』14, 1933.

20) 朝鮮印刷, 1932.

통과,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함께 활동하였던 鮎貝房之進의 글을 자신의 글과 함께 「朝鮮金石瑣談」一·二으로 묶으면서 금석문 연구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²¹⁾ 하지만 다른 고적조사와 연구에 비해 금석문 수집과 연구는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다.

1919년 『조선금석총람』 간행 이후에 금석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금석문은 당시에 활동하였던 인물의 행적, 사회·경제적 상황, 사상계의 동향 등이 비록 과장은 있더라도 거의 사실에 가깝게 담겨 있다. 일제는 조선의 고적을 조사하면서 자신들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는 논거인 한국사 전개와 타율성·정체성 등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금석문에는 이러한 논리를 입증할 만한 기록이 사실 많이 담겨 있지 않다. 때문에 경주를 포함하여 평양, 개성 등 옛 수도에 대한 대대적인 고적조사 사업을 전개하면서도 유물이 출토되는 고분에 대한 조사와 발굴에 관심을 쏟을 뿐, 금석문을 뚜렷하게 주목하지 않았다. 한편 1911년에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에서는 조선 전국의 사찰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朝鮮寺刹史料』 상·하를 발간하였고, 이어 조선총독부는 1919년에 『조선금석총람』 상·하를 간행하였다. 이 두 책은 일제강점기 이전과 조선병탄 이후에 일제가 실시한 전국적인 조사를 한데 엮은 결과물이다. 이것에 실리지 않은 금석문은 발굴이나 제보 등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1920년대부터 조선총독부의 건축 재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자연히 적은 재정으로는 이데올로기적 효율성이라는 목적의 필요성을 충족할 조사나 발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²²⁾ 따라서 많은 재정과 노력이 들어야 하는 금석문 자료의 발견과 수집, 정리는 뒤로 밀려야 했고, 금석문 연구 역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3. 일본인 연구자의 신라 금석문 연구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연구자는 조선의 고적을 조사하는데 애를 썼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몇몇의 연구자들이 특별히 금석문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금서룡은 신라 금석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일제강점기 금석문의 연구는 1919년에 간행된 『조선금석총람』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21) 『靑丘學叢』5-19·20, 1935.

22) 이순자, 앞의 책, 201~204쪽.

「표 2」 『조선금석총람』과 금석문 목록과 기타 금석문 목록

목차	금석문 제목	비고	금서 용	갈성 말치	등전 양책	점패 방지 진	말송 보화
三國期	창녕 신라진흥왕척경비		○	○			
	함흥 신라진흥왕순수비		○	○			○
	양주 신라진흥왕순수비		○	○			
	경주 신라무열왕릉비	題額만		○			○
삼국기 附錄	경주 아도화상비	삼국유사에서 옮김					
	고성 술량제명석각	해동금석원에서 옮김					
신라기	경주 사천왕사비			○			
	구례 화엄사 석각화엄경			○			
	경주 감산사 미륵보살조상기			○			○
	경주 감산사 아미타여래조상기			○		○	○
	평창 상원사종기			○		○	
	경주 성덕왕신종명		○	○			
	경주 고선사 서당화상탑비			○			
	개녕 갈항사 석탑기			○		○	
	경주 무장사 아미타여래조상사적비			○			
	함안 방어산석각						
	창녕 읍내석불조상기					○	
	경주 백률사 석당기		○	○			
	시흥 중초사 당간석주기			○		○	
	진주 연지사종기	在日			○	○	
	원주 흥법사 염거화상지			○			
	철원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조상기			○			
	봉화 취서사 석탑사리합기		○				
	운봉 심원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비			○			
	양양 사림사 홍각선사비			○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			○			
	남포 성주사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			
	충주 월광사 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			○			
	담양 개선사 석등기					○	
	풍전 우좌신궁조선종기	在日			○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비			○			
	창원 봉림사 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	해동금석원 수록		○			

		비문 덧붙임					
	충주 석가여래조상기		○				
	하동 신용암 수증석각						
	문경 아유암 석각						
	단성 단속사 동동구석각						
	창원 월영대 석각						
	합천 차필암 석각						
	합천 홍류동 석각						
	강릉 영랑연단석구각자						
신라기 부록	경주 신라문무왕릉비	해동금석원에서 옮김	○				
	대마 국분팔번궁조선종기	在日			○	○	
	단성 단속사 신행선사비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구탁본에서 옮김					
	곡성 대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	구례 화엄사 소장 사본에서 옮김				○	
	경주 승복사비	순창 구암사 소장 사본에서 옮김					○
조선금 석총람 에 수록 되지 않은 것	경주 효자리비		○				
	경주 남산신성비				○		○
	장흥 보림사 석탑지				○		○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사나불조상기		○		○		
	규흥사종	在日			○		○
	양양 선림사지 출토종				○		
	신라 진흥왕마운령무자순수비		○				○
	임신서기석						○
	경주 창림사 부구정탑원기						○
	김인문비						○
	성덕왕릉 앞 비석 단편						○
	흥덕왕릉 앞 비석 단편						○
	황복사비 단편						○
	황복사 삼층석탑 조탑명						○

이 표는 『조선금석총람』에 수록된 금석문과 그것에 수록되지 않은 금석문을 정리한 것이다. 삼국기 부록에 실린 경주 아도화상비, 고성 슬랑제명석각과 신라기 부록에 게재된 경주 신라문 무왕릉비는 각각 『삼국유사』와 『해동금석원』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 외의 금석문은

단성 단속사 신행선사비, 곡성 대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 경주 승복사비처럼 舊拓本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조선금석총람』의 금석문 목록 옆에 제시한 연구자의 이름과 ‘○’는 금서룡과 함께 葛城未治, 藤田亮策, 鮎貝房之進, 末松保和 등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금석문을 함께 표시한 것이다. 갈성말치와 등전양책, 점패방지진은 신라 금석문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나 연구서를 발표하였고, 말송보화는 일제강점기 말에 경주의 고적을 조사하는데 참여하였다. 특히 등전양책과 말송보화는 田川孝三과 함께 금서룡의 유저로 『신라사연구』 발간을 주도하였다.²³⁾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 금서룡의 신라 금석문의 연구는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²⁴⁾

신라 금석문을 본격적으로 조사하였던 금서룡은 창녕 진흥왕순수비와 양주 진흥왕순수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것은 그가 1916년과 1917년에 각각 북한산 진흥왕순수비와 창녕 진흥왕순수비를 직접 조사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외에 그는 경주 성덕왕신종명과 경주 백률사 당간석주기, 봉화사 취서사 석탑사리합기, 경주 신라문무왕릉비, 경주 효자리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성덕대왕신종명과 백률사 당간석주기 역시 그가 1906년에 경주의 고적조사에 참여하기 전인 1903년에 이미 관아정이 이것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언급하였다.

이에 비해서 갈성말치는 『삼국유사』나 『해동금석원』에 이미 게재된 금석문이나 구탁본류, 石刻類와 在日所在 鐘銘 등을 제외하고 『조선금석총람』에 수록된 거의 모든 금석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등전양책은 종명을 제외하고는 『조선금석총람』에 있는 금석문을 언급하지 않은 대신에 그것에 실리지 않은 경주 남산신성비, 장흥 보림사 석탑지,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사나불조상기, 양양 선림사지 출토종을 주로 거론하였다. 그는 『조선금석총람』 간행 이후에 발견된 금석문에 주로 관심을 보여, 그것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점패방지진은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불상의 조상기나 석등기, 석탑기, 종명, 당간석주기, 탑비 등을 거론하였다. 그는 아마도 금석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당 石物이나 범종에 대한 연구를 위해 명문을 거론하였던 듯싶다. 말송보화는 등전양책처럼 『조선금석총람』에 게재된 것보다는 뒤에 발견된 금석문을 더 언급하였다. 그 역시 새로 발견된 금석문을 소개하고 그것을 분석하는데 애를 썼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 금석문 연구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는 금서룡과 갈성말치의 연구를 중심으로 등전양책과 말송보화의 연구를 보완하는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23) 今西龍, 「後記」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24) 이들 외에도 池內宏이 「眞興王の戊子巡境碑と新羅の東北境」 『朝鮮古蹟調査特別報告』6, 1929를 발표하였고, 藤島亥治郎이 「慶州を中心とせる新羅時代碑論」 『考古學雜誌』23-11, 1933를 발표하여 금석문에 대한 관심을 일부 보이기도 하였다.

금서룡은 1906년부터 경주 등에서 고고학 조사를 한 뒤 1913년 9월에는 관야정과 함께 평안남도 용강군의 고적조사를 실시하여 점제현신사비(粘蟬縣神祠碑)를 발견하였다. 그는 1916년에 동경제대의 교수로 임용된 다음에 북경에 유학하였고, 192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겸임하였으며, 1923년~1932년에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위원을 지냈다.

그는 1918년에 「慶州栢栗寺六面石幢刻文」를 발표하였고,²⁵⁾ 1921년에는 「新羅文武王陵碑に就きて」, 「聖德大王神鐘之銘」, 「孝子里碑」를 썼으나 「新羅文武王陵碑に就きて」만 발표하였다.²⁶⁾ 1922년에 「新羅眞興王巡狩管境碑考」를 완성하여 발표하였고,²⁷⁾ 1929년에 「鷲棲寺舍利石盒刻記」를 모두 완성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 신라 금석문에 대한 6편의 논고를 작성했지만, 3편은 학술지에 발표하고 3편은 완성하지 않은 채 발표하지 않았다.

미발표된 3편 가운데 「효자리비」와 「취서사사리석합각기」는 유물의 크기와 모습, 소장 현황과 함께 釋文을 붙인 정도로, 효자비의 주인공인 손시양에 대한 문헌 고증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붙이지 않았다. 이 글은 아마도 추후에 다시 손을 볼 예정이었던 듯하다. 이에 비해 「성덕대왕신종지명」은 명문에 대한 석문을 붙인 다음에 『삼국유사』를 인용하여 신종의 제작 목적을 가늠하였고, 이어 글씨를 쓴 金生을 비롯하여 명문에 나오는 인물의 행적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신라의 관서와 관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주백률사육면석당각문」, 「신라문무왕릉비에 대하여」, 「신라진흥왕순수관경비고」 등 발표된 3편의 글은 발견 경위, 비명 교감 및 해석, 비 건립의 의미 등을 다른 문헌자료와 비교하여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경주백률사육면석당각문」, 「신라문무왕릉비에 대하여」에서는 문무왕 선대와 문무왕의 흥거일, 화장 장소, 아도비와의 관계, 조성 연대 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신라 금석문에서 두 비가 가지는 가치 등은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금서룡은 황초령, 북한산, 창녕의 진흥왕순수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언급하였다. 비의 위치와 모습, 발견 경위, 옛 기록과 비교한 교감, 비문의 해석, 건립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사실상 그의 신라 금석문 연구는 3기의 진흥왕순수비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 비는 한반도 고비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며 조선에 있는 여러 유물 중에서 제1등이고 실로 국가의 지극한 보배라고 할 수 있다.

…낙랑 한나라 사람이 세운 粘蟬碑를 제외하면 진흥왕비는 압록강·두만강 이남의 한반도에서 가

25) 『考古學雜誌』8-11, 1918.

26) 『藝文』12-7, 1921.

27) 『考古學雜誌』12-11, 1922.

장 오래된 비이다.²⁸⁾

금서룡은 당시 조선에 남아 있는 옛 비 가운데 진흥왕순수비 3기를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귀중한 국가의 보배인 비라고 찬탄하였다. 그는 1916년과 1917년에 북한산과 창녕의 진흥왕순수비를 직접 확인하고 금석문 연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찬사를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곧 진흥왕순수비는 그의 신라 금석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였다. 다만 신라의 대표적인 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구려, 백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중에서 역사가 가장 유구하고 그 문화가 진보한 나라는 고구려였고, 그에 버금가는 것이 백제였다. 신라는 가장 늦었는데 앞서 언급한 진흥왕대 무렵부터 중국문화를 이식하는 데 힘써 급속히 진보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다른 두 나라 만큼은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문화의 정도나 존속의 시간으로 보아 비의 건립이 가장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신라에서 동시대 같은 종류의 비가 3기나 남은 것은 奇緣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삼국이 정립한 시대의 신라비로서 잔존하는 것은 이 3기밖에 없다.²⁹⁾

금서룡은 진흥왕순수비 3기에 대해서 찬탄을 하였지만, 그것을 삼국시대의 유일한 비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고구려·백제보다 문화가 뒤떨어져 비의 건립 역시 적었을 신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3기의 비가 발견되었던 것을 기연이라고 하였다. 그의 진흥왕순수비에 대한 애착은 문화수준이 뒤떨어진 삼국시대 신라에서 한꺼번에 발견된 유일한 비였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신라 고적은 물론 금석문을 조사·수집할 때 그가 신라에 대한 편협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려 준다. 1910년에 그가 작성한 「新羅舊都慶州の地勢及び其遺蹟遺物」에 보면³⁰⁾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유물·유적의 풍부함으로 논하면 신라의 고도 경주는 고구려의 고도 평양·백제의 고도 부여…보다 매우 뛰어나지만, 이를 가지고 삼국시대에 신라가 삼국 중 최고의 문화를 가졌다고 단언하면 커다란 오류이다. 경주에 현존하는 유물·유적은 대부분 삼한통일 이후의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은 매우 적다고 한다.…경주의 신라 유물·유적 중 수·당 문화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것은 오직 황남리·금척동의 수많은 고분과 월성이 있을 뿐이다.…더욱이 신라 유물로서는 과연 신라 것인지 아닌지에 대

28) 今西龍, 앞의 책, 1933, 487쪽 ; 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아마니시 류의 신라사연구』, 서경문화사, 2008, 398~399쪽.

29) 今西龍, 앞의 책, 1933, 411~412쪽 ; 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앞의 책, 2008, 338~339쪽.

30) 『東洋學報』1-1, 1911.

해 아직 연구를 필요로 하는 진흥왕순수 2비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고구려의 호태왕비에 비하면 굳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³¹⁾

이 글에는 경주의 지세와 함께 6부 유적, 계림, 경주 안팎의 여러 성터, 김유신묘·괘릉·문무왕릉 등 능묘, 사천왕사·망덕사 등 사찰터, 임해전, 일정교터, 나정 절터, 분황사 화쟁국사비, 석탑 등이 언급되어 있다. 금서룡은 경주의 지세와 유적·유물을 소개한 뒤 결론에서 경주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유물·유적은 수·당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의 것은 몇몇 고분과 월성이 대표적이며, 그나마 진흥왕순수비 2기도 고구려의 호태왕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삼국시대 신라의 문화수준은 고구려·백제에 비하면 삼국 최고의 문화를 가졌다고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다고 강조하였다.

이 글은 쓴 1910년에 금서룡은 1906년 경주의 고적조사를 마치고 동경제대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갔을 때였다. 그는 단 한차례의 경주 고적조사를 통해 신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문화수준에 대한 이해는 그의 경험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이전 연구자의 시각을 그대로 용인한 탓일 것이다. 아마도 그는 관아정의 신라 고적조사와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듯하다. 때문에 금서룡은 신라와 일본의 관계도 왜곡해서 이해하였다. 다음의 글을 살펴보자

고구려·백제를 세운 부여 민족은 한반도로 남하하기 이전부터 중국 방면과 교류해 상당한 개화를 경험했다. 신라는 개화되지 않은 민족인데다, 중국문화를 적게 가졌던 북방민족과 왜인 등이 와서 세운 나라이다. 사서와 유물에 의거해 판단하면, 상대 삼국 중에 가장 진보하고 개화를 이룬 것은 고구려이고, 백제는 그 다음이며, 신라의 경우는 가장 뒤졌다. 그리고 신라는 5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갈 때, 즉 지증왕·법흥왕 무렵 고구려를 통해 중국문화를 수입했고, 국운도 함께 개화되고 급격히 진보하여 일본의 개화를 따라잡았다. 곧이어 마침 삼한에서 일본의 세력이 쇠퇴함에 편승해 해상교통권을 얻었고, 중국문명을 직접 수입하여 마침내 일본을 능가했으며,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토를 모두 빼앗았다. 일본 상대의 개화는 고구려·백제보다도 뒤졌다고 볼 수 없다. 일본 상대의 개화는 일본보다 뒤늦게 한반도에서 일어난 백제·신라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일본은 지리적 위치상 고구려·백제처럼 중국 교통이 편하지 않았고, 또한 낙랑군의 멸망 후에는 항해에도 곤란이 생겼을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문화에 대한 향유가 일정 기간씩 뒤지게 되어 이를 2국을 통해 전해 받은 경우도 생겨났다. 그렇지만 일본은 끝내 신라로부터 문화를 전해 받은 일은 없었다.³²⁾

31) 今西龍, 앞의 책, 1933, 122~127쪽 ; 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앞의 책, 2008, 111~115쪽.

32) 今西龍, 앞의 책, 1933, 123~129쪽 ; 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앞의 책, 2008, 112~117쪽.

고구려·백제보다 뒤진 신라는 원래 개화되지 않은 나라인데, 처음에는 고구려를 거쳐 중국문화를 수용했지만, 한반도 내에서 일본의 영토를 모두 빼앗은 뒤에 중국 문명을 직접 수입하여 개화하였다. 일본은 한반도의 백제와 신라를 통해 중국 문명을 전해 받지 않고 낙랑을 통해 전해 받았는데, 낙랑의 멸망 후에 중국 문명을 얻지 못한 탓에 잠시 개화가 늦추어지긴 했지만, 결코 신라의 문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신라가 북방민족과 왜인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금서룡은 신라 문명의 일본 전래설을 부정하였다. 나아가 그는 신라를 자신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면서, 신라가 선조들을 한반도에서 내몰았다고 강조하였다. 때문에 그는 비슷한 시기에 3곳에 세워진 신라 진흥왕순수비를 조사하고는 일본보다 개화가 늦은 신라의 문화수준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찬탄하면서, 그 외의 금석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금서룡은 신라사 뿐만 아니라 고구려·백제에 대한 여러 편의 논고를 발표하였다. 이들 글에서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나타난 紀年과 世系를 허구로 몰았으며, 신라와 백제, 任那를 모두 일본에 예속된 식민지로 규정하였다.³³⁾ 그는 여느 일본인 학자들처럼 한국사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신라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였다.

갈성말치는 금서룡과 비슷한 시기에 고적조사에 참여하면서 금석문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그 역시 삼국시대 신라의 금석문으로 신라 진흥왕순수비와 신라 무열왕릉비만 주목하였다. 그는 금서룡이 가졌던 신라 금석문에 대한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등전양책은 해당 금석문에 대한 내용을 대체로 고증하였을 뿐 그 의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말송보화 역시 해당 금석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신라 금석문에 대한 연구는 갈성말치나 등전양책, 말송보화를 거치면서 내용에 대한 고증학적 수정 및 보완을 이루어졌지만 그 의미나 성격에 대한 부분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³⁴⁾

결국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의 금석문 연구는 일제가 의도한 신라를 폄하하면서 낙랑으로부터 문명을 수용하였다는 논리를 보강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특히 그것은 삼국시대에 주로 집중되었으므로, 진흥왕순수비 등 삼국통일 이전에 만들어진 금석문이 주로 다루어졌다. 더욱이 새로운 금석문 발견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새로 발견된 금석문을 소개하고 이전에 알려진 금석문을 계속 언급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연히 신라 금석문에 담겨 있는 신라 고유의 사회제도나 중국과 연결된 사상계의 동향 등은 특별한 관심을 얻지 못하였다.

33) 崔在錫, 「今西龍의 韓國古代史論批判」 『韓國學報』46, 1987, 4~34쪽.

34)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別稿로 미루고자 한다. 先學諸賢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

4. 맺는 말

일제강점기에 신라 금석문은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그들은 17세기부터 시작되어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조선 후기 실학자의 금석문 수집과 연구를 참고하였다. 그 가운데 황초령비 등 신라 진흥왕순수비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일제의 신라 금석문 수집은 190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수집은 조선의 고적을 조사하면서 진행되었는데, 관아정이 주로 전담하였다.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에 소속되었던 그는 1902년부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의 주요 유적을 조사할 때 금석문을 조사하였고,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범종과 관련하여 신라 범종 연구에 힘을 썼다. 특히 1904년에 발간한 『韓國建築調査報告』를 통해 조선의 지세와 기후, 지질, 역사, 종교, 사회 등 총설과 함께 경주와 개성, 한성 등의 주요 유적,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요 사찰, 능묘, 교량 등을 각각 정리하였다. 이것은 이후 전개된 일본인 연구자의 고적조사와 금석문 수집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관아정 이후에 신라 금석문 수집은 조거용장, 곡정제일, 금서룡이 이어갔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에 전국의 건축과 고분, 성터와 절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15년까지 계속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1915년~1917년에 『朝鮮古蹟圖譜』1~5책으로 간행되었는데, 이들은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일제는 1916년에 ‘고적급유물보전규칙’을 제정하여 전국의 많은 유적을 조사하고 등록하였다. 조사 내용은 매년마다 조선총독부에 보고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연차별로 ‘古蹟調査報告’를 발간하며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 때 조선총독부는 1913년부터 1916년까지 4년 동안 금석문을 조사하여 탁본 1천 여점을 간추려 1919년 3월에 『朝鮮金石總覽』을 발간하였다. 한나라의 군현이 설치되었던 때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금문과 석문이 수록한 이 책은 경술국치 이전부터 실시되었던 조선 고적조사의 내용은 물론 1910년 이후 1919년까지 진행된 전국 유적·유물 조사 내용 가운데 금문과 석문을 총망라한 금석문 총서였다.

1919년 『조선금석총람』의 발간을 전후하여 신라 금석문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였다. 금서룡은 그 연구를 주도하였다. 1906년에 경주를 조사했던 그는 19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신라의 금석문을 조사하여, 1916년과 1917년에 북한산의 신라진흥왕순수비와 창녕의 신라진흥왕척경비를 직접 확인하였다. 그 뒤 1918년부터 1921년까지 연이어 이 비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

금서룡은 당시 조선에 남아 있는 옛 비 가운데 진흥왕순수비 3기를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귀중한 국가의 보배인 비라고 찬탄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삼국시대의 유일한 비로 규정하면서 고구려·백제보다 문화가 뒤떨어져 비의 건립 역시 적었을 신라에서 3기의 비가 비슷한 시

기에 만들어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경주의 지세와 유적·유물을 소개하면서 경주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유물·유적은 수·당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삼국시대 유적은 몇몇 고분과 월성 뿐이라고 하고, 진흥왕순수비 2기도 고구려의 호태왕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삼국시대 신라의 문화수준은 고구려·백제에 비하면 삼국 최고의 문화를 가졌다고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는 신라 문명의 일본 전래설을 부정하면서 신라를 자신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라고까지 주장하였다. 금서룡은 여느 일본인 학자들처럼 한국사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신라의 금석문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였다.

금서룡 이후에 신라 금석문에 관심을 둔 갈성말치, 등전양책, 말송보화 역시 금서룡의 신라 금석문 인식을 계승하였다. 하지만 1921년부터 일제가 경주 일대의 고분을 장기적인 계획과 긴급한 이유로 발굴하면서 신라 금석문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졌다. 자연히 신라 금석문 연구 역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연구자들은 금석문을 착실하게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방증 자료를 열거하여 문헌고증에 철저하였다. 그러나 금석문에 담긴 당시의 시대정신이나 사회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것은 금석문이 조선의 식민 지배를 위한 일제의 조선사 연구의 목적에 크게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신라 금석문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1946년 대구무술명 오작비와 1968년 영천청제비, 1970년 울주천전리서석, 1978년 단양적성비, 1988년 울진봉평비·명활산성비, 1989년 영일냉수리비 등 신라 사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여러 금석문이 발견될 때까지 휴식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연구자의 신라 금석문 연구」에 대한 토론문

권 덕 영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금석문은 당시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자료보다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근년에 발표된 신라사 관련 논문들의 상당수가 어떤 형태로든 금석문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라의 금석문이 본격적으로 조사·정리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이다. 따라서 한국 금석문 연구사에서 일제 강점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장일규 선생의 오늘 발표는 바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이 수행한 신라 금석문의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즉 발표자는 이 글의 전반부에서 일본인들의 신라 금석문 조사과정을 정리하고, 후반부에서는 금석문에 대한 일본인들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일본 연구자들의 신라 금석문에 대한 조사·연구의 의도를 이른바 ‘식민사관’과 관련시켜 이해하였다.

이 발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치밀한 논증이라기 보다 일종의 연구사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쟁점으로 삼을 만한 문제는 별로 없다. 다만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독자의 입장에서 다소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과 몇몇 의문점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일제 강점기에 행해진 신라 금석문 조사·연구에 대한 질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일제 강점기에 조사·연구된 많은 신라 금석문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이 정리한 금석문 하나하나가 학술적으로 얼마나 양질의 자료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조선금석총람」을 비롯한 각종 자료집에 수록된 판독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금석문을 당시에 얼마나 적절하게 연구에 활용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둘째, 일제 강점기의 금석문 조사, 정리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금석문자료 조사·정리의 압권이라 할 수 있는 「조선금석총람」의 편찬과정, 다시 말하면 1913년-1916년 사이에 실시된 ‘조선 금석문 조사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일제시대 일본 연구자들의 신라 금석문 조사 연구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더욱 요구된다. 그럼에도 발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생략되었다.

셋째,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의 신라 금석문에 대한 조사·정리 의도를 식민사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이해하는 점이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 물론 신라 금석문 조사·연구도 원활한 식민통치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발표문만으로 그러한 사실을 추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한다. 특히 今西龍의 몇몇 글을 통하여 “금서룡은 어느 일본인 학자들처럼 한국사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신라의 금석문을 통해 강조하려고 하였다”라고 논단한 것은 지나친 추론이 아닐까 생각된다.

넷째, 일제시대 신라 금석문의 조사·정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인색한 점이 아쉽다. 모든 일에 功過가 있듯이, 일본인들의 신라 금석문 조사, 연구도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발표자께서는 일제 강점기 신라 금석문 조사·연구를 ‘식민지 지배 방안 찾기’의 일환이라 하며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켰다. 그러면 과연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들이 행한 신라 금석문 조사, 연구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의문 세 가지를 언급하고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신라사 연구는 금석문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금석문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러면 일제 강점기의 신라사 연구에는 과연 금석문이 어느 정도 활용되었을까? 둘째, 일제강점기 신라 금석문 연구 목록인 「표2」에서 藤田亮策이 ‘양양 선림사지 출토종’을 연구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림사지 출토종은 “貞元二十年” 명문이 적힌 선림원지 출토 신라종이 아닌지? 셋째, 발표문에서는 1923년에 만들어진 「조선금석총람보유」 편을 「조선금석총람」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